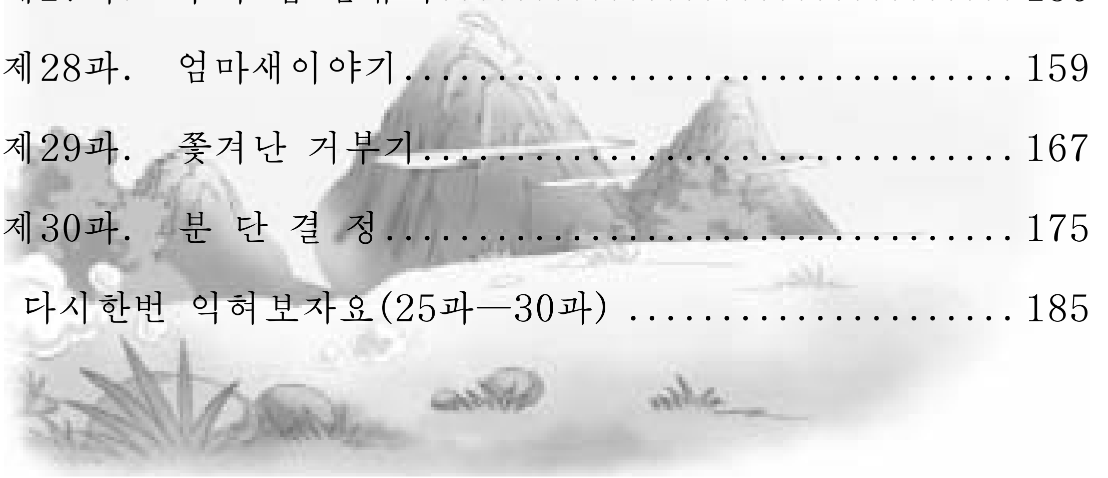
차　　례



영생불멸의 혁명송가

제1과

김정일장군의 노래



신 운 호

백두산줄기 내려 금수강산 삼천리
장군님 높이 모신 환호성 울려가네
태양의 위업 빛내신 인민의 령도자
만세 만세 **김정일**장군

대지의 천만꽃도 그 사랑을 전하고
동서해 푸른 물도 그 업적 노래하네
주체의 락원 가꾸신 행복의 창조자
만세 만세 **김정일**장군

강철의 담력으로 사회주의 지키여
내 나라 내 조국을 세상에 떨치시네
자주의 기치 높이 든 정의의 수호자
만세 만세 **김정일**장군

바로 읽고 바로 쓰자요

❖ 본보기읽기를 들으며 《ㅢ》자의 발음을 새겨두세요.

《ㅢ》자의 발음

《ㅢ》자는 다음과 같이 발음합니다.

▶ 《의사》와 같이 《의》자가 앞에 올 때에는 〔ㅢ〕로 발음합니다.

▶ 《사회주의》와 같이 《의》자가 뒤에 올 때에는 〔ㅣ〕로 발음합니다.

▶ 《우리의》와 같이 《의》자가 토로 쓰일 때에는 〔ㅢ〕로 발음하지만 동요, 동시, 가사로 읊을 때에는 〔ㅔ〕로 발음합니다.

▶ 《너희, 건늬다, 무늬》 같은 말들에서는 〔ㅣ〕로 발음합니다.

- 다음단어들을 《ㅢ》발음에 주의하면서 정확히 읽어보세요.

  태양의, 인민의, 대지의, 주체의, 행복의,

  강철의, 사회주의, 자주의, 정의의

❖ 다음단어들을 바로 읽고 쓰자요.

삼천리, 환호성, 위업, 빛내신, 담력, 주체의, 천만꽃도

❖ 본문을 살려읽어봅시다.

살 려 읽 기

글을 살려읽는다는것은 글에 담겨져있는 내용과 감정을 말소리로 나타내면서 생동하게 읽는것을 말합니다.

▶ 살려읽기를 잘하려면 우선 글의 내용을 미리 알고 그것을 발음규범에 맞추어 끊기, 높낮이, 힘주기, 속도를 잘 지켜 읽어야 합니다.

▶ 또한 글의 형태도 잘 알고 그에 맞게 읽어야 합니다.

• 1절을 읊어봅시다.

백두산줄기 내려 금수강산 삼천리//
장군님 높이 모신 환호성 울려가네//
태양의 위업 빛내신 인민의 령도자//
만세 만세 **김정일**장군///

• 2절과 3절을 끊기, 높낮이, 힘주기표식을 하고 읊어보세요.

어려운 말을 풀어보자요

❖ [ ] 안에 알맞는 단어(**령도자, 창조자, 수호자**)를 넣고 그 뜻을 알아보자요.

• 경애하는 **김정은**선생님은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과 **김정일**대원수님의 뜻을 받들어 우리 나라와 인민을 승리의 길로 이끄시는 우리 당과 인민의 최고[ ]이십니다.

• 인민군대는 원쑤놈들의 침략으로부터 우리 나라와 인민을 지키는 조국의 [ ]들입니다.

• 우리 인민군대는 서해갑문, 희천발전소를 일떠세운 사회주의 건설의 [ ]들입니다.

❖ 맞는 뜻에 줄을 그어보자요.

금수강산	즐겁고 살기 좋은 세상
환호성	비단에 수놓은것처럼 아름다운 강산
락원	기쁘고 반가와서 내는 소리
대지	더없이 훌륭한 사업
위업	겁이 없고 대담한 기운이나 힘
담력	넓은 땅

내용을 알아내자요

❖ 위대한 장군님을 높이 모신 우리 인민의 기쁨을 어떻게 노래하였습니까?

❖ 위대한 장군님의 사랑과 업적을 어떻게 노래하였습니까?

❖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우리 조국을 어떻게 지키고 빛내여주시였습니까?

❖ 가사의 내용을 말해보세요.

재미있게, 조리있게 말해보자요

❖ 위대한 장군님은 어떤분이십니까?

❖ 위대한 장군님그대로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선생님께 충직한 참된 아들딸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멋진 글을 지어보자요

위대한 장군님께서 우리 학생소년들에게 돌려주신 사랑에 대한 내용으로 이야기글을 지어봅시다.(6문장)

❖ 글감을 생각해보세요.

❖ 글차례를 세워보세요.

❖ 제목을 달고 글을 지어보세요.

❖ 지은 글을 다듬어보세요.

배운것을 다져보자요

1. 가사를 외우고 동무들과 부모님들앞에서 읊어보세요.
2. 다음단어들의 뜻을 말하고 각각 두개 문장으로 짧은글을 지어보세요.

   금수강산, 락원, 담력

3. 《행복》과 반대되는 말을 찾고 □ 안에 두 단어를 알맞게 써넣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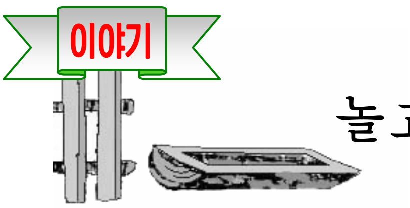
   누가 □ 을 가져다주기를 앉아서 기다리는 사람은 □ 한 사람입니다.

4. 가사의 절별내용을 말해보세요.



꼭 새겨두자요

아버지 **김정일**장군님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의 뜻을 받들어 우리 나라를 지켜주시고 세상에 빛내여주신 우리 인민의 위대한 령도자이십니다.



제2과

놀고먹던 꿀꿀이



(이 작품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 친히 들려주신 이야기에 기초한것입니다.)

옛날 어느 산기슭에 아담한 초가집 한채가 있었습니다. 뒤동산에는 푸른 숲이 우거지고 집앞으로는 맑은 물이 흐르고있었습니다. 부지런히 농사를 지으며 살아가는 이 집에는 여러가지 집짐승들이 있었습니다.

어느 가을날이였습니다.

야웅이가 방에서 깡충 뛰며 달려왔습니다. 야웅이는 먼길을 다녀온 말에게 인사할 생각도 못하고 《방금 주인이 그러는데 놀고먹는 짐승을 하나 골라서 잔치상 반찬감으로 올리겠대요.》 하고 쌔근거렸습니다.

《이걸 어쩌면 좋겠나?》

말이 언제나 생각이 깊은 황소한테 물었습니다.

황소는 눈을 끔뻑끔뻑하며 무엇인가 생각하더니 《아무래도 다 모여서 의논해봐야겠다.》 하고 멍멍이와 야웅이더러 꿀꿀이와 수닭을 데려오라고 하였습니다.

황소는 모여온 여러 짐승들을 둘러보며 말하였습니다.

《이젠 다 모였으니 누가 주인집잔치상에 올라야 하겠는지 의논해보자.》

이때 꿀꿀이가 반색을 하며 한걸음 썩 나서서 대답하였습니다.

《의논할게 있니? 뻔한걸 가지구. 잔치에야 내가 가야지.》

《뭐, 네가?》

모두 눈이 둥그래서 꿀꿀이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럼 내가 가지 않구 누가 가겠니? 너희들이야 일하느라고 바쁠게 아니냐.》

야웅이가 듣다 못해 깨우쳐주었습니다.

《꿀꿀아! 내 말 좀 들어. 주인이 놀고먹는 짐승을 하나 골라서 잔치상 반찬감으로 올리겠다는거야!》

《뭐? 바 반찬감으로?…》

꿀꿀이는 야웅이의 말을 듣고서야 말을 더듬으며 뒤걸음치다가 제 구유에 걸채여 펄썩 주저앉고말았습니다. 그 꼴이 하도 망측했으나 누구도 웃지 않았습니다.

모두 깊은 생각에 잠겨 입을 다물고있었습니다.

갑갑증이 나는지 말이 절렁하고 방울소리를 울리며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원 참. 모두 생각들만 하고 누구도 말을 하지 않는구나. 어서 의논을 해보자꾸나.》

그러자 멍멍이가 말을 쳐다보며 말하였습니다.

《이왕 먼저 말꼭지를 뗐으니 누가 놀고먹는지 한마디 하세요. 말아저씨야 일도 아주 잘하시지 않아요.》

《나야 뭐 크게 한 일이 있나. 그저 곡식단이나 실어나르구 연자방아나 돌리군 했지. 그리고 주인을 태우고 장거리에 갔다오기도 하구…》

말은 이렇게 몇마디 하고는 다른 짐승들의 얼굴을 둘러보았습니다.

《참, 우리 말아저씨는 황소아저씨와 함께 힘든 일을 하는 상일군이지. 그러기에 우리 주인이 말아저씨에게 저렇게 방울을 많이 달아준게 아니요.》

멍멍이가 말의 목에 주렁주렁 매달린 방울들을 가리키며 한마디 하자 말이 고개를 저으며 말하였습니다.

《그런 말 말구 정말 힘든 일만 도맡아하는 황소의 이야기를 들어보자구.》

그러자 황소가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무슨 힘든 일을 도맡아한다구 그러나. 난 별로 자랑할만한 일을 못했네. 해마다 봄이 오면 밭을 갈고 여름이 되면 후치질을 했지. 그리고 가을에는 낟알을 실어들이고 겨울엔 두엄을 냈을뿐이지. 내딴에는 놀지 않고 일을 하느라고 했지만 말처럼 일손이 빠르지는 못하지. 그래서 나는 어뜩새벽에 일어나 일을 시작하구 어두워서 보이지 않을 때에야 일손을 떼군 했지.》

이번에는 야웅이가 절구통우에 깡충 뛰여올라 이야기를 하려고 하였습니다. 이때 마당가에 쌓아놓은 조낟가리밑에서 바스락소리가 났습니다.

순간 누군가가 《쥐다!》 하고 소리치자 모두 절구통우를 쳐다보았습니다. 그런데 언제 달려갔는지 조낟가리앞에서 야웅이의 야무진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꼼짝말앗!》

야웅이의 두눈에서는 시퍼런 불줄기가 펄펄 쏟아져나왔습니다. 그 불빛앞에 쥐 세마리가 부들부들 떨고있었습니다.

《네놈들 훔쳐먹으라고 쌓아놓은 낟알인줄 아니? 이놈들!》

야웅이는 쥐들을 끌어다 대추나무밑등에 매놓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절구통우에 뛰여올라 생글생글 웃으며 《기다리게 해서 안됐군요.》 하고 말하였습니다.

《안돼긴 뭐가 안돼. 참 네가 큰일을 했다. 저 쥐무리들을 잡지 않고 그냥 내버려둬봐라. 그러면 이 집 낟알이 한알도 남아있지 않을거다. 그러니 너는 우리들이 못하는 큰일을 하고있는셈이야.》

《그 말이 옳네. 몸은 비록 작지만 아주 큰일을 하고있지. 그러기에 주인은 야웅이가 하는 일이 고마와서 자기네가 사는 방에 함께 데리고 살지 않나.》

《제가 무슨 일을 한다구 그래요. 큰일이야 황소아저씨와 말아저씨가 도맡아해주기때문에 전 그저 쥐나 잡지요. 그게 내가 맡은 일이니까요.》

다른 짐승들은 야웅이의 말과 행동이 너무도 기특해서 모두 머리를 끄덕이며 《야웅이는 우리 집에 없어서는 안될 아주 귀중한 일군이지!》 하고 칭찬을 하였습니다.

그러자 멍멍이가 일어서서 《전 아까부터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할 말이 없어서 일어서지 못했습니다. 저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집을 지키는것밖에 없습니다.》 하고 말하고는 도로 자리에 앉았습니다.

수닭은 한마디만 하고 물러앉는 멍멍이를 의아하게 바라보다가 깃을 치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아니, 네가 한 일이 왜 그것뿐이냐? 네가 우리를 살려준 일도 있지 않니? 사실 네가 아니였다면 내가 이렇게 살아있기나 하겠니? 정말 그때일을 생각하면 죽어도 멍멍이를 잊을수 없어.》 하고 산에서 내려온 삵한테 물려가던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때 멍멍이가 쏜살같이 달려와 그놈을 물어메치지 않았더라면 수닭은 정말 큰일날번 하였습니다.

《아무렴 그렇구말구. 그러나 수닭만 고맙다고 할 일이 아니야. 우리들이 밤마다 편안히 잘수 있는것도 다 멍멍이덕이지. 그러니 멍멍이는 이 집의 복덩이야.》

황소가 이렇게 말하는 바람에 모두 머리를 끄덕였습니다.

남들이 하는 말을 듣고있는 동안에 꿀꿀이는 어쩐지 저만이 놀고 먹는 짐승같이 생각되여 속으로 슬그머니 겁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 얼굴, 저 얼굴 둘러보며 눈치만 슬슬 살피다가 남산만 한 배를 그러안고 일어서서 한마디 하였습니다.

《그러니 별수없이 꼬끼요수닭이나 꼬꼬댁암닭이 잔치상에 올라야 되겠군 그래.》

그러자 야웅이가 발딱 일어나 꿀꿀이를 쏘아보며 따졌습니다.

《아니 뭐라구?… 왜 꼬끼요수닭이나 꼬꼬댁암닭이 잔치상에 올라야 한단 말이냐?》

꿀꿀이는 웬 참견이냐는듯 흘깃 야웅이를 바라보며 말하였습니다.

《거야 뭐, 우리들가운데 놀고먹는게 꼬끼요수닭과 꼬꼬댁암닭밖에 더 있니? 해나는 날이나 비오는 날이나 몸치장이나 하고 이리저리 쏘다니기만 하더구나.》

그러자 황소가 퉁방울소리를 떨렁 울리며 엄한 목소리로 말하였습니다.

《네가 하는 말은 모두 일을 해보지 못한 건달놈의 수작이다. 수닭은 남들이 다 단잠을 자는데 자지 않고 때를 기다리다가 새벽이 되면 꼬끼요 하고 때를 알려준다. 그게 쉬운 일이겠니?》

황소가 이렇게 내리엮는 바람에 꿀꿀이의 고개는 푹 수그러지고 입은 척 붙어버리고말았습니다.

《뭐, 그리구 또 꼬꼬댁암닭이 잔치상에 올라야 한다구? 날마다 알을 낳아주는 착실한 살림군을 네 마음대로 잔치상에 올려?》

꿀꿀이는 더욱더 고개가 수그러지고 이제는 곁눈질도 못하였습니다.

꿀꿀이는 그만 가슴이 덜컥 내려앉으며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이때 야웅이가 꿀꿀이에게 한걸음 다가서며 말하였습니다.

《얘, 꿀꿀아, 어디 네가 한 일을 좀 말해보려무나.》

그러나 꿀꿀이는 척 붙어버린 입을 다시는 열지 못하였습니다.

일하기 싫어서 날마다 빈둥빈둥 놀기만 하고 쿨쿨 낮잠이나 자다가 남이 벌어들인거나 첩첩 먹으며 살아오던 꿀꿀이가 부지런히 일하는 그들앞에서 감히 무슨 말을 할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니 주인의 잔치상에 오를 짐승이 누구라는건 뻔하게 되였구나.》

황소의 말에 모두들 머리를 끄덕이며 자기네 보금자리로 흩어져갔습니다.

텅 빈 마당 한구석에는 꿀꿀이만 혼자 남았습니다.

둥근달도 긴긴 세월 게으르게 보람없이 살아온 꿀꿀이를 쌀쌀하게 내려다보며 차거운 빛을 뿌려주었습니다.

《아이쿠, 내 신세야! 한평생 빈둥빈둥 놀고먹는게 늘어진 상팔자인줄 알았더니 이게 무슨 꼴이 되였담. 결국 잔치상에 오를 놈은 나밖에 없구나! 으흐흑…》

꿀꿀이는 눈물을 뚝뚝 떨구며 한탄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이미 때늦은것이였습니다.



바로 읽고 바로 쓰자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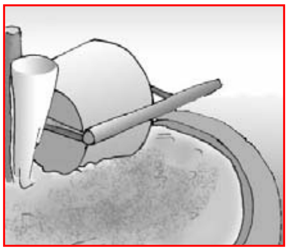
❖ 다음단어들을 바로 읽고 쓰자요.

우거지고, 아담한, 지으며, 갑갑증, 곡식단, 실어들이고, 게으르게, 망측했으나, 수그러지고, 신세야

❖ 본문에 나오는 집짐승들의 말을 살려읽어보세요.

어려운 말을 풀어보자요

❖ 그림을 보면서 단어의 뜻을 알아보자요.



연자방아



낟알



곡식



우거지다



아담하다

❖ 맞는 뜻에 줄을 그어보자요.

참견	집짐승들에게 먹이를 주는 그릇의 한가지
반색	어떤 일이나 말에 쓸데없이 끼여드는것
구유	고랑을 파서 씨앗을 떨굴 자리를 만드는데 쓰는 농기구
후치	몹시 반가와하는 기색

❖ 어울리는 말을 보면서 단어의 뜻을 알아보자요.

망측한 — 모양 / 소리

눈치 — 가 빠르다 / 를 보다 / 를 채다

❖ 문장속에서 단어의 뜻을 알아보자요.

《아이쿠, 내 신세야! 한평생 빈둥빈둥 놀고먹는게 늘어진 상팔자인줄 알았더니 이게 무슨 꼴이 되였담. 결국 잔치상에 오를 놈은 나밖에 없구나! 으흐흑…》

꿀꿀이는 눈물을 뚝뚝 떨구며 한탄하였습니다.

내용을 알아내자요

❖ 이야기가 벌어진 차례를 생각하며 다음의 물음에 대답해보세요.

- 집주인은 누구를 골라서 잔치상 반찬감으로 올리겠다고 합니까?
- 짐승들은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하여 어떻게 말했습니까?
- 결국 잔치상에는 누가 오르게 됩니까? 꿀꿀이는 자기의 신세를 어떻게 한탄합니까?



❖ 본문의 내용을 한 문장으로 말해보세요.

❖ 본문을 배우고 느낀 점을 말해보자요.

재미있게, 조리있게 말해보자요

❖ 본문의 내용을 옛이야기하듯 재미나게 말해보세요.

❖ 만약 꿀꿀이도 주인을 위하여 한 일이 있었다면 뒤의 이야기는 어떻게 되였을가요? 상상해서 말해보세요.

❖ 학생도 꿀꿀이처럼 생활한적이 없었는가요? 자기 생활을 돌이켜보며 말해보세요.

곱게 쓰자요

가로줄에 단어, 문장쓰기

❖ 가로줄에 글을 쓸 때에는 붙여쓰는 글자들사이의 간격을 눕힌글자너비의 절반보다 조금 좁게 하여야 합니다.

놀고먹던

❖ 띄여쓰는 글자들사이의 간격은 눕힌글자 한자～한자반의 너비만큼 잡습니다.

꿀꿀이 야웅이

❖ 글자들을 이어서 써나갈 때 모든 글자는 우와 아래가 한 직선에 놓이도록 글줄을 맞춥니다.

어느 가을날이였습니다.

❖ 글줄들사이의 간격은 글자높이의 절반의 절반정도 잡습니다.

모두 눈이 둥그래서 꿀꿀이를
바라보았습니다.

❖ 모든 글의 첫 글자와 새 토막의 첫 글자는 글줄이 시작될 때 한 글자 또는 두 글자 너비만큼 자리를 내놓고 안으로 들여씁니다.

텅 빈 마당 한구석에는 꿀꿀이만 혼자
남았습니다.

- 우의 본보기글을 글씨학습장에 세번 써보세요.
- 본문에 나오는 꿀꿀이의 말을 글씨규범에 맞게 곱게 한번 써보세요.

배운것을 다져보자요

1. 옳게 쓴 단어에 《○》를 치고 곱게 쓰세요.

끔뻑끔뻑	수탉	실어나루는	흘깃
꿈뻑꿈뻑	수닭	실어나르는	훌깃
의논애봐야겠다	낳아주는	싫어서	때늦은
의논해봐야겠다	나아주는	실어서	때늦은

2. 《자나깨나》와 같이 뜻이 반대되는 말이 합쳐진 단어를 5개이상 찾아보세요.

3. 빈자리에 알맞는 말을 써넣으세요.

   ㄱ) 황소가 _____ 끔뻑끔뻑하다.

   ㄴ) 꿀꿀이는 가슴이 덜컥 ________

   ㄷ) 낮잠을 쿨쿨 ________

   ㄹ) 첩첩 _________

4. 본문의 내용을 손짓, 몸짓을 하면서 재미있게 말해보자요.

5. 일을 하지 않고 놀고먹기만 좋아하는 사람을 건달군이라고 합니다. 이 단어를 제목으로 달고 5~7문장이상의 글을 지어보세요.



꼭 새겨두자요

누구나 로동을 사랑하고 부지런히 일해야 사는 보람이 있습니다.

일기

제3과

내가 부른 노래

4월 25일 월요일 개임

오늘은 인민군대아저씨들의 명절이다.

우리들은 희천발전소건설장에 동원된 인민군대아저씨들을 축하해드리러 갔다.

우리들이 건설장에 이르자 아저씨들이 박수를 치며 달려와 우리들을 얼싸안아주었다.

우리들은 위문품을 아저씨들에게 드리고 축하공연을 시작하였다.



공연은 처음부터 요란한 박수를 받았다. 내 차례가 다가오자 나는 가슴이 울렁거렸다.

(내 노래가 아저씨들을 기쁘게 해드릴수 있을가?…)

내가 첫 노래 《발걸음》을 부르자 아저씨들은 요란하게 박수를 쳤다.

나는 두번째 노래로 《내가 지켜선 조국》을 불렀다. 이번에도 박수소리는 그칠줄 몰랐다. 나는 재청을 받고 《강성부흥아리랑》을 불렀다. 내가 어깨춤을 추며 노래를 부르자 아저씨들도 흥이 나서 노래를 따라불렀다. 아저씨들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니 온종일이라도 노래를 불러드리고싶었다.

공연을 마치고 돌아오는 나의 마음은 마치 유격대를 찾아갔던 아동단유희대라도 된듯 끝없이 기뻤다.

앞으로 공부도 더 잘하고 노래도 더 잘 불러 인민군대아저씨들을 즐겁게 해드리겠다.

바로 읽고 바로 쓰자요

❖ 다음단어들을 바로 읽고 쓰자요.

이르자, 차례, 기쁘게, 부르자, 그칠줄, 아동단유희대, 된듯

❖ 본문에 나오는 받침단어들을 받아쓰기해보세요.

받침단어들의 적기

받침이 들어간 단어를 받침단어라고 합니다.

받침단어들을 맞춤법에 맞게 적으려면 단어뒤에 토를 달아보아야 합니다.

▶ 무엇이 《어찌하다, 어떠하다》는것을 나타내는 단어들에는 토《으니, 아서(어서), 고, 지, 다》를 달아보아야 합니다. 이때 모음토에 이어지는 소리가 받침으로 됩니다. 둘받침일 때는 먼저 나는 소리가 왼쪽받침이고 모음에 이어져나는 소리가 오른쪽받침입니다.

▶ 사람이나 물건, 동물이나 식물의 이름을 나타내는 단어들에는 토 《이, 을, 에》를 달아보아야 합니다.

• 다음단어들을 무엇이 《어찌하다, 어떠하다》는것을 나타내는 단어와 물건의 이름을 나타내는 단어로 갈라보세요. 다음 한 단어씩 ☐ 안에 넣고 토를 달아 읽어보세요.

얼싸안다, 끝없다, 위문품, 받다

ㄱ) ☐
- 으니 〔 〕
- 아서(어서) 〔 〕
- 고 〔 〕
- 지 〔 〕
- 다 〔 〕

ㄴ) ☐
- 이 〔 〕
- 을 〔 〕
- 에 〔 〕

어려운 말을 풀어보자요

❖ 어느것이 **위문품**인지 찾고 《○》를 치세요.

- 동무의 생일날에 주려고 마련한 물건
- 수고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마련한 물건
- 병문안 가려고 마련한 물건

❖ 맞는 뜻에 줄을 그어보자요.

얼싸안다	한번 청했던것을 다시 청하는것
공연	두팔을 벌려서 부둥켜안다
아동단유희대	사람들앞에서 노래, 춤 같은것을 하는것
재청	공연을 위하여 무어진 아동단원들의 대오

내용을 알아내자요

❖ 본문은 어떤 형태의 글입니까? 무엇을 보고 알수 있습니까?

❖ 본문의 글감은 무엇입니까?

❖ 본문은 크게 몇가지 차례로 되였습니까? 차례별로 내용을 써보세요.

❖ 본문의 내용을 한마디로 묶어보자요.

❖ 본문에서는 말끝을 《갔다》, 《하였다》, 《기뻤다》 등으로 낮춤의 말차림을 썼습니다. 왜 그렇게 썼을가요?

재미있게, 조리있게 말해보자요

❖ 학생은 인민군대아저씨들을 찾아간적이 있습니까? 언제 어디에 왜 갔댔습니까?

❖ 학생은 인민군대아저씨들에게 어떤 노래를 불러드리고싶습니까? 노래제목을 말하고 한번 불러보세요.

❖ 우리의 행복을 지켜주고 더 활짝 꽃피워주는 인민군대아저씨들을 위하여 어떤 좋은 일을 해야 할가요?

멋진 글을 지어보자요

❖ 태양절에 있은 일을 가지고 일기를 써보세요.

- 날자, 요일, 날씨를 쓰세요.
- 제목을 달아보세요.(제목을 달지 않고 쓸수도 있습니다.)
- 글차례를 세워보세요.
- 10문장이상의 글을 지으세요.

배운것을 다져보자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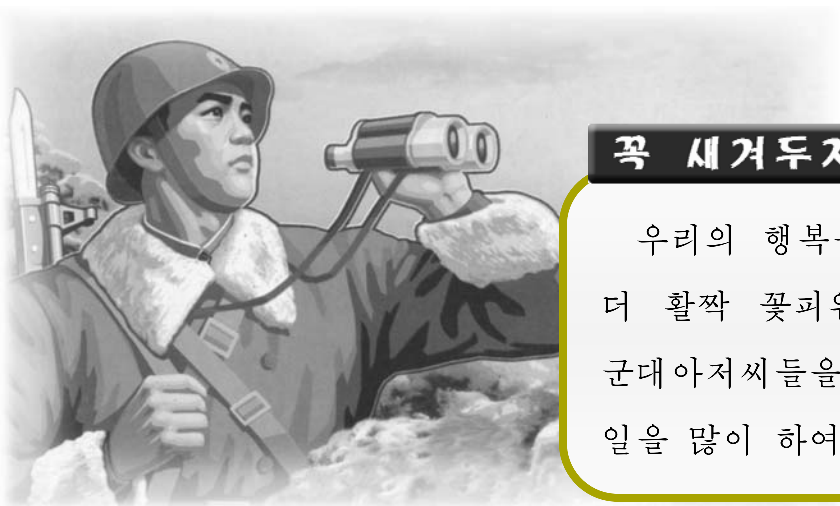
1. 본문을 살려읽으세요.
2. 다음단어들을 받아쓰기해보세요.

   위문품, 이르자, 그칠줄, 아동단유희대, 된듯, 끝없다,

   얼싸안다, 울렁거리다, 흥을 돋구다, 기뻤다
3. □ 안에 알맞는 말을 넣어 문장을 3개 만드세요.

   □ 은(는) □ 을(를) □ 고 □ 찾았다.
4. 빈자리에 알맞는 단어를 3개 찾아쓰세요.

   나의 마음은 마치 ______________________듯 기뻤다.
5. 일기를 쓰는데서 반드시 지켜야 할 점들은 무엇입니까?





꼭 새겨두자요

우리의 행복을 지켜주고 더 활짝 꽃피워주는 인민군대아저씨들을 위한 좋은 일을 많이 하여야 합니다.

동요

제4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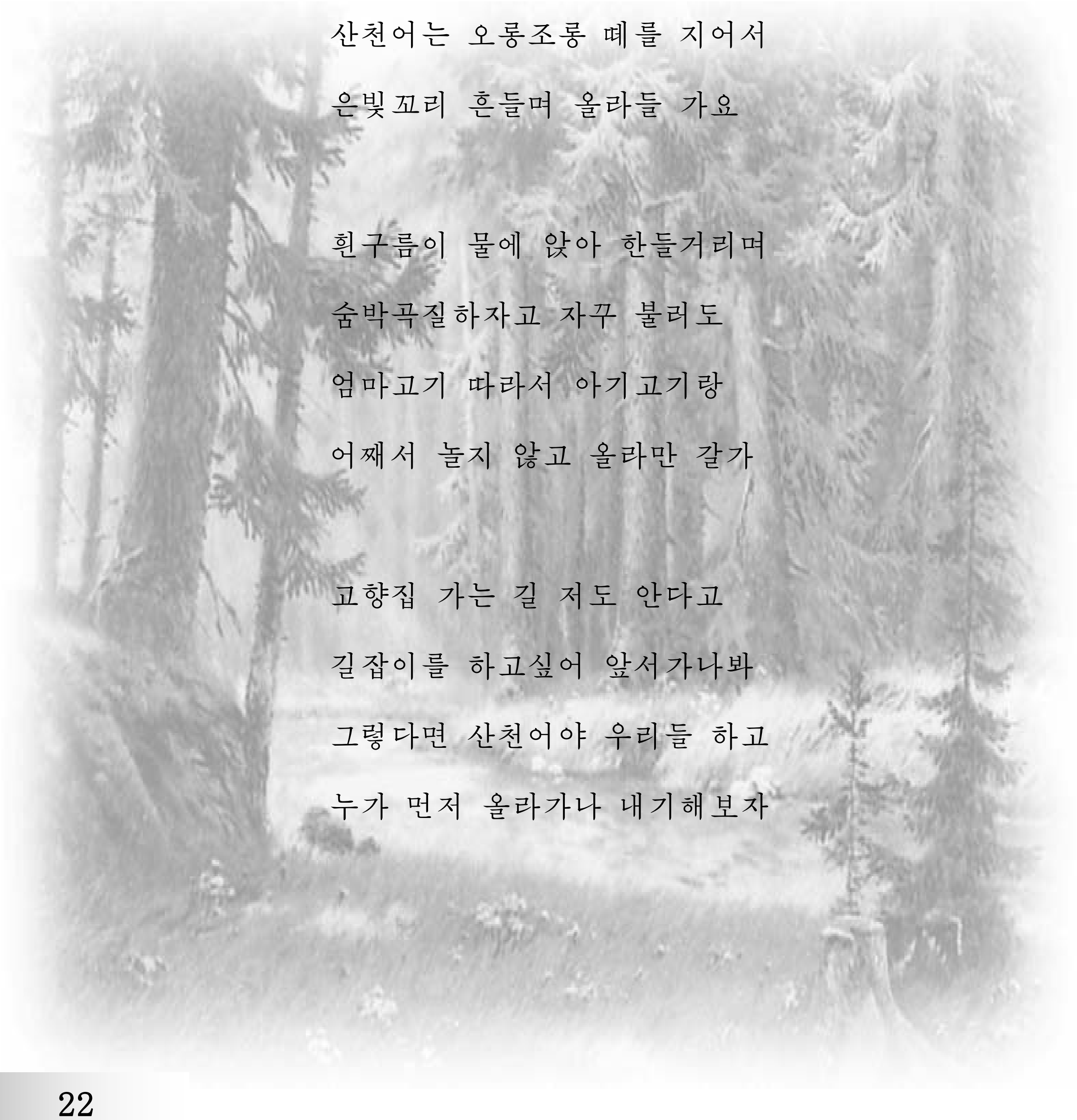
산 천 어

김 청 일

소백수 맑은 물은 돌돌거리며
산골짜기아래로 내려오는데
산천어는 오롱조롱 떼를 지어서
은빛꼬리 흔들며 올라들 가요

흰구름이 물에 앉아 한들거리며
숨박곡질하자고 자꾸 불러도
엄마고기 따라서 아기고기랑
어째서 놀지 않고 올라만 갈가

고향집 가는 길 저도 안다고
길잡이를 하고싶어 앞서가나봐
그렇다면 산천어야 우리들 하고
누가 먼저 올라가나 내기해보자



바로 읽고 바로 쓰자요

❖ 다음단어들을 바로 읽고 쓰자요.

소백수, 맑은, 오롱조롱, 앉아, 한들거리며, 어째서, 않고, 앞서

❖ 동요의 매 련에 읽기부호를 치고 읊어보세요.

어려운 말을 풀어보자요

❖ 그림을 보면서 단어의 뜻을 알아보자요.



산골짜기



오롱조롱



떼

❖ 맞는 뜻에 줄을 그어보자요.

돌돌	이쪽 또는 저쪽으로 약하게 흔들거나 흔들리는 모양
길잡이	물이 좁은 목으로 부딪치며 흘러가는 모양이나 소리
한들거리다	오고가는 길을 대주는 사람

❖ 토를 공부합시다.

토

단어에 붙어서 단어와 단어를 이어주어 문장이 되게 하는 말마디를 토라고 합니다.

례 : 나는 공부를 합니다.

이 문장에서 단어《나, 공부, 하다》는 토《는》, 《를》, 《ㅂ니다》가 붙어서 내가 공부를 한다는 하나의 내용을 가진 문장을 이루었습니다.

토가 없이는 문장이 이루어질수 없습니다.

우리 말에는《가, 는, 이, 을, 를, 에, 에서, 에게, 와, 며, 도록, 시, 겠, 습니다, ㅂ니까》등 수많은 토가 있습니다.

- 다음문장의 □안에 알맞는 토를 넣으세요.

  소백수 맑□ 물□ 산골짜기아래□ 내려□□□.

내용을 알아내자요

❖ 소백수 맑은 물은 어디로 흘러갑니까? 산천어는 어디로 어떻게 올라갑니까?

❖ 흰구름이 부르는데도 왜 산천어는 올라만 갈가요?

❖ 소백수물결을 거슬러 올라가는 산천어를 두고 무엇이라고 노래하였습니까?

❖ 《우리들》은 왜 산천어와 누가 먼저 올라가나 내기할가요?

❖ 동요의 내용을 한 문장으로 말해보자요.

재미있게, 조리있게 말해보자요

❖ 시련을 이야기문장으로 고쳐 말해보자요.(이음말 《그러나, 그런데, 그렇지만, 그리고》를 알맞게 넣으세요.)

례 : 소백수의 맑은 물은 돌돌거리며 산골짜기아래로 내려옵니다. 그렇지만 산천어는 은빛꼬리를 흔들며 오롱조롱 떼를 지어서 백두산밀영쪽으로 올라들갑니다.

- 2련과 3련을 이야기문장으로 고쳐 말해보세요.

❖ 동요에서는 산천어를 통하여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노래하였을가요?

멋진 글을 지어보자요

❖ 《백두산밀영고향집》이라는 제목으로 6문장이상의 글을 지어보자요.

- 어떤 곳인가를 써야 합니다.
- 어디에 있는가를 써야 합니다.
- 고향집주변에 무엇이 있는가를 써야 합니다.

배운것을 다져보자요

1. 동요의 매 련에 읽기부호를 치고 감정을 살려 읊어보세요.
2. 다음문장들을 받아쓰고 토밑에 줄을 그으세요.
   ㄱ) 소백수의 물은 맑습니다.
   ㄴ) 은빛꼬리가 번쩍입니다.
   ㄷ) 산천어떼가 흘러갑니다.
   ㄹ) 길잡이로 나섰습니다.
3. 《돌돌》처럼 소리를 본딴 말을 5개이상 찾아보세요.
4. 동요의 내용을 련별로 따라가면서 말해보세요.
5. 동요를 글씨규범에 맞게 곱게 써보세요.



꼭 새겨두자요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에 대한 충정의 마음을 안고 날마다 많은 사람들이 백두산밀영고향집을 찾아갑니다.

우화

제5과

멍멍이가 가꾼 화분



문 재 홍

어느 마을에 집주인의 사랑을 받는 멍멍이가 살았습니다.

집주인은 멍멍이에게 맛있는 먹이도 주고 멋진 집도 지어주었습니다. 사나운 승냥이한테 물려가지 않도록 울바자도 높이 만들어주었습니다.

집주인의 사랑을 받을수록 멍멍이는 어떻게 하면 집주인을 위해줄가 하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주인은 먼길을 떠나며 멍멍이에게 일렀습니다.

《내가 먼길을 다녀오는 동안 네가 화분을 잘 가꿔야겠다. 매일 해빛쪼이기도 하고 물도 시간맞춰 꼭꼭 주어라.》

멍멍이는 자기를 믿고 일을 맡기는것이 고마왔습니다.

멍멍이는 이번 기회에 일을 잘하여 꼭 주인을 기쁘게 해주리라 마음먹었습니다. 집주인이 먼길을 떠난 다음날부터 멍멍이는 화분을 가꿨습니다. 주인이 가르쳐준대로 해빛쪼이기도 하고 아침저녁으로 시간을 맞추어 물도 꼭꼭 주었습니다. 주인이 집을 떠난지 며칠이 지난 어느날이였습니다.

마을에서는 뜻밖에 전염병이 생겼다는 소문이 퍼졌습니다.

누구나 음식물과 물을 꼭꼭 끓여먹어야 한다는것이였습니다.

멍멍이는 꽃나무들도 물을 먹는데 전염병에 걸리면 어떡하나 하고 걱정하였습니다.

멍멍이는 생각하였습니다.

(옳지, 화분에도 물을 끓여주어야지.)

그날부터 멍멍이는 끓여서 식힌 물을 화분에다 주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입니까.

화분의 꽃나무는 점점 시들어갔습니다.

멍멍이는 물이 모자라는것으로 생각하고 끓여서 식힌 물을 더 자주 주었습니다. 그러나 화분의 꽃나무는 점점 더 시들어갔습니다. 줄기는 가늘어지고 잎은 시누렇게 되여갔습니다.

집주인이 돌아올 날은 거의거의 다가왔습니다.

(혹시 꽃나무가 전염병에 걸린게 아니야?)

멍멍이는 너무도 안타까와 화분을 그러안고 눈물을 뚝뚝 흘리였습니다.



먼길을 떠났던 집주인이 돌아왔습니다.

《멍멍아, 너 왜 그러고 있니?》

주인이 재촉해서야 멍멍이는 사실대로 말하였습니다.

《허허, 네가 잘못 생각했구나. 물을 끓이면 물속에 들어있던 산소들이 공중에 날아가버린단다. 때문에 끓인 물을 식혀서 그대로 주면 화분에 심은 꽃이 산소가 부족하여 제대로 자라지 못한단다.》

집주인의 이야기를 듣고서야 멍멍이는 좋은 일도 알지 못하면 할수 없다는것을 똑똑히 깨달았습니다.

바로 읽고 바로 쓰자요

❖ 다음단어들을 바로 읽고 쓰자요.

맛있는, 받을수록, 말기는, 며칠이, 뜻밖에, 끓여먹어야, 시들어

❖ 본문을 속으로 읽어봅시다.

속 읽 기

속읽기란 소리를 내지 않고 속으로 읽는 읽기입니다.

속으로 글을 읽으면 빨리 읽을수 있고 또 글의 내용을 잘 알수 있습니다. 속으로 읽는데서 기본은 글의 내용에 온 정신을 집중하는것입니다.

속읽기능력은 단번에 키워질수 없습니다. 처음에는 소리를 내지 않고 입술만 움직이면서 읽고 다음에는 입술은 움직이지 않고 속으로 매 글자들을 발음하면서 읽습니다. 그다음에는 눈으로만 글줄을 따라보면서 머리속에 내용을 익혀야 합니다.

어려운 말을 풀어보자요

❖ 어울리는 말을 보면서 단어의 뜻을 알아보자요.

성미가 / 파도가 — **사납다**

기회 — 가 좋다 / 를 놓치다

재촉 — 을 받다 / 이 불같다

❖ 맞는 뜻에 줄을 그어보자요.

전염병	공기속에 들어있으면서 사람이 숨쉬는데 필요한 물질
산소	사람이나 짐승에게 옮겨지며 계속 퍼지는 병

내용을 알아내자요

❖ 멍멍이가 한 일을 알아보자요.

- 집주인은 먼길을 떠나면서 멍멍이에게 어떤 일을 맡겼습니까?
- 주인이 떠난 다음날부터 멍멍이는 어떻게 하였습니까?
- 멍멍이는 마을에 전염병이 생겼다는 소문을 듣고 어떻게 하였습니까?
- 끓여서 식힌 물을 부지런히 주었지만 화분의 꽃나무는 어떻게 되였습니까?
- 멍멍이는 무엇을 알지 못했습니까?

❖ 우화의 내용을 글차례별로 묶어봅시다.

❖ 우화를 배우면서 무엇을 알게 되였습니까? 두가지로 말해보세요.

재미있게, 조리있게 말해보자요

❖ 그림을 보고 멍멍이와 야웅이가 어떤 말을 주고받는지 생각해봅시다.



- 멍멍이는 시들어가는 화분을 그러안고 야웅이에게 안타까운 심정을 어떻게 말했을가요?
- 야웅이는 멍멍이를 어떤 말로 위로해주었을가요?

❖ 야웅이와 멍멍이가 되여 이야기를 주고받아보세요. (각각 5문장이상)

멋진 글을 지어보자요

❖ 자연상식을 소개하는 글을 지어봅시다.

- 제목—《꽃나무에 끓여서 식힌 물을 주면 왜 안될가요?》
- 담을 내용
  - ▶ 꽃나무는 물을 주어야 자란다.
  - ▶ 꽃나무에는 반드시 끓이지 않은 물을 주어야 한다.
  - ▶ 꽃나무에는 언제 어떻게 물을 주어야 하는가.

배운것을 다져보자요

1. 본문을 속으로 읽고 시간을 재여보세요.
2. 옳게 쓴 단어에 《○》를 치고 읽으면서 곱게 써보세요.

   〈 그러안고 / 구러안고 　〈 기회에 / 기해에 　〈 맞처 / 맞춰 　〈 어떡카나 / 어떡하나 　〈 시누렇게 / 신누렇게

3. 《사납다》의 뜻같은말과 뜻반대말을 한문장에 넣어 짧은글을 지어보세요.
4. 다음단어들을 넣어 짧은글을 지어보세요.

   ㄱ) 화분, 가꾸다

   ㄴ) 며칠, 뜻밖에, 생기다
5. 꽃나무를 가꾸는데서 반드시 지켜야 할 점을 말해보세요.



꼭 새겨두자요

모르면 좋은 일을 하고싶어도 잘할수 없습니다.

이야기

제6과

지리학자 김정호

우리 나라의 지리학자이며 애국자인 김정호는 지금으로부터 200여년 전에 태여난 사람입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남다른 포부와 꿈을 간직하고있었습니다.

그가 10살 나던 해 어느날이였습니다.

아침에 어디론가 나갔던 그는 저녁늦게야 집으로 돌아왔는데 어디에 무얼 하러 갔댔는가고 묻는 어머니의 말에 이렇게 대답하였습니다.

《저 길을 따라 그냥 가다가 해가 져서 되돌아오는 길이예요.

조금만 더 걸으면 그 길이 끝날것 같아서 자꾸만 걸었는데 해가 져서 아버지, 어머니가 걱정할가봐 돌아섰어요. 저 길을 따라서 끝까지 가보고싶어요.》

이때 아버지가 옆에서 듣다가 말하였습니다.

《길이란 중간에서 여기저기로 갈라질수 있단다.》

《북쪽으로 가면 압록강까지도 갈수 있나요?》

《그럼, 그러나 여기서 압록강까지 가려면 열흘이상이나 걸린단다.》

《야! 우리 나라 땅이 그렇게 넓은가요? 아버지, 난 큰 다음에 우리 나라 방방곡곡을 돌아다녀볼테야요.》

그날 밤 김정호는 좀처럼 잠들수 없었습니다.

《우리 나라 땅은 어떻게 생겼을가? 우리 나라 땅모양을 그려놓은 그림이 있으면 가만히 앉아서도 어디가 어딘지를 당장 알수 있을텐데… 그런 그림이 없을가?》

이렇게 생각한 김정호는 다음날 서당에 다니는 동무들과 함께 서당에 찾아가서 우리 나라 지도가 없는가를 알아보았습니다.

서당선생도 우리 나라 지도를 보지 못했다고 하면서 자기 마을을 그린 지도를 보여주었습니다.

김정호는 그 지도를 가지고 마을을 쭉 돌아다니며 비교해보고나서 서당선생에게 말했습니다.

《이 지도는 엉터리예요. 여기저기에 잘못된 점이 많아요.》

《？！》

《선생님, 제가 크면 훌륭한 지도를 만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우리 나라 방방곡곡을 돌아다니는것이 꿈이예요. 그렇게 해서 꼭 우리 나라 지도를 만들겠습니다.》

그의 꿈은 참으로 놀랍고도 기특한것이였습니다.

후에 그는 27년간이란 긴 세월 조국의 방방곡곡을 답사하면서 1861년에 마침내 우리 나라의 지도인《대동여지도》를 만들어냈습니다.



바로 읽고 바로 쓰자요

❖ 다음단어들을 바로 읽고 쓰자요.

애국자, 되돌아, 자꾸만, 듣다가, 열흘, 넓은가요, 가만히, 비교해, 엉터리예요, 놀랍고도, 기특한, 답사, 대동여지도

❖ 본문에 나오는 대화들을 잘 살려읽어보자요.

어려운 말을 풀어보자요

❖ 우리 말에는 한개의 뜻을 가진 단어도 있지만 여러가지 뜻을 가진 단어도 있습니다. 본문에서 《꿈》은 어떤 뜻으로 쓰이였을가요?

① 잠을 자면서 깨여나있을 때처럼 여러가지 현상을 느끼는것.

례 : 《꿈은 졸다가도 꾼다.》

② 아직 실현되지 않은 그 무엇을 바라면서 머리속에 그려보는것.

례 : 《박사가 될 꿈을 안고있어.》

③ 전혀 실현될수 없는 헛된 생각.

례 : 《꿈같은 소리를 하누나.》, 《헛된 꿈을 버려라.》

❖ 어울리는 말을 보면서 단어의 뜻을 알아보자요.

포부 – 를 품다 / 를 안다 / 를 실현하다

세월 – 을 보내다 / 을 앞당기다 / 이 없다

❖ 뜻같은말에 줄을 긋고 단어의 뜻을 알아보자요.

서당	견학
답사	글방

내용을 알아내자요

❖ 김정호가 어떻게 되여 우리 나라 지도를 만들게 되였는가를 알아보자요.

- 김정호는 왜 저녁늦게 집으로 돌아왔습니까?
- 그날 밤 김정호는 왜 잠들지 못했습니까?
- 김정호는 왜 서당에 찾아갔습니까?
- 김정호는 마을을 그린 지도가 엉터리라는것을 어떻게 알아냈습니까?
- 김정호는 서당선생에게 자기의 꿈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 김정호는 어떻게 우리 나라 지도를 만들어냈습니까?

❖ 우의 내용을 하나로 묶어 본문의 내용을 말해보세요.

재미있게, 조리있게 말해보자요

❖ 지도는 무엇을 그린것입니까? 지도와 그림은 무엇이 다릅니까?

❖ 만약 우리 생활에 지도가 없다면 어떻게 될가요?

❖ 우리 나라 지도를 보며 말해보세요.

- 평양은 어떤 곳입니까?
- 학생이 살고있는 곳에 대하여 말해보세요.

❖ 세계지도를 보세요. 우리 나라는 지구의 어느쪽에 있습니까?

멋진 글을 지어보자요

❖《미래의 ××학자 ○○○》라는 제목을 달고 글을 지어보세요.

- 무슨 학자가 되고싶은가?
- 왜 되려고 하는가?
- ××학자가 되기 위하여 어떻게 하겠는가?

배운것을 다져보자요

1. 본문을 살려읽어보세요.
2. 본문에서 쓴 글자와 다르게 읽는 단어들을 찾아쓰고 발음법에 맞게 읽어보세요.
3. 다음단어들의 뜻을 말하고 두 단어를 한 문장안에 넣어 짧은글을 지어보세요.

   포부, 방방곡곡

4. 본문의 내용을 3~4개 문장으로 말해보세요.
5. 우리 나라 력사에 남는 명인들을 5명 꼽아보세요.



꼭 새겨두자요

어릴 때부터 남다른 꿈을 간직하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할 때라야 성공할수 있습니다.

다시한번 익혀보자요

(1과 — 6과)

1. 선생님이 부르는 단어들을 기억하세요.(기억할 단어 15개)

2. 다음단어들을 받아쓰세요.

백두산, 삼천리, 환호성, 가꾸다, 수호자, 꿀꿀이, 초가집, 잔치, 말아저씨, 망측하다, 아동단유희대, 희천발전소, 소백수, 산천어, 오롱조롱, 길잡이, 꽃화분, 승냥이, 해빛, 전염병, 끓인물, 깨닫다, 애국자, 압록강, 방방곡곡, 답사하다

3. 같은 단어도 뒤에 어떤 토가 오는가에 따라 다르게 씁니다. □안에 알맞는 글자를 써넣으세요.

❖ 곡식단을 싣다.

- 곡식단을 □습니다.
- 곡식단을 □겠습니다.
- 곡식단을 □으려고 합니다.
- 곡식단을 □었다고 합니다.
- 곡식단을 □을것입니다.
- 곡식단을 □는다고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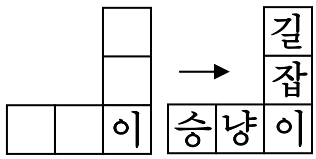
❖ 끈을 잇다.

- 끈을 □습니다.
- 끈을 □겠습니다.
- 끈을 □으려고 합니다.
- 끈을 □었다고 합니다.
- 끈을 □을것입니다.
- 끈을 □는다고 합니다.

4. □안에 알맞는 단어를 써넣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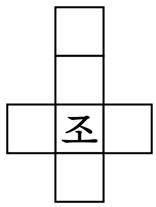
례 : ① 교활하고 포악한 짐승(가로)

② 오고가는 길을 대주는 사람(세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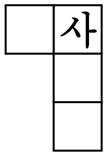


ㄱ) ① 그전에 없던것을 새로 만들어내는 사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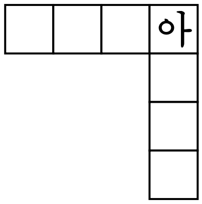
② 서로 비슷하면서도 크기와 모양이 조금씩 다른것들이 많이 달려있는 모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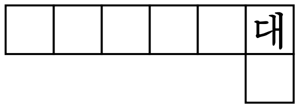
ㄴ) ① 무엇을 알아내기 위하여 가서 돌아보는것
② 성질이나 행동이 매우 세차고 모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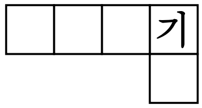
ㄷ) ① 망을 돌려서 곡식을 찧는 기구
② 보기 좋고 맵시있고 산뜻하다



ㄹ) ① 노래, 춤 등 공연을 위하여 무어진 아동단원들의 대오
② 넓은 땅



ㅁ) ① 산마루와 산마루사이의 좁고 홈진 땅
② 어떤 일이 이루어지는데 알맞춤한 때



5. 《말하다》의 뜻을 가진 단어를 5개이상 찾으세요.
례 : 종알거리다

6. 다음단어들의 뜻을 말하고 두 단어를 한 문장안에 넣어 짧은글을 지으세요.

거름 / 걸음	마치다 / 맞히다	가르치다 / 가리키다

7. 다음의 표현들은 어떤 때 씁니까?
ㄱ) 눈앞이 캄캄하다.
ㄴ) 가슴이 울렁거리다.

8. 다음의 단어들에 문장을 이루는데 필요없는 말이 하나씩 들어있습니다. 문장을 만들면서 찾아내세요.
ㄱ) 배우다, 나, 부지런히, 일하다, 사람, 싫어하다, 느꼈다, 꿀꿀이처럼, 아무, 쓸모도, 없다
ㄴ) 보여주다, 모르다, 망친다, 잘하고싶다, 일, 아무리

9. 다음물음에 대답하세요.

ㄱ)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은 어떤분이십니까?

ㄴ) 동요 《산천어》는 백두산밀영고향집으로 빨리 가고싶어하는 우리들의 마음을 어떻게 노래하였습니까?

ㄷ) 김정호는 어떤 사람입니까?

ㄹ) 인민군대아저씨들을 위하여 어떤 좋은 일을 하여야 합니까?

10. 속담, 수수께끼

❖ 속담의 뜻을 익히고 이 속담을 넣어 짧은글을 지으세요.

- 소잃고 외양간 고치기— 일이 잘못된 다음에야 때늦게 뉘우치고 행동한다는 말.
- 무쇠공이도 삼년 갈면 바늘이 된다— 이악하게 달라붙어 꾸준히 노력하면 아무리 어렵고 힘들게 여겨지던 일도 능히 해낼 수 있다는 말.
- 얼굴이 고운것이 아니라 일이 곱다— 사람은 일을 잘해야 곱다는 말을 듣는다는 뜻.
- 서울 갈 하늘소 발통부터 다르다— 큰일을 할수 있는 사람은 생각을 처음 시작부터 착실히 크게 한다는 뜻.

❖ 수수께끼

- 머리가 있어도 쓸줄 모르고 팔이 있어도 움직일줄 모르는것이 무엇일가요?
- 땅에서 태여나 하늘로 올라가 노래를 부르며 돌아다니는 별이 무엇일가요?
- 일할 때는 모자를 벗고 일 안할 때는 모자를 쓰는것이 무엇일가요?

이야기

제7과
《사슴》이 노루로

어느해 여름이였습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 타신 렬차가 어느 한 산간역에 잠시 머물렀을 때였습니다.

역장은 위대한 장군님께 정중히 인사를 올리고 옆에 있는 상자를 가리키며 이렇게 말씀드리였습니다.

《장군님, 저희들이 잡은 새끼사슴입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재롱스러운 새끼사슴을 보시면서 잠시라도 피로를 푸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역장의 말을 들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몸소 허리를 굽히시고 흰 반점들이 드문드문 나있는 새끼《사슴》의 등을 쓰다듬어주시며 유심히 살펴보시였습니다.

이윽하여 허리를 펴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역장과 일군들을 둘러보시며 말씀하시였습니다.

사슴이 아닙니다.

이것은 사슴이 아니라 새끼노루입니다.

등에 흰점들이 있는것을 보고 사슴이라고 하는것 같은데 노루도 새끼때에는 사슴처럼 흰점들이 있지만 몇달 지나면 저절로 없어지고맙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새끼《사슴》의 잔등을 가리키시며 말씀을 계속하시였습니다.

새끼노루는 흰점들이 등에만 몇줄 있지만 사슴은 등과 아래배, 다리웃부분까지 있고 노루에 비해 훨씬 큽니다.

위대한 장군님의 말씀에 역장과 일군들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였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어쩌면 산짐승들에 대하여 그처럼 환히 꿰들고 계실가.

산골에 살고있으면서도 사슴과 노루도 가려보지 못한 부끄러움보다도 위대한 장군님으로부터 사슴과 노루에 대한 가르치심을 받게 된 역장의 감동은 참으로 컸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송구스러워하는 역장에게 우리가 새끼노루를 가지고 가서 어린 학생들에게 주어 기르게 하겠다고, 그렇게 해서 그들이 사슴과 노루의 특징을 잘 알게 하자고 뜨겁게 말씀하시였습니다.

하여 새끼《사슴》이 새끼노루가 되여 위대한 장군님의 렬차에 오르게 되였습니다.





바로 읽고 바로 쓰자요

❖ 본문을 새겨읽어봅시다.

새 겨 읽 기

글의 내용을 깊이 알기 위하여 단어와 문장을 하나하나 따져가면서 읽는것을 새겨읽기라고 합니다.

▶ 새겨읽을 때에는 우선 매 단어들의 뜻을 생각하면서 읽어야 합니다.

▶ 다음으로 무엇에 대해서 쓴 글인가를 생각하면서 읽어야 합니다. 누가 나오며 언제, 어디서, 어떤 일이 왜 벌어지게 되였으며 결과는 어떻게 되였는가 하는 6가지 물음에 대답할수 있게 읽어야 합니다.

▶ 다음으로 그 글이 몇가지 차례로 되였는가를 찾아보면서 글의 내용을 한문장으로 묶을수 있게 읽어야 합니다.

글을 새겨읽으려면 정신을 집중하여야지 딴 생각을 하면서 흘려읽어서는 안됩니다.

• 본문을 새겨읽고 6가지 물음에 대답해보세요.

❖ 다음단어들을 바로 읽고 쓰자요.

머물렀을, 굽히시고, 이슥하여, 흰점, 특징

어려운 말을 풀어보자요

❖ 맞는 뜻에 줄을 그어보자요.

머무르다	환하게 잘 알다
꿰들다	가거나 오는 도중에 멎어서 묵다
특징	깊이 느껴 마음이 움직이는것
감동	다른것과 특별하게 다른것

❖ 뜻같은말에 줄을 긋고 단어의 뜻을 알아보자요.

재롱스럽다	죄송스럽다
피로	자세히
간절하다	귀엽다
유심히	피곤
송구스럽다	절절하다

내용을 알아내자요

❖ 《사슴》이 어떻게 노루로 되였을가요?

- 이 이야기는 어디에서 있은 일입니까?
- 역장은 위대한 장군님께 어떤 마음을 담아 무엇을 올렸습니까?
-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새끼《사슴》을 살펴보시고 어떻게 말씀하시였습니까?
-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왜 새끼노루를 가지고 가시겠다고 하시였습니까?

❖ 위대한 장군님은 어떤분이십니까?

재미있게, 조리있게 말해보자요

❖ 위대한 장군님께서 새끼노루를 가지고 가시겠다고 하는 대목에서 학생은 무엇을 느끼였습니까? 느낀 감동을 그대로 말해보세요.

❖ 사슴과 노루의 특징을 말해보자요.

- 새끼때 모습을 말해보세요.
- 사는 곳과 계절에 따르는 털색갈에 대해 말해보세요.
- 수컷과 암컷이 어떻게 다른가를 말해보세요.
- 먹이와 성질, 약재로 쓰이는데 대해 말해보세요.

곱게 쓰자요

❖ 단어들을 곱게 써보자요.

- 본보기글을 세번 써보세요.

새끼사슴 산짐승

- 다음단어를 곱게 세번씩 써보세요.

산간역, 역장, 흰점

❖ 문장을 곱게 써보자요.

• 본보기글을 세번 써보세요.

위대한 장군님께서 어쩌면 산짐승들에 대하여 그처럼 환히 꿰들고계실가.

• 위대한 장군님께서 노루와 사슴에 대하여 알기 쉽게 가르쳐주신 말씀을 찾아 곱게 써보세요.

배운것을 다져보자요

1. 본문에 나오는 단어들의 뜻을 똑똑히 익히면서 새겨읽으세요.
2. 옳게 쓴 단어에 《○》를 치고 읽으면서 곱게 써보세요.

이욱하여	간절히	훨씬	꿰들고
이윽하여	간절이	헐씬	꿰둘고

3. 다음단어들의 뜻을 말하고 두 단어를 한 문장안에 넣어 짧은글을 지으세요.

   머무르다—송구스럽다, 간절하다—피로

4. 본문의 내용을 말해보세요.
5. 학생의 학교에는 어떤 동물박제품들이 있습니까? 박제품이란 무엇인가를 동물박제품을 보고 말해보세요.



꼭 새겨두자요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은 뛰여난 예지를 지니신 위대한 령도자이십니다.

동시

제8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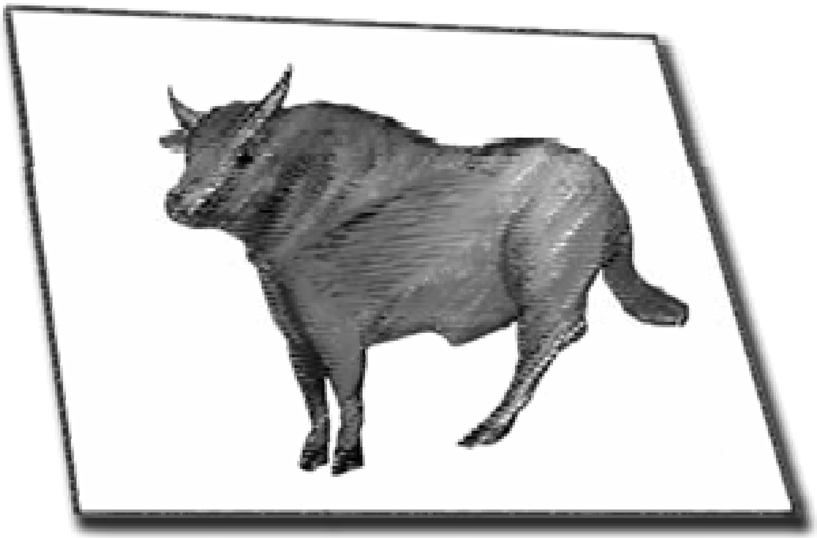
세발달린 황소

리 원 우

다섯번째 도화시간
내가 그린 누렁황소
애들이 지금 놀려댑니다
눈알은 왕눈
두뿔도 큰데
무슨 소가
세발밖에 없단 말인고
이런 소는
난생 처음 보겠네

내가 그린 황소가
말할줄만 알아봐
이 애들아 너무너무 까불지 말아
크레용 살 돈 없는 가난한 집 칠성인
할수없이 있는 애것을 빌려쓰다가
발 하나만 더 그리면
아주 잘될 내 모양이
내 크레용 달라고 빼앗는 바람에
되고싶지 않은걸
세발소가 된거라우

이렇게 말해도
너희들이 놀린다면
내가 그린 병신황소
성이 잔뜩 나서
왕눈두알 부릅뜨고
커—다란 그 두뿔로
에—힝 받구말걸요



바로 읽고 바로 쓰자요

❖ 밑줄그은 글자에 주의를 돌리면서 다음단어들을 바로 읽고 쓰자요.

놀려댑니다, 세발밖에, 말할줄만, 알아봐, 가난한,
빼앗는, 되고싶지, 않은걸, 받구말걸요

어려운 말을 풀어보자요

왕눈— 몹시 큰 눈.

난생— 세상에 태여나서.

병신— 몸의 한부분이 온전하지 못한 사람.

잔뜩— 대단히 많이, 몹시 심하게.

부릅뜨다— 눈을 크게 뜨다.

❖ 맺음토를 공부합시다.

맺 음 토

문장의 끝을 맺어주는 토를 맺음토라고 합니다.

례 : 《읽습니다》— 《습니다》
《읽느냐》— 《느냐》
《읽어보세요》— 《세요》
《읽읍시다》— 《읍시다》
《읽어라》— 《어라》

- 본문에서 맺음토들을 찾아보세요.

내용을 알아내자요

❖ 아이들은 칠성이를 어떻게 놀려댑니까?

❖ 칠성이는 왜 황소를 그리면서 발 하나를 그리지 못했습니까?

❖ 칠성이는 아이들이 계속 놀려댄다면 황소가 어떻게 할것이라고 하였습니까?

❖ 이 동시의 내용을 말해보세요.

❖ 이 동시를 배우고 느낀 점을 말해보세요.

똑똑히 듣자요

❖ 신사임당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다음물음에 대답해보세요.

- 그는 어떤 사람입니까?
- 제일 인상깊은 대목은 어느것입니까?

❖ 다시 한번 더 듣고 제일 인상깊은 대목을 구체적으로 말해보세요.

❖ 이야기를 동무들에게 재미나게 들려주세요.

❖ 그에게서 따라배울 점은 무엇인지 말해보세요.

멋진 글을 지어보자요



❖ 그림을 자세히 살펴봅시다.

- 그림이 어느때를 보여주고있는가 살펴보세요.
- 그림에 그려진 인물과 물건들을 살펴보세요.
- 이 그림은 무엇을 보여주고있습니까?

❖ 그림을 관찰한 다음 글차례를 세워보세요.

❖ 제목을 달고 글을 지어보세요.

배운것을 다져보자요

1. 동시의 매 련에 읽기부호를 치고 동시를 살려읊으세요.
2. 단어 《받다》가 서로 다른 뜻으로 쓰이는 경우를 5개이상 찾아보세요.
3. 맺음토 《습니다》, 《다》, 《니》, 《세요》, 《자》, 《소》가 들어간 문장을 각각 만들어보세요.(2개 단어로 이루어진 문장이 되게)
4. 동시의 내용을 련별로 이야기문장으로 고쳐서 말해보세요.
5. 동시를 글씨규범에 맞게 곱게 쓰세요.



꼭 새겨두자요

가난하여 크레용도 사지 못해 세발달린 황소밖에 그리지 못하였던 우리 인민들의 눈물겨운 지난날을 잊지 맙시다.

감상문

제9과

김광철영웅형님처럼

나는 지금 한장의 그림을 보고있습니다. 김광철영웅이 자기 몸으로 수류탄을 덮는 그림입니다.

김광철형님은 터지는 수류탄을 몸으로 막아 대원들을 구원한 영웅입니다.

어느날 김광철형님네 소대가 훈련을 하고있을 때였습니다.

한 대원이 던진 수류탄이 그만 동무들가까이로 굴러내렸습니다. 몇초만 지나면 수류탄은 터집니다. 그러면 대원들의 생명이 위험합니다. 정말 위급한 순간이였습니다.

이때 김광철형님이 《엎드렷!》 하고 소리치며 번개같이 몸을 날려 수류탄을 덮었습니다.

그 순간 《꽝!》 하고 수류탄이 터졌습니다. 대원들은 구원되였으나 형님은 다시 일어나지 못하였습니다.

형님은 대원들을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서슴없이 바쳤습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는 김광철형님에게 영웅의 금별메달을 안겨주시였습니다.



김광철형님은 위대한 장군님의 크나큰 은정속에 영웅의 이름으로 빛나고있습니다.

나도 김광철영웅형님처럼 빛나게 살겠습니다.

바로 읽고 바로 쓰자요

❖ 본문을 감상문의 특성을 살려 읽어보자요.

감상문이란

감상문이란 그림이나 책, 노래 등을 보거나 듣고 그에 대한 느낌이나 생각을 쓴 글을 말합니다.

본문은 그림을 본 느낌을 쓴 글입니다.

❖ 다음단어들을 바로 읽고 쓰자요.

덮는, 굴러내렸습니다, 훈련, 엎드렷, 번개같이, 서슴없이, 빛나게

어려운 말을 풀어보자요

❖ 그림을 보면서 단어의 뜻을 알아보자요.



금별메달



수류탄

❖ 맞는 뜻에 줄을 그어보자요.

구원하다	나쁜 결과로 될것 같아 마음을 놓을수 없다
위험하다	마음을 놓을수 없게 위태롭고 급하다
위급하다	어려운 처지에서 건져내거나 도와주다

❖ 뜻같은말에 줄을 긋고 단어의 뜻을 알아보자요.

훈련	목숨
생명	주저없이
서슴없이	련습

❖ 어떤 뜻으로 쓰이였을가요?

번개같이— ① 아주 빠르고 날래게.

② 피뜩 나타나거나 사라지다.

내용을 알아내자요

❖ 본문의 글차례를 알아봅시다.

감상문의 글차례

감상문은 머리글, 기본내용, 맺는글의 차례로 씁니다.

▶ 머리글에서는 무슨 그림인가, 또 무슨 책을 읽었는가를 씁니다.

▶ 기본내용에서는 보고들은것을 글차례에 따라 구체적으로 씁니다.

▶ 맺는글에서는 보고들은것에 대한 느낌과 결의를 씁니다.

- 본문의 머리글을 말해보세요.
- 본문의 기본내용을 알아보자요.
  - ▶ 김광철형님네 소대원들은 무엇을 하고있었습니까?
  - ▶ 이때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 ▶ 수류탄이 터지면 어떻게 됩니까?
  - ▶ 김광철형님은 수류탄이 터지려는 순간 무엇을 생각하고 어떻게 행동하였습니까?
- 본문의 맺는글을 말해보세요.

❖ 알맞는 말, 생동한 표현을 찾아보자요.

재미있게, 조리있게 말해보자요

❖ 김광철형님은 왜 동지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서슴없이 바쳤습니까?

❖ 김광철영웅형님처럼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 학생은 공화국영웅들에 대한 어떤 이야기를 알고있습니까? 영웅

의 이름과 영웅이 세운 위훈을 말해보세요.

❖ 학생의 학교에서는 어떤 영웅들이 나왔습니까? 자기 학교의 영웅들에 대한 자랑을 말해보세요.

❖ 영웅의 이름을 단 학교이름을 꼽아보세요.



멋진 글을 지어보자요

❖ 그림감상글을 지어보자요.

- 글감을 생각해보세요.
- 글차례를 세워보세요.
- 알맞는 말, 생동한 표현을 생각해보세요.
- 제목을 달고 10문장이상의 글을 지어보세요.

배운것을 다져보자요

1. 그림감상문의 특성을 살려 읽어보세요.
2. 다음단어들에 두개 단어를 더 넣어 문장을 만들어보세요.

   김광철영웅형님, 순간, 몸, 대원들, 덮다, 수류탄, 날리다, 번개같다
3. 다음단어들의 뜻을 말하고 두 단어를 한 문장안에 넣어 짧은글을 지어보세요.

   구원하다, 생명
4. 감상문의 글차례를 말해보세요.
5. 본문에서 김광철형님의 영웅적행동을 보여주는 장면을 찾아 곱게 쓰세요.



꼭 새겨두자요

김광철영웅처럼 동지들을 위하여 바친 삶은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과 **김정일**대원수님, 경애하는 **김정은**선생님의 사랑속에 영생합니다.

이야기

제10과

콩 한 말

우리 나라가 해방되기 전이였습니다.

햇곡식도 아직 나지 않았는데 달레네는 먹을 쌀이 다 떨어졌습니다.

달레 아버지는 생각다못해 지주놈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아버지는 콩깍지가 절반도 더 섞인 콩 한말을 겨우 꾸어왔습니다.

달레네는 그 콩으로 죽을 쑤어 먹으며 봄부터 내내 밭에 나가 살았습니다.

애쓴 보람이 있어 가을이 되자 낟알이 잘 여물었습니다.

《죽이라도 굶지 않고 먹게 되였구나.》

아버지는 털어낸 낟알을 보며 기뻐서 말하였습니다.

그런데 지주놈이 나타나 거두어들인 낟알을 모조리 빼앗아갔습니다.

그리고도 빚진 콩 한말을 두말로 물어내라고 을러댔습니다. 달레네는 물어줄 콩도 쌀도 없었습니다.

여우같은 지주놈은 《그러면 콩 두말을 다음해엔 너말로 갚게.》 하고 도리여 큰소리를 쳤습니다.

달레네는 먹지도 않은 콩 너말을 빚으로 졌습니다. 다음해에는 그 너말이 여덟말로 불어났습니다.

세해째 되는 어느날 지주놈이 달레네 집에 찾아왔습니다.

《아무래도 콩 여덟말을 갚을것 같지 못하니 그 대신 달레를 우리 집에 보내는게 어때.》

지주놈은 안경너머로 달레를 슬쩍 넘겨다보며 아버지에게 지껄이였습니다.

《예?! 달레를 보내다니요…》

《다 임자를 생각해서 하는 말이야. 우리 집에 보내면 달레도 배는 곯지 않을게구 임자네도 입을 하나 덜게 아닌가?》

《난 그렇게는 못하겠소.》

《무엇이 어째? 못 보내겠다구? 그럼 내 손으로 끌어가겠다.》



지주놈은 방안으로 뛰여들어 달레를 마당으로 끌고나갔습니다.

《어머니!》달레는 끌려가지 않으려고 발을 동동 굴렀습니다.

《달레야!》어머니도 소리치며 달려나갔습니다. 그러나 어머니는 지주놈의 발길에 채워 쓰러지고말았습니다.

아버지의 눈에서는 불이 펄펄 일었습니다.

《이 짐승같은 놈, 썩은 콩 한말을 주고 사람을 빼앗아가?》



아버지는 큰 주먹으로 지주놈을 후려쳐 그 자리에 꺼꾸러뜨렸습니다.

그날 밤 달레네 집에 일제순사놈들이 달려들어 아버지를 꽁꽁 묶어서 끌어갔습니다.

어린 달레도 지주집에 끌려가지 않으면 안되였습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 나라를 찾아주시고 땅을 주신 다음에야 달레네도 잘살게 되였습니다.

바로 읽고 바로 쓰자요

❖ 밑줄그은 글자에 주의를 돌리면서 다음단어들을 바로 읽고 쓰자요.

햇곡식도, 콩깍지, 섞인, 곬지, 빼앗아, 물어줄, 갚게, 같지, 지껄이였습니다, 일었습니다, 썩은, 묶어서, 쫓겨난, 잘살게

❖ 소리같은말을 적어봅시다.

소리같은말 적기

우리 말에는 소리는 같거나 비슷하지만 뜻과 쓰기가 다른 말들이 있습니다.

례 :

- 반드시 / 반듯이
- 거름 / 걸음
- 낮다 / 낫다

이런 말들은 소리는 같거나 비슷해도 뜻과 맞춤법이 다르므로 서로 다르게 적어야 합니다.

- 다음단어와 소리는 같으나 뜻과 맞춤법이 다른 말을 찾아 써보세요.

  너머, 묶다, 들이다

어려운 말을 풀어보자요

❖ 합친말을 이루는 단어들을 통하여 그 뜻을 알아보자요.

햇곡식 — 햇 / 곡식

콩깍지 — 콩 / 깍지

❖ 어울리는 말을 보면서 단어의 뜻을 알아보자요.

보람 — 이 있다 / 을 느끼다 / 을 찾다

씨가 / 알이 / 강냉이가 — **여물다**

빚 — 을 내다 / 을 갚다 / 을 지다

❖ 맞는 뜻에 줄을 그어보자요.

을러대다	《말하다》의 뜻으로 낮잡거나 욕으로 이르는 말
지껄이다	상대가 두려워하거나 기를 못 쓰게 무섭게 말하다

❖ 단어 《**너머**》와 《넘어》를 [ ]안에 알맞게 넣고 그 뜻을 알아보자요.

- 저 산[ ]에 외할머니네 집이 있다.
- 지붕[ ]로 달이 보인다.
- 고개를 [ ] 학교로 갔다.
- 험한 산을 [ ] 갔다.

내용을 알아내자요

❖ 지주놈은 어떤 놈인가를 알아봅시다.

- 지주놈은 쌀을 꾸러 간 달레 아버지에게 어떤 콩을 주었습니까?
- 가을이 되자 지주놈은 거두어들인 낟알을 몽땅 빼앗고도 또 어떻게 을러댔습니까?
- 지주놈은 다음해엔 몇말로 갚으라고 큰소리를 쳤습니까?
- 그 다음해에는 몇말로 불구었습니까?
- 세해째 되는 날 지주놈은 왜 달레네 집에 찾아왔습니까?
- 달레를 보내지 않겠다고 하자 지주놈은 어떻게 하였습니까?
- 그날 밤 달레네는 어떻게 되였습니까?

❖ 지주놈의 행동에서 아래표에 알맞는 내용을 찾아 써보세요.

어떤 놈	내 용
심보가 고약한 놈	
욕심많은 놈	
교활한 놈	
악독한 놈	

❖ 우의 내용을 묶어 지주놈은 어떤 놈인가를 말해보세요.

재미있게, 조리있게 말해보자요

❖ 지주놈은 달레 아버지에게 썩은 콩 한말을 꾸어주면서 어떤 생각을 하였을가요?

❖ 콩 한말이 어떻게 여덟말로 되였는가 말해보세요.

❖ 달레네는 왜 지주놈의 천대를 받으며 살아야 했습니까?

❖ 나라가 해방되기 전 우리 인민들은 일제놈들과 지주, 자본가놈들의 착취와 압박을 받으며 몹시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그러한 이야기를 어느 영화, 어느 책에서 보았습니까? 알고있는 이야기를 말해보세요.

멋진 글을 지어보자요

❖ 본문을 읽고 감상문을 써보세요.

- 제목은 본문의 제목을 그대로 달아도 좋고 다르게 달아도 됩니다.
- 글차례를 세워보세요.
- 10문장이상의 글을 지어보세요.

배운것을 다져보자요

1. 달레 아버지의 억울함과 지주놈의 악착하고 교활한 본성이 드러나게 그들의 말을 잘 살려읽어보세요.
2. 다음단어의 뜻을 말하고 두 단어가 한 문장안에 들어가게 짧은글을 지으세요.

도리여—을러대다, 곡식—보람

3. 바로 읽어도 거꾸로 읽어도 뜻이 통하는 단어를 5개이상 찾아보세요.

례 : 해방— 방해

4. 《말하다》의 뜻을 나타내는 단어들을 5개이상 찾아보세요.

례: 을러대다, 지껄이다

5. 《빚》, 《빗》, 《빛》을 □안에 알맞게 넣으세요.

해□이 쨍쨍 나는 날마다 진흙으로 그릇을 □어 판 돈이 퍼그나 되자 순이 아버지는 딸애의 머리□을 사들고 □값에 끌려간 순이를 찾아 지주집으로 달려갔다.



꼭 새겨두자요

지주놈은 농민들이 피땀흘려 지은 낟알을 몽땅 빼앗아가고 가난한 사람들을 머슴으로 끌어다 부려먹는 나쁜 놈입니다.

동화

제11과
할아버지가 되였던 철이

철이와 은별이가 학교에서 돌아오고있었습니다.

소학교 3학년에 다니는 은별이와 철이는 한학급에서 공부하고 또 집도 같은 아빠트, 한층에서 산답니다. 그래서 그들은 늘 학교에도 함께 다니고 놀러도 같이 다녔습니다.

《부르릉―》2층뻐스가 그들곁을 지나갔습니다.

《은별아! 우리 이 뻐스 타고 텔레비죤야외영화관에 갈가? 거기서 오늘 재미있는 영화를 한댔어.》

철이가 은별이에게 말했습니다.



《선생님이 곧장 집으로 가서 숙제랑 하라고 하셨는데…》

은별이가 망설이였습니다.

《일없어, 학생들에게 보여주는 영화야. 제꺽 보구와서 숙제를 하자.》

《좋아!》

은별이도 마음이 동해서 따라나섰습니다.

정류소에 이른 그들은 손님들의 맨 뒤에 섰습니다.

《앞으로 나가자!》철이가 속삭였습니다.

《안돼, 차례대로 타야 해. 끼여타는 앤 나쁜 애야.》

《헹! 우리처럼 쪼끄만 아이들은 일없어.》

철이는 은별이가 타거나말거나 저 혼자 앞으로 씽 달려나가 어른들의 짬사이로 살짝 새여들어갔습니다.

그리고는 재빨리 뻐스에 올라 앞쪽에 있는 빈자리에 냉큼 앉았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어찌합니까?

의자에서 무슨 말소리가 속삭이듯 들려왔습니다.

《이 자리에는 어른들이 앉아야 합니다.》

(뭐, 어른들?!)

철이는 다른 자리에 옮겨앉으려고 엉거주춤 엉치를 들고 사방을 돌아보았습니다. 인제는 빈자리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에라, 모르겠다.)

철이는 다시 자리에 앉았습니다. 또 그 자리에서 아까와 같은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제길… 이런 땐 나도 옛말에 나오는것처럼 갑자기 할아버지로 변했으면 좋겠네.)

바로 이 순간 철이는 자기 소원대로 할아버지로 변해버렸습니다.

이 의자는 신기한것이였으니까요.

그러나 이런것을 전혀 모르는 철이는 그저 눈을 감고 조는척하다가 그만에야 소르르 잠이 들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할아버지, 인젠 내리십시오. 여기가 마지막정류소입니다.》

차장이 흔들어서야 깨여난 철이는 어리둥절하여 뻐스에서 내렸습니다.

(뭐? 내가 할아버지라구?)

아직 할아버지로 변한 자신을 알수 없는 철이는 얼른 맞은편 텔레비죤야외영화관으로 갔습니다.

학생소년공원에 있는 텔레비죤야외영화관에는 굉장히 큰 액정텔레비죤이 있었습니다.

철이는 아이들이 자리를 잡느라고 붐비는 곳으로 갔습니다.
이때였습니다.
아이들의 시선이 일제히 철이쪽으로 쏠리며 설레이기 시작하더니 《하하하…》웃음폭포가 쏟아졌습니다.
《야! 꼬마할아버지로구나.》
《소년단넥타이도 맸어.》
《등에는 토끼가방도 지구. 호호호…》
(뭐?! 꼬마할아버지? 차장누나도 나를 보고 할아버지라고 하더니 저 애들도 나를 할아버지라고 하는구나. 참, 별꼴 다 보겠네.)
철이가 영문을 몰라 잠시 머뭇거리는데 이번에는 자리에 앉았던 은별이가《할아버지, 여기 앉으세요.》하며 의자를 내주는것이였습니다.
《얘, 은별아, 나야 나. 철이야.》
《예? 철이?》
은별이는 입을 딱 벌렸습니다.
이때 큰 텔레비죤화면에 방송원이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부터 텔레비죤영화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영화를 보기 전에 한가지 통보화면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아름다운 우리 거리에 례절이 바르지 못한 한 학생이 새여들어왔습니다.》
방송원의 말에 이어 화면에는 철이가 뻐스줄에서 새치기하는것으로부터 웃어른들에게 자리를 양보하지 않고 뻐젓이 앉아있다가 할아버지로 되는 모습, 차장이 흔들어 깨워주는 모습에 이르기까지 그대로 흘러가고있었습니다.
순간 철이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 저게 나란 말인가? 내가 왜 할아버지로 됐을가?)
텔레비죤에서 방송원의 목소리가 계속 흘러나왔습니다.
《이 학생이 앉은 의자는 이름난 박사선생님이 만든것인데 이렇게 도덕이 없는 학생이나 젊은 사람이 앉으면 늙은 할아버지로 변하는

신기한 의자입니다. 그래서 례절이 없는 이 학생도 꼬마할아버지로 되고말았답니다.》

(아이구… 그래서 나보구 할아버지라고 했구나.)

철이는 쥐구멍에라도 들어가고싶었습니다.

순간 아이들의 눈길이 모두 철이에게 쏠렸습니다.

《아니, 아직도 저런 동무가 있다니, 이건 우리 소년단원들의 수치야, 수치!》

《저런 동무는 소년단원자격이 없어.》

《그렇잖구.》

저저마다 한마디씩 하는 동무들의 말을 들으며 철이는 그 자리에 풀썩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이때 또랑또랑한 방송원의 목소리가 또다시 울려나왔습니다.

《이 동무는 이제라도 늦지 않았으니 빨리 동무들앞에서 자기비판을 하세요. 그러면 자기의 모습을 찾을수 있답니다.》



철이는 왕밤알같은 눈물을 뚝뚝 떨구며 동무들앞으로 나가 잘못을 말하고 용서를 빌었습니다.

그러자 정말 늙은 할아버지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귀여운 철이의 모습이 되살아나는것이였습니다.

《야! 철이야!》

철이는 기뻐하는 은별이의 손을 잡고 례절 바르고 마음이 착한 학생이 되리라 굳게 마음다졌습니다.

영화가 곧 시작되였습니다.

새로운 결의를 안고 보는 영화는 참 재미있었습니다.

바로 읽고 바로 쓰자요

❖ 다음단어들을 바로 읽고 쓰자요.

아빠트, 결의, 같이, 변해, 례의도덕, 온데간데, 웃어른

❖ 다음단어의 빈받침칸에 알맞는 둘받침을 써넣으세요.

일엄어, 점은, 늠은, 그렇참구, 주저암아

❖ 문장을 공부합시다.

문 장

단어와 단어들을 이어서 하나의 생각을 나타내는 말이나 글줄을 문장이라고 합니다.

례: 철이가 은별이에게 말했습니다.

이 문장은 세개의 단어가 모여 하나의 문장을 이루었습니다.

문장은 흔히 《습니다, 습니까, 다, 시오, 세요, 가, 니, 라》와 같은 토로 끝납니다.

문장의 끝에는 점(·), 물음표(?), 느낌표(!)와 같은 부호를 칩니다.

• 다음의 글을 읽고 왜 그것이 문장으로 되는지 말해보세요.

ㄱ) 《좋아!》

ㄴ) 《그렇잖구.》

ㄷ) (뭐, 어른들?!)

ㄹ)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어려운 말을 풀어보자요

❖ ___안에 알맞는 단어(**붐비다, 동하다, 박사**)를 넣고 그 뜻을 알아보자요.

- 순이는 아는것이 많아 동무들로부터 꼬마___라고 불리웁니다.
- 옥이는 ___ 사람들속을 뚫고 어머니에게로 달려갔습니다.
- 남이는 새책이 나왔다는 말에 마음이 ___도서관으로 갔습니다.

❖ 맞는 뜻에 줄을 그어보자요.

엉거주춤	목소리가 맑고 똑똑하다
어리둥절하다	선것도 아니고 앉은것도 아닌 몸가짐으로 머뭇거리는 모양
또랑또랑하다	정신을 제대로 차릴수 없을 정도로 얼떨떨하다

❖ 뜻같은말에 줄을 긋고 그 뜻을 알아보자요.

신기하다	떳떳이
뻐젓이	창피
수치	신비하다

내용을 알아내자요

❖ 철이와 은별이는 어디로 갑니까?

❖ 철이는 뻐스정류소에서 어떻게 행동하였습니까?

❖ 철이는 왜 할아버지로 되였습니까?

❖ 철이는 어떻게 자기의 모습을 되찾을수 있었습니까?

❖ 동화의 내용을 말해보세요.

재미있게, 조리있게 말해보자요

❖ 동화에 나오는 철이의 행동을 놓고 소년반에서는 모임을 열었습니다. 철이를 도와주는 마음에서 토론들을 해봅시다.

- 철이의 행동에서 잘못된것은 무엇입니까?
- 철이가 왜 그렇게 행동하게 되였을가요?
- 그러면 뻐스를 탈 때 어떻게 해야 할가요? 그림을 보면서 말해보자요.



멋진 글을 지어보자요

❖ 먼저 되새겨보자요.

학생도 철이와 같이 행동한적이 있었습니까?

- 언제, 어디서, 어떻게?
- 그래서 어떤 결과가 빚어졌습니까?
- 지금 생각하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 앞으로 어떻게 할 결심입니까?

❖ 제목을 달고 글을 지어보세요.

배운것을 다져보자요

1. 단어발음, 끊기, 높낮이, 힘주기, 속도를 지키면서 동화를 살려 읽으세요.
2. 다음문장을 읽고 물음에 대답하세요.

   철이는 아이들이 자리를 잡느라고 붐비는 곳에 갔습니다.

   - 무엇을 나타낸 문장입니까?
   - 몇개 단어로 이루어졌습니까?
   - 어떤 물음에 대답하는 말로 이루어졌습니까?
3. 다음단어들의 뜻을 말하고 두 단어가 한 문장안에 들어가게 짧은글을 지으세요.

   동하다—엉거주춤, 신기하다—어리둥절하다
4. 뻐스안에서는 어떤 질서를 지켜야 합니까? 실례를 들어가며 차근차근 말해보세요.
5. 철이가 자기 잘못을 뉘우치는 대목을 찾아 곱게 써보세요.



꼭 새겨두자요

뻐스나 전차에서 웃사람에게 자리를 내여드리는것은 학생으로서 반드시 지켜야 할 도덕입니다.

토론글

제12과

소년단조직생활을 잘하겠다

저는 소년단조직생활을 잘할데 대하여 토론하겠습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습니다.

《소년단원들은 소년단조직생활을 잘하여야 합니다.》

소년단원들은 소년단조직생활을 잘해야 경애하는 **김정은**선생님께 충직한 나어린 혁명가로 자라날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소년단조직생활을 잘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전번주에 분단에서 준 분공을 제 날자에 실천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소년단모임에도 한번 늦게 참가한적이 있습니다.

저에게서 이런 결함이 나타나게 된것은 소년단조직생활에 성실히 참가하려는 자각이 부족하기때문입니다.

저는 이와 같은 결함을 고치고 소년단조직생활을 잘해나가겠습니다.

저는 소년단조직을 사랑하고 귀중히 여기며 언제나 조직에 의거하여 생활하겠습니다. 또한 조직에서 맡겨주는 일을 어김없이 실천하고 소년단모임에 빠짐없이 참가하며 소년단규약을 잘 지키겠습니다. 그리고 조직앞에 자기 잘못을 솔직히 비판하고 동무들의 결함을 따뜻이 타일러주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소년단조직생활을 잘해서 경애하는 **김정은**선생님께 충직한 참된 소년근위대로 더욱 튼튼히 준비하겠습니다.

바로 읽고 바로 쓰자요

❖ 본문을 토론글의 특성에 맞게 읽고 읽기에서 이야기글과 다른 점을 말해보자요.

❖ 다음단어들을 바로 읽고 쓰자요.

충직한, 혁명가, 결함, 분공, 어김없이, 솔직히, 튼튼히

어려운 말을 풀어보자요

토론— 어떤 문제에 대한 생각이나 의견을 내놓는것.

혁명가— 혁명을 하는 사람.

분공— 조직에서 맡겨주는 과업.

자각— 스스로 깨닫는것.

규약— 조직성원들의 의무와 권리, 질서 등을 규정한것.

의무— 반드시 지켜야 하는것.

권리— 조직의 성원에게 차례지는 자격.

소년근위대— 경애하는 **김정은**선생님을 앞장에서 받들어나가는 소년단원들의 대오.

내용을 알아내자요

❖ 어떤 문제를 가지고 토론하였습니까?

❖ 토론글의 차례를 알아보자요.

- 경애하는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어떻게 교시하시였습니까?
- 왜 소년단조직생활을 잘해야 합니까?
- 소년단조직생활에서 어떤 결함이 나타났습니까?

- 왜 그런 결함이 나타났다고 하였습니까?
- 어떻게 결의다졌습니까?
- 결의를 실천하기 위해 어떻게 하겠다고 하였습니까?

❖ 본문에서는 어떤 말차림을 썼습니까?

멋진 글을 지어보자요

❖ 학습을 잘할데 대한 문제를 가지고 토론글을 지어봅시다.

- 제목을 생각해보세요.
- 글차례를 생각해보세요.
- 알맞는 말, 생동한 표현을 생각해보세요.
- 글을 짓고 발표해보자요.

곱게 쓰자요

❖ 단어들을 곱게 써보자요.

- 본보기글을 두번 써보세요.

혁명가 분공 소년단조직생활

- 다음단어들을 세번씩 써보세요.

결함, 동무, 분단모임

❖ 문장을 곱게 써보자요.

- 본보기글을 두번 써보세요.

소년단원들은 소년단조직생활을 잘해야 경애하는 김정은선생님께 충직한 나어린 혁명가로 자라날수 있습니다.

- 본문에서 결의부분을 찾아 곱게 쓰세요.

배운것을 다져보자요

1. 본문을 시간을 재며 두번 읽어봅시다. 처음에는 소리를 내며 읽고 다음에는 속으로 읽어보세요.
2. 다음단어들의 뜻을 말하고 두 단어를 한 문장안에 넣어 짧은글을 지으세요.

   토론—혁명가　　　　　　분공—소년단규약
3. 《분공》으로부터 시작하여 《실천》으로 끝나게 두 글자 단어로 말끄리잇기를 해보세요.(10개)
4. 다음말의 뒤를 이어 문장을 만드세요.

   ㄱ) 소년단규약대로 생활하려면…

   ㄴ) 소년단조직생활을 잘하기 위해서는…
5. 토론글의 글차례를 말해보세요.



꼭 새겨두자요

경애하는 **김정은**선생님께 충직한 혁명가가 되자면 어려서부터 소년단조직생활을 잘해야 합니다.

다시한번 익혀보자요
(7과 — 12과)

1. 다음단어들을 받아쓰기하세요.

   새끼사슴, 특징, 송구스러워, 놀려댑니다, 없단 말인고, 빼앗아, 빌려쓰고, 쫓겨난, 죽을 쑤다, 곧장, 주저앉아, 맡겨주는, 결함

2. □안에 둘받침글자를 알맞게 써넣으세요.

   어김□이, □겨□다, 도덕이 □다, □은 사람,
   □은 할아버지, 그렇□구, 늦지 □았다, □지 □고,
   □지 □을게구, 여□말, 꿰□고, 돈□는

3. 《죽다》의 뜻을 나타내는 말을 5개이상 찾아보세요.

4. 다음단어들의 뜻을 말하고 두 단어를 한 문장안에 넣어 짧은글을 지으세요.

   넘어 / 너머　　드리다 / 들이다　　주리다 / 줄이다

5. 다음문장들을 읽고 물음에 대답하세요.

   ㄱ) 역장은 위대한 장군님께 정중히 인사를 올렸습니다.
   ㄴ) (에라, 모르겠다.)
   ㄷ) 《할아버지, 여기 앉으세요.》

   - 몇개 단어로 문장을 이루었습니까?
   - 무엇을 나타낸 문장입니까?(대화, 모양, 생각, 행동)
   - 어떤 맺음토를 썼습니까?

6. 다음문장들에는 꼭 없어서는 안될 단어가 빠졌습니다. 그 단어를 찾아 알맞는 자리에 써넣으세요.

ㄱ) 가난한 집 칠성이는 크레용을 빌려쓰다가 빼앗는 바람에 세발황소를 그리게 되였습니다.

ㄴ) 김광철형님은 자기의 한목숨을 바쳐 구원하였습니다.

ㄷ) 의자에 철이는 할아버지로 변해버렸습니다.

7. 다음물음에 대답하세요.

ㄱ)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사슴과 노루의 특징을 어떻게 가르쳐주시였습니까?

ㄴ) 《세발달린 황소》와 《콩 한말》의 내용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고있습니까?

ㄷ) 소년단조직생활을 잘하려면 어떻게 하여야 합니까?

ㄹ) 뻐스를 탈 때 례의도덕을 잘 지키자면 어떻게 하여야 합니까?

8. 속담, 수수께끼

❖ 속담의 뜻을 익히고 이 속담을 넣어 짧은글을 지으세요.

- 다리부러진 노루 한곬에 모인다.— 처지나 취미 등이 같은 사람들끼리 한데 모인 경우를 이르는 말.
- 나라없는 백성은 상가집개만도 못하다.— 나라를 빼앗긴 인민은 마치도 돌봐줄 주인이 없는 상가집의 개신세보다도 못하다는 말.
- 노루 제 방귀에 놀란다.— 겁이 많은 사람이 별치 않은 일에도 공연히 겁을 집어먹고 놀람을 롱조로 이르는 말.
- 절 하고 뺨맞는 일 없다.— 언제나 겸손하게 남을 공대하면 수치를 당하거나 봉변을 당하는 일이 없다는 말.

❖ 수수께끼

- 바람먹고 노래하는것이 무엇일가요?
- 네다리가 있으면서도 걷지 못하는것이 무엇일가요?
- 낮에는 올라가고 밤에는 내려오는것이 무엇일가요?

9. 알아맞춰보세요.

어느날 위성이는 오리, 고양이, 남새를 가지고 외할머니네 집으로 떠났습니다. 외할머니네 집은 강건너에 있었습니다.

강을 건느려면 작은 매생이를 타야 하는데 그 매생이에는 오리, 고양이, 남새가운데서 어느 하나와 위성이밖에 탈수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없이 오리와 고양이를 남겨두면 고양이가 오리를 잡아먹을것이고 오리와 남새를 남겨두면 오리가 남새를 먹어치울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만 있으면 아무것이든 먹지 못합니다.

위성이는 머리를 써서 모두 그냥 그대로 외할머니네 집으로 무사히 가져갔습니다. 어떻게 건넜을가요?

동요

제13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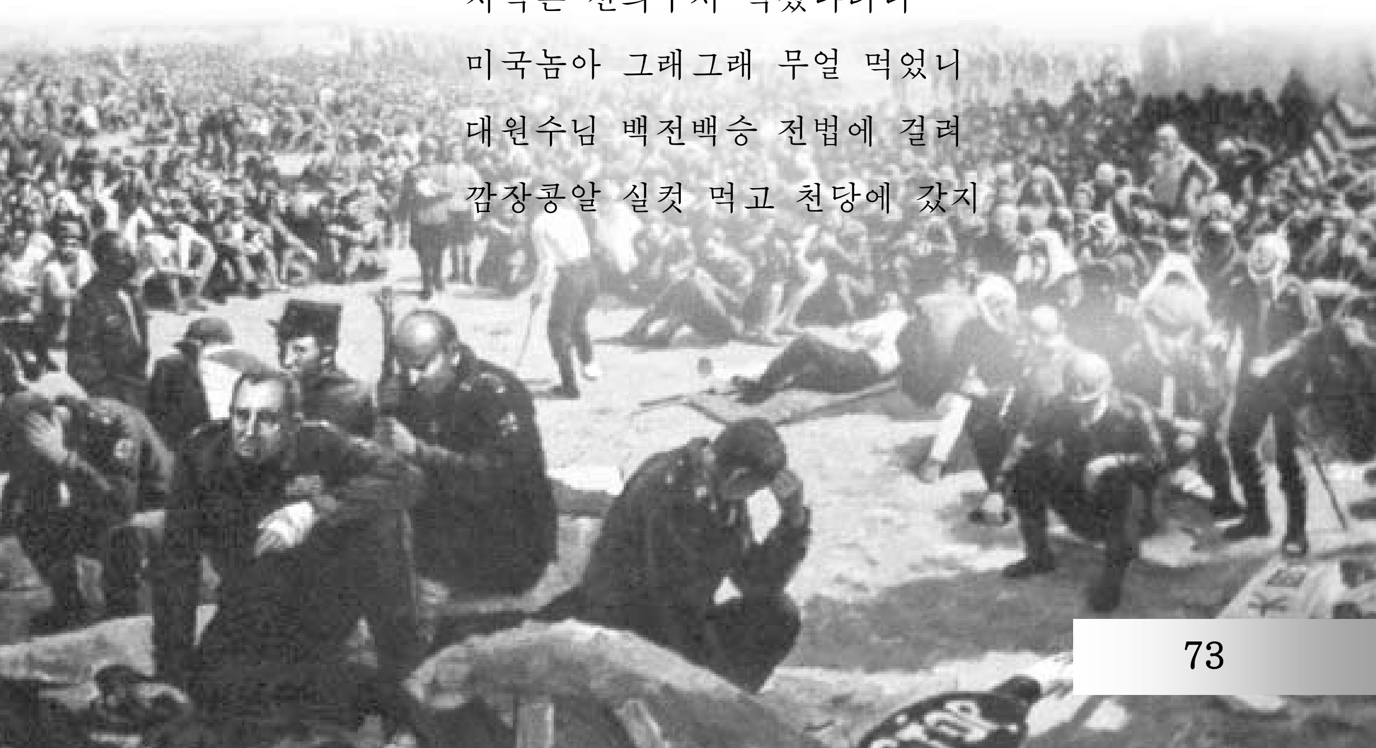
쫄딱 녹았지

림 금 단

아침은 해주에서 먹겠다더니
먹었니 먹었니 어디 말해봐
인민군대 불벼락에 벌벌 떨면서
도망치다 서울에서 서서 먹었지

점심은 평양에서 먹겠다더니
먹었니 먹었니 어디 말해봐
미꾸라지새끼처럼 오구구 몰려
코를 박고 대구에서 흙탕 먹었지

저녁은 신의주서 먹겠다더니
미국놈아 그래그래 무얼 먹었니
대원수님 백전백승 전법에 걸려
깜장콩알 실컷 먹고 천당에 갔지



바로 읽고 바로 쓰자요

❖ 다음단어들을 바로 읽고 쓰자요.

먹었니, 미국놈아, 전법에, 백전백승, 먹겠다더니

❖ 토가 붙은 말을 어떻게 띄여쓰는가를 봅시다.

토가 붙은 말 띄여쓰기

토가 붙은 말들은 모두 다른 말과 띄여써야 합니다.

례: 아침은□해주에서□먹겠다더니

그리고 토는 언제나 말마디에 붙여써야 합니다.

- 동요의 3련을 받아쓰세요. 받아쓸 때 토가 붙은 말 띄여쓰기를 바로 하세요.

어려운 말을 풀어보자요

❖ 단어를 이루는 매 글자를 통하여 그 뜻을 알아보자요.

백전백승
- 백— 백번
- 전— 싸움
- 백— 백번
- 승— 이기는것

전법
- 전— 싸움
- 법— 방법

❖ 문장속에서 단어의 뜻을 알아보자요.

- 올챙이들이 오구구 끓다.
- 실컷 부려먹고 생일날 잡아먹는다.

내용을 알아내자요

❖ 아침은 해주에서 먹겠다던 미국놈들은 어떻게 되였습니까?
❖ 점심은 평양에서 먹겠다던 미국놈들은 어떻게 되였습니까?
❖ 저녁은 신의주에서 먹겠다던 미국놈들은 어떻게 되였습니까?
❖ 동요의 내용을 말해보세요.

재미있게, 조리있게 말해보자요

❖ 미국놈들은 무엇을 먹으려다가 결국에는 무엇을 먹었습니까?
❖ 미국놈들은 무엇을 몰랐습니까?
❖ 학생은 영화나 책에서 미국놈들이 우리 인민군대에게 쫄딱 녹아난 이야기를 본적이 있습니까? 학생이 알고있는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말해보세요.

멋진 글을 지어보자요

❖ 이 동요를 이야기글로 고쳐서 재미있게 써봅시다.
례: 1련—

1950년 6월 25일 새벽에 미군장교놈은 졸병놈들앞에서 이렇게 웨쳤습니다. 《아침은 해주에서 먹겠다. 출동!》

미국놈들은 땅크와 비행기, 장갑차, 대포를 앞세우고 이리떼처럼 공화국북반부로 쳐들어왔습니다.

우리의 용감한 인민군대아저씨들은 달려드는 미국놈들에게 불벼락을 안기며 맞받아나가 서울을 해방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도망치던 미국놈들은 서울에서 몽땅 녹아나고말았습니다.

- 2련, 3련도 생동한 표현들을 넣어 재미나게 써보세요.

배운것을 다져보자요

1. 동요를 외워서 읊어보세요.
2. 다음문장을 보면서 단어 《녹다》의 서로 다른 뜻을 알아보세요.
   ㄱ) 사탕이 녹았다.
   ㄴ) 미국놈들이 녹아났다.
   ㄷ) 달콤한 말에 녹아나다.
3. 두 단어를 한 문장안에 넣어 짧은글을 지으세요.
   오구구—흙탕,　　　　전법—실컷
4. 동요의 내용을 말해보세요.
5. 이 시에서 미국놈들이 녹아나는 모양을 보여주는 생동한 표현들을 찾아 곱게 쓰세요.



꼭 새겨두자요

경애하는 **김일성**대원수님의 뛰여난 전법에 걸려 우리나라를 먹겠다던 미국놈들은 쫄딱 녹아나고말았습니다.

이야기

제14과

비판받은 옥이

뜻깊은 개학날이였습니다.

동무들은 새 교과서, 새 필갑이랑 꺼내놓고 서로 자랑을 하며 벅작거립니다. 그러나 맨 앞책상에 외토리로 앉아 수업시간을 기다리는 성희의 얼굴엔 가벼운 그늘이 실렸습니다.

왜냐구요? 아니 글쎄 2년동안이나 자기 옆자리에 앉아 한송이에 든 쌍밤알처럼 가깝게 지내던 옥이가 갑자기 자기를 배반하고 뒤자리에 가앉을줄이야…

이때였습니다.

앞나들문이 열리더니 뜻밖에도 경애하는 **김일성**대원수님께서 들어서시는게 아니겠습니까.

우리 나라에서 전반적11년제의무교육이 실시된 첫 개학날인 주체61(1972)년 9월 1일을 맞으며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김성주**소학교(당시 평양대동문인민학교)를 찾으신것이였습니다.

성희네는 너무도 놀라와 모두 일어나 깍듯이 소년단경례를 올렸습니다.

대원수님께서는 환한 미소를 지으시며 너무 기뻐 어쩔줄을 몰라하는 학생들의 머리를 하나하나 쓰다듬어주시였습니다.



대원수님께서는 성희네를 둘러보시며 하루에 공부를 몇시간씩 하는가, 어느 과목이 힘든가, 올해에 견학

은 어디에 갔다왔는가, 견학가서 무엇을 보았는가를 하나하나 물어보시였습니다.

학생들의 대답을 주의깊게 들으시던 대원수님께서는 이번에는 학생들의 조직생활정형에 대하여서도 알아보시였습니다.

소년단에 다 입단하였는가, 소년단회의에서는 비판을 하는가, 비판한 후에 어떻게 고치는가를 알아보신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이렇게 물으시였습니다.

《소년단회의에서 누가 비판을 받아보았습니까?》

이때 옥이가 맨 뒤책상에서 엉거주춤 일어났습니다.

《왜 비판을 받았습니까?》

대원수님께서는 옥이에게 다정히 물으시였습니다.

《숙제를 해오지 않아서 비판을 받았습니다.》

《비판을 받을 때 어떠했습니까?》

《가슴이 막 왈랑왈랑했습니다.》

옥이의 솔직한 대답을 들으신 대원수님께서는 매우 기특해하시며 비판을 받은 후 어떻게 했는가고 또다시 물으시였습니다.

《숙제를 다하고 검열맞혔습니다.》

옥이는 일어나서 씩씩하게 대답올렸습니다.

대원수님께서는 비판은 이래서 좋은것이라고 하시며 학생들은 조직생활을 잘해야 한다고 따뜻이 타일러주시였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의 말씀을 들으며 옥이는 잘못을 비판해주는 동무가 진짜 좋은 동무라는것을 다시금 깊이 느끼게 되였습니다.

옥이는 책가방을 주섬주섬 챙겨들고 성희의 옆자리로 옮겨왔습니다.

성희도 반갑다는듯 마주보며 빙그레 웃어줍니다.

바로 읽고 바로 쓰자요

❖ 다음단어들을 바로 읽고 쓰자요.

뜻깊은, 가깝게, 주의깊게, 뜻밖에도, 기특해, 반갑다는듯

❖ 다음문장에 읽기부호를 치고 살려읽어보자요.

ㄱ) 왜냐구요? 아니 글쎄 2년동안이나 자기 옆자리에 앉아 한송이에 든 쌍밤알처럼 가깝게 지내던 옥이가 갑자기 자기를 배반하고 뒤자리에 가앉을줄이야…

ㄴ) 대원수님께서는 성희네를 둘러보시며 하루에 공부를 몇시간씩 하는가, 어느 과목이 힘든가, 올해에 견학은 어디에 갔다왔는가, 견학가서 무엇을 보았는가를 하나하나 물어보시였습니다.

어려운 말을 풀어보자요

❖ 맞는 뜻에 줄을 그어보자요.

벅작거리다	어떤 일을 실지로 하다
외토리	소리없이 입을 벌려 웃는 웃음
실시하다	여럿이 큰소리로 떠들다
미소	혼자

❖ 문장속에서 단어의 뜻을 알아보자요.

- 한송이에 든 쌍밤알처럼 가깝게 지내던 옥이가 갑자기 자기를 **배반**하고 뒤자리에 가 앉을줄이야…
- 모두 일어나 **깍듯이** 소년단경례를 올렸습니다.
- 책가방을 **주섬주섬 챙겨들고** 성희의 옆자리에 옮겨앉았습니다.

❖ 존경토를 공부합시다.

존 경 토

우리 말에는 존경의 뜻을 나타내는 토들이 있습니다.

례: 경애하는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잘 익은 복숭아를 할아버님께 먼저 드리시였습니다.

토 《께, 께서, 시》는 존경을 나타내는 토입니다.

존경토는 존경하는 웃사람에 대하여 말할 때 씁니다.

- 본문에서 존경토가 붙은 단어들을 찾아보세요.

내용을 알아내자요

❖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언제 어느 학교를 찾아주시였습니까?

❖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성희네 교실에 오시여 무엇을 알아보시였습니까?

❖ 옥이는 대원수님의 물으심에 어떻게 대답을 올렸습니까?

❖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옥이의 씩씩한 대답을 들으시고 어떻게 타일러주시였습니까?

❖ 본문의 내용을 말해보세요.

재미있게, 조리있게 말해보자요

❖ 학생도 선생님이나 동무들에게서 비판을 받은적이 있겠지요? 비판을 받았을 때의 심정을 솔직하게 말해보세요.

❖ 조직생활에서 비판이 전혀 없다면 어떻게 될가요?

❖ 비판의 좋은 점을 말해보세요.

멋진 글을 지어보자요

개학날에 있은 일을 가지고 일기를 쓰자요.

❖ 개학날을 돌이켜보세요.

- 개학날 학교에 들어섰을 때 우리 학교, 우리 학급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가를 생각해보세요.
- 개학날에 학생이 한 일을 생각해보세요.
- 개학날에 받은 느낌이 무엇이였던가를 돌이켜보세요.

❖ 제목을 달고 글을 지어보자요.

배운것을 다져보자요

1. 본문을 발음법을 지키면서 소리내여 읽어보세요.
2. 다음단어들을 받아쓰기하세요.
   주의깊게, 뜻깊은, 뜻밖의, 떠들다, 옆에, 검열맞히다, 챙겨넣다
3. 존경토《께, 께서, 시》를 넣어 2개 문장으로 된 짧은글을 지으세요.
4. 다음단어와 뜻같은말을 찾아보세요.
   벅작거리다, 실시하다, 고깝다
5.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옥이를 어떻게 타일러주시였습니까?



꼭 새겨두자요

결함을 비판해주는 동무가 진짜 좋은 동무입니다.

가사

제15과

조국의 품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 친히 지으신 가사)

모란봉에 붉게 타는 노을인가요
대동강에 곱게 비낀 무지갠가요
노을처럼 아름다운 조국의 품은
내가 자란 정든 집 고향입니다

진달래꽃 방긋 웃는 새봄인가요
종달새가 지저귀는 하늘인가요
봄날처럼 따사로운 조국의 품은
나를 안아 키워준 어머닙니다

바다우에 둥실 솟는 아침핸가요
밤하늘에 반짝이는 별빛인가요
해빛처럼 밝고밝은 조국의 품은
아버지장군님 품이랍니다

바로 읽고 바로 쓰자요

❖ 다음단어들을 바로 읽고 쓰자요.

붉게, 비낀, 곱게, 지저귀는, 솟는, 별빛인가요, 해빛처럼

❖ 줄어든말을 공부합시다.

줄어든말 적기

우리 말에는 글자나 받침이 줄어든 말이 있습니다.

례 : 맘(마음), 놔주렴(놓아주려마),

언제 봐도(언제 보아도), 산골짝(산골짜기)

이렇게 줄어든말은 줄어든 그대로 적어야 합니다.

• 다음단어들에서 어떤 말이 줄어들었는가를 찾아보고 (　)에 그것을 써넣으세요.

무지갠가요(　　　　)

아침핸가요(　　　　)

어머닙니다(　　　　)

어려운 말을 풀어보자요

❖ 그림을 보면서 단어의 뜻을 알아보자요.



노을

❖ 어울리는 말에 줄을 긋고 단어의 뜻을 알아보자요.

고향이	따스하다
품이	**비끼다**
무지개가	그립다

내용을 알아내자요

❖ 조국을 무엇에 비겨 표현하였습니까? 매 절의 1, 2행을 통해 알아보세요.

❖ 조국의 품은 무엇이라고 노래하였습니까? 매 절의 4행을 통해 알아보세요.

❖ 가사의 내용을 한 문장으로 말해보세요.

재미있게, 조리있게 말해보자요

❖ 우리 조국은 어느분께서 찾아주시였습니까? 경애하는 **김일성**대원수님께서 조국을 찾아주시고 지켜주시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어떻게 되였을가요?

❖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는 우리 조국을 어떻게 지켜주시고 빛내여주시였습니까?

❖ 경애하는 **김정은**선생님을 받들어 우리 조국을 더욱 굳건히 지키고 세상에 빛내이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똑똑히 듣자요

❖ 선생님의 이야기를 듣고 다음의 차례에 따라 말해보세요.

- 무엇에 대해 설명하였는가?
- 《선군》이란 무슨 말인가?
- 《선군》이란 말은 어디에서 처음으로 나온 말인가?
- 왜 이 말이 나오게 되였는가?

❖ 다시한번 새겨듣고 그 내용을 자기 말로 이야기해보세요.

배운것을 다져보자요

1. 가사의 매 절에 읽기부호를 치고 살려읊어보세요.
2. 다음단어들을 줄어든말로 고치세요.

   용하다(　　　), 가지고(　　　), 가보아라(　　　　),

   이다음(　　　), 무엇이라구(　　　　), 만나보이다(　)
3. 《처럼》이라는 토를 리용하여 어떤것을 다른것에 비긴 경우를 5개이상 찾아보세요.

   례 : 해빛<u>처럼</u> 밝고밝은 조국의 품
4. 단어 《타다》가 서로 다른 뜻으로 쓰이는 경우를 5개이상 찾아보세요.
5. 가사를 글씨규범에 맞게 곱게 쓰세요.



꼭 새겨두자요

경애하는 **김일성**대원수님께서 세워주시고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 빛내여주신 사회주의 내 나라는 우리가 안겨사는 조국입니다.

민화

제16과
혹뗀 이야기

옛날 어떤 마을에 부지런하고 마음씨 착한 나무군할아버지가 살았습니다. 그 할아버지의 오른쪽볼밑에 큰 혹이 달려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이 혹때문에 잠잘 때나 일할 때나 대단히 불편하였습니다.

어느 가을날이였습니다. 그날도 할아버지는 지게를 지고 마을에서 멀리 떨어진 깊은 산속에 들어가 나무를 한짐 해가지고 돌아섰습니다. 그런데 방금전까지만 하여도 쨍쨍 맑던 하늘이 갑자기 흐리여 비가 내리기 시작하였습니다. 할아버지는 하는수없이 산속에 있는 한 오막살이에 들어갔습니다.

밤은 깊어갔으나 비는 구질구질 계속 내렸습니다. 할아버지는 하도 심심하여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였습니다.

하늘엔 별도 많고
동산우에 달이 둥실
…

할아버지는 흥이 나서 한참이나 노래를 불렀습니다. 이때 별안간 쿵쿵거리는 발구름소리와 함께 수군덕거리는 괴상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뒤이어 머리에 소뿔같은 뿔이 돋고 얼굴빛이 불그락푸르락한 도깨비들이 나타났습니다. 할아버지는 너무도 놀라 후닥닥 일어나 허둥지둥 도망치려 하였습니다. 이때 키가 제일 크고 몸집이 뚱뚱한 우두머리도깨비가 할아버지앞에 넙적 절을 하며 말했습니다.

《로인님, 놀라지 마십시오. 우리는 로인님의 아름다운 노래소리에 끌려 여기까지 온것이니 미안하지만 노래 몇 곡을 더 들려주십시오.》

그제야 할아버지는 《후—》 하고 길게 한숨을 내쉬고 목청을 돋구어 노래를 불렀습니다.

도깨비들은 구슬을 굴리는듯 한 아름다운 노래가락에 장단을 맞추어 가며 연방 《좋구나, 좋다!》 하면서 덩실덩실 춤을 추었습니다.

노래가 끝나자 우두머리도깨비가 할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로인님, 그렇게 아름다운 노래소리가 어디서 나옵니까?》

《노래야 목청에서 나오지 어디서 나오겠나.》

할아버지는 어처구니 없는 도깨비의 물음에 껄껄 웃으며 대답하였습니다.

《로인님은 우릴 못 속입니다. 누구나 다 목청이 있긴 하지만 어디 그런 아름다운 노래소리가 나옵니까? 로인님의 목에 달린 혹에서 아름다운 노래소리가 나온것이 틀림없습니다.》

《이 혹에서 나온다구?…》

《그렇습니다. 로인님, 그 노래주머니를 우리에게 줄수 없습니까? 그 값으로 보물주머니를 드리겠습니다.》

《아니, 혹을 떼다니?! 아파서 어떻게…》

《로인님, 그건 근심마십시오. 아프지 않도록 떼드리겠습니다.》

할아버지는 궁리끝에 혹을 썩썩 쓸어만지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실 노래는 이 혹에서 나오는건 아니지만 자네들이 정 요구하면 이 혹을 떼도 일은 없겠네. 그러나 이따 이 혹에서 노래가 나오지 않더라도 날 원망은 말게.》

할아버지의 말이 떨어지자 우두머리도깨비는 할아버지의 혹을 슬슬 문지르면서 중얼거렸습니다.

《혹아 혹아 떨어져라, 살짝 뚝 떨어져라.》

과연 아프지 않게 혹이 살짝 떨어졌습니다.

도깨비들은 할아버지앞에 보물주머니를 남겨놓고는 어데론가 바삐 사라졌습니다.

먼동이 훤히 트자 할아버지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할아버지는 그 보물을 팔아서 새 집을 짓고 잘살게 되였습니다.

나무군할아버지가 잘살게 되였다는 소식이 아래마을에 사는 욕심쟁이 부자령감의 귀에도 들어갔습니다. 이 령감의 오른쪽볼밑에도 큰 혹이 달려있었습니다. 그도 혹을 떼고 더 큰 부자가 되고싶었습니다.



비내리는 날을 기다려 욕심쟁이령감은 지게를 지고 오막살이를 찾아갔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욕심쟁이령감은 이제나저제나 도깨비들이 나타나기를 기다리며 있는 목청을 다해 노래를 불렀습니다. 노래소리가 딱돼지멱따는 소리같아서 정말 듣기 역스러웠습니다.

이윽하여 어디선가 쿵쿵하는 발구름소리가 들리더니 정말 도깨비들이 우 몰려왔습니다. 욕심쟁이령감은 어찌나 반가왔던지 버선발로 마당에 뛰여나가 그들을 맞이하였습니다.

그리고는 간사스러운 목소리로 《도깨비님들, 안녕하십니까? 아마 저의 노래소리를 듣고 오셨겠지요? 저의 노래소리는 요전에 왔던 령감의 소리보다 백배나 더 듣기 좋지요. 저의 노래소리가 바로 이 혹에서 나오지요. 어서 이 보배혹과 당신의 보물을 바꾸지요, 네?》

하며 볼밑의 혹을 두손으로 떠받들어서 보이기까지 하였습니다.

《에끼, 이 망할놈의 두상, 무엇이 어쩌고어째, 전번날 령감은 혹에서 노래가 안 나온다고 하는걸 우리가 우겨서 샀지만 네놈은 처음부터 뻔뻔스레 우릴 속이려드는구나. 이놈 어디 한번 톡톡히 혼쌀나봐라!》

도깨비들은 무섭게 두눈을 부릅뜨고 벼락같이 소리쳤습니다. 그리고 전날 나무군할아버지의 혹을 이 욕심쟁이령감의 왼쪽볼밑에다 철썩 붙여주고는 두 혹을 힘껏 잡아당겨놓기까지 하였습니다. 이리하여 혹떼고 더 큰 부자가 되려던 욕심쟁이령감은 혹 하나를 더 붙인채 죽을 상통을 해가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때부터 《혹 떼러 갔다가 혹 붙였다.》라는 속담도 생기게 되였답니다.



바로 읽고 바로 쓰자요

❖ 다음단어들을 바로 읽고 쓰자요.

맑던, 많고, 불그락푸르락, 없는, 값으로, 발구름, 몇 곡, 돋고

❖ 옛이야기의 특성에 맞게 재미나게 읽어보세요.

어려운 말을 풀어보자요

❖ 어울리는 말을 보면서 단어의 뜻을 알아보자요.

별안간 — 소리치다 / 나타나다 / 사라지다

용기를 / 입맛을 / 신경을 — **돋구다**

원망 — 이 어리다 / 스럽다 / 하다

❖ 뜻같은말, 뜻반대말, 소리같은말을 공부합시다.

뜻같은말, 뜻반대말, 소리같은말

▶ 뜻같은말이란 소리는 다르지만 뜻이 같거나 비슷한 단어를 말합니다.

▶ 뜻반대말이란 서로 반대되는 뜻을 가진 단어를 말합니다.

▶ 소리같은말이란 소리는 같지만 뜻이 다른 단어를 말합니다.

• 다음단어들의 뜻같은말을 찾아보세요.

례: 괴상하다— 이상하다

궁리— 무엇을 알아내려는 생각.

우기다— 어떤 의견을 고집하여 내세우다.

상통— 얼굴을 속되게 이르는 말.

• 다음단어들의 뜻반대말을 찾아보세요.

례: 부지런하다↔게으르다 뚱뚱하다↔약하다

살다, 불편하다, 사라지다, 끝나다, 맑다, 당기다, 붙이다

• 소리같은말을 찾아보세요.

례:

말 — 말을 잘한다. / 말을 타다. / 콩 한말 / (꼬니에서) 말을 쓰다.

밤 〈

가락 〈

귀 〈

트다 〈

내용을 알아내자요

❖ 나무군할아버지와 욕심쟁이령감은 어떻게 되였을가요?

- 그들은 왜 오막살이집에 들어갔습니까?
- 그들은 왜 노래를 불렀습니까?
- 노래가 어디에서 나온다고 하였습니까?
- 그래서 어떻게 되였습니까?

❖ 본문의 내용을 한 문장으로 말해보세요.

재미있게, 조리있게 말해보자요

❖ 혹을 덧붙이고 집으로 돌아오면서 욕심쟁이령감은 무엇을 생각하였을가요? 자기가 욕심쟁이령감이라고 생각하고 말해보세요.

❖ 혹을 덧붙이고 돌아오는 욕심쟁이령감을 보고 마을사람들은 어떻게 놀려주었을가요? 학생의 생각을 말해보세요.

❖ 속담 《혹 떼러 갔다가 혹 붙였다.》의 뜻은 무엇일가요?

❖ 학생에게는 어떤 욕심이 있는지 말해보세요.

멋진 글을 지어보자요

❖ 《살짝》과 뜻같은말을 찾고 두 단어를 넣어 두개 문장으로 된 짧은글을 지어보세요.

❖ 《사라지다》의 뜻반대말을 찾고 두 단어를 넣어 두개 문장으로 된 짧은글을 지어보세요.

❖ 단어 《눈》에는 서로 다른 여러가지 뜻이 있습니다. 세개 문장속에 세개의 뜻이 들어가게 짧은글을 지으세요.

배운것을 다져보자요

1. 소리같은말을 5개이상 찾아보세요.
2. 다음표현들이 담고있는 뜻을 말하고 짧은글을 지어보세요.
   ㄱ) 구슬을 굴리는듯 한 아름다운 노래가락
   ㄴ) 벼락같이 소리치다.
   ㄷ) 동이 트다.
3. 속담 《혹 떼러 갔다가 혹 붙였다.》의 뜻을 말하고 이 속담을 넣어 5문장이상의 짧은글을 지으세요.
4. 민화의 내용을 자기 말로 재미나게 말해보세요.



꼭 새겨두자요

착하고 부지런한 사람은 복을 받아 잘살게 되지만 욕심많고 악한자는 벌을 받아 망하게 됩니다.

동시

제17과

사랑하자 우리 공원

김 정 태

이랴 낄낄 달린다 우리 목마 달린다
휘휘 채찍질 멋지게 두른다

— 야, 그 채찍 어디서 났니?
— 아이 바보, 공원에 얼마든지 있지 않아

아니아니 얘 좀 봐, 누가 누굴 바보래
공원에 심은 나무 꺾는 애가 바보지

꾀꼴새도 찾아와서 노래하는 우리 공원
하나의 나무라도 꺾지 말고 가꾸자

누가누가 잘 타나 열바퀴를 돌았다
일등한 애 받아라 꽃다발을 받아라

— 야 참 곱구나, 어디서 났니?
— 이 바보, 공원에 얼마든지 있지 않아

정말정말 기막혀, 누가 누굴 바보래
공원에 피는 꽃을 꺾는 애가 바보지



바로 읽고 바로 쓰자요

❖ 다음단어들을 바로 읽고 쓰자요.

이랴 낄낄, 휘휘, 두른다, 얼마든지, 바보래, 열바퀴

❖ 문장의 갈래에 대하여 공부합시다.

문장의 갈래

문장은 말하는 사람이 어떤 목적으로 말하는가에 따라 알림문, 물음문, 시킴문, 추김문, 느낌문으로 갈라집니다.

례 : ▶ 만경대는 아름답습니다.(알림문)

▶《학교에 언제 가니?》(물음문)

▶《영경아, 숙제를 해라.》(시킴문)

▶《진현동무, 도서관에 가자.》(추김문)

▶ 아! 얼마나 아름다운가!(느낌문)

어려운 말을 풀어보자요

❖ 합친말을 이루는 매 단어나 글자를 통하여 그 뜻을 알아보자요.

목마 ⟨ 목— 나무 / 마— 말

채찍질 ⟨ 채찍— 가느다란 막대기 / 질— 어떤 일 또는 어떤 일을 반복하는것

❖ 어울리는 말을 보면서 단어의 뜻을 알아보자요.

기
- (가) 막히다- 너무 놀랍거나 뜻밖이여서 어이없다.
- (가) 죽다- 기세가 쑥 들어가버리거나 사라지다.
- (가) 질리다- 무섭거나 두렵다.
- (가) 차다- 벌어진 일이 너무 엄청나거나 어이가 없다.
- (가) 꺾이다- 기세가 수그러들다.
- (를) 펴다- 어려운 형편에서 벗어나 마음을 놓다.
- (를) 쓰다- 있는 힘을 다하여 애쓰다.

돌담을
천을 → **두르다**
앞치마를

내용을 알아내자요

❖ 이 시는 몇개의 글차례로 되여있습니까?

❖ 첫째 글차례는 어느 편입니까? 누가 진짜 바보라고 하였습니까?

❖ 둘째 글차례는 어느 편입니까? 누가 진짜 바보라고 하였습니까?

❖ 글차례를 묶어 동시의 내용을 알아봅시다.

❖ 공원을 사랑한다는것은 어떻게 한다는것을 말합니까?

재미있게, 조리있게 말해보자요

❖ 동시에 나오는 학생을 잘 타일러줍시다. 자기의 잘못을 깊이 뉘우칠수 있게 결함과 원인을 정확히 말해주세요.

❖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과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우리 인민들과 어린이들을 위하여 가는 곳마다 훌륭한 공원과 유원지, 유희장을 꾸려주시였습니다. 학생이 살고있는 곳에도 공원이 있겠지요? 그 공원에 대한 자랑을 이야기해보세요.

- 무슨 공원인가? (공원이름)
- 공원에 무엇이 있는가?
- 공원을 어떻게 리용하는가?

❖ 공원을 사랑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가요? 세개 문장으로 말해보세요.

멋진 글을 지어보자요

현대적이고 아름다운 공원을 상상해보며 글을 지읍시다.

학생이 직접 《공원관리소 소장》이 되여 앞날의 공원을 설계해보세요.

❖ 팔골소학교 3학년 1반 렴은청동무는 이렇게 지었어요.

우리 공원
우리 아빠트밑에는 공원이 있습니다.
꽃도 있고 나무도 있고 철봉과 그네도 있습니다.
그리고 할아버지들이 장기를 뜨는 곳도 있습니다.
그런데 만경대유희장처럼 공중으로 다니는 기차, 문어다리, 꽃물레
같은것은 없습니다.
내가 앞으로 공원관리소 소장이 된다면 우리 마을 공원에 꽃물레도
세우고 전기자동차도 탈수 있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늘로 날아오를수 있는 인공지구위성도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원에 날마다 많은 사람들이 놀러 오게 하겠습니다.

- 잘못된 점을 찾고 글을 다듬어주세요.

❖ 학생이 생각한것을 가지고 공원에 대한 멋진 글을 지어보세요.

배운것을 다져보자요

1. 다음문장을 알림문, 물음문, 추김문, 시킴문으로 만들어보세요.

   공원에 가다

2. 다음표에 짐승들을 다룰 때 쓰는 말을 찾아쓰고 말해보세요.

짐승	다루는 말	짐승	다루는 말	짐승	다루는 말
소		돼지		고양이	
말		닭		개	

3. 빈자리에 《기》와 어울리는 말을 넣어 문장을 완성해보세요.

- 병아리를 보고 __________ 쫓아오던 족제비는 개가 나타나자 __________ 비실비실 뒤걸음을 쳤다.
- 동생이 __________ 울어대자 할머니는 __________ 혀를 찼고 아버지는 __________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다.

4. 《채찍질》처럼 단어뒤에 《질》이 붙은 단어들을 찾아보자요.

- □□질— 어떤 일을 나타낸것
- □질— 되풀이되는 동작이나 행동
- □□질— 일정한 직업이나 노릇
- □□질— 나쁜 행동

5. 본문을 글씨규범에 맞게 곱게 쓰세요.



꼭 새겨두자요

공원에 심은 꽃과 나무를 사랑하는 학생이 나라를 사랑하는 참된 사람으로 될수 있습니다.

단편소설

제18과
국 어 숙 제

손 형 호

일범이와 유성이는 책상에 마주앉아 국어숙제를 하고있었습니다.

일범이가 중얼중얼 소리내여 숙제문제를 읽었습니다.

《〈작은〉과 반대의 뜻을 나타내는 단어를 찾고 두 단어가 다 들어가게 짧은글을 지으시오.》



《〈큰!〉》 하고 유성이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이구, 귀야.》

일범이는 두손을 불에 덴듯 량쪽귀에 갖다대더니 다음과 같은 짧은글을 제꺽 지어냈습니다.

《나는 작은 소리로 숙제문제를 읽었는데 유성이는 내 귀청이 떨어지게 큰소리로 대답하였습니다.》

유성이는 뒤로 발랑 나동그라지며 깔깔 웃었습니다.

《체, 짧은글을 그렇게 지으라면 유치원애들도 짓겠다야. 뜻이 깊게 지어야 한단 말이야.》

《뜻? 그럼 한번 뜻이 깊게 지어보렴.》

유성이는 창문을 물끄러미 바라보더니 한참만에야 생각해냈습니다.

《우리는 지금 키가 작은 아이들이지만 이제 나라를 위한 큰 사람이

될 소년단원들입니다. 어때?》
《히야!》
일범이는 막 환성을 올리더니 서둘러 연필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제 연필이 아니라 유성이의 연필을 집어들었습니다. 몇자 벅벅 쓰더니 그제야 이상한듯 연필을 들여다봅니다.
《아이쿠, 바뀌였구나.》
《덤빈다구야. 그런데 내가 지은 글을 네가 쓰면 어쩌니?》
《그것도 바꾸자꾸나. 내가 지은걸 네가 쓰고…》
《안돼, 얼마나 힘들게 지은거라구.》
그러자 일범이는 방바닥이 꺼지게 한숨을 내쉬였습니다.
한참후에야 일범이는 연필을 끄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유성이가 건너다보니 그는 이렇게 지었습니다.
《유성이는 뜻이 큰 좋은 글을 지어냈는데 나는 뜻이 작은 글밖에 생각나지 않습니다.》
키득키득—

× ×

일범이가 돌아가자 시간표를 갈던 유성이는 그만 놀랐습니다. 맨처음 꺼낸 교과서뚜껑에 《신유성》이라는 이름대신 《장일》이라는 두 글자와 범대가리가 그려져있었던것입니다..
《아이쿠, 바뀌였구나. 이 더퍼리가 제 가방대신 내 가방을 가지고 갔어.》
유성이는 그만 화가 났습니다.
(늘 이런다니까.)
일범이네 집은 다섯층이나 더 올라가야 했습니다.
전화기앞으로 다가간 유성이는 번호판을 콕콕 찌르듯 눌러댔습니다.
《여보시오.》

일범이의 목소리가 나자 유성이는 꽥 소리를 질렀습니다.

《야, 이 더퍼리야. 네 가방을 좀 봐라.》

《가방은 왜?》

《글쎄 보라면 봐.》

송수화기를 탁자우에 내려놓는 소리가 때깍 울리더니 한참동안 아무 기척도 없었습니다.

《얘, 일범, 장일범학생, 장일범어린이!》

별의별 소리로 다 찾아보았으나 아무 대답도 없었습니다.

유성이가 속이 불뚝해서 송수화기를 탕 놓는데 부름종이 딸랑 울렸습니다.

일범이가 온것입니다.

《자, 내 가방을 주렴. 어쩜 이렇게 신통히도 같이 생겨가지고… 꼭 너와 나처럼 쌍둥이같다니까.》

《쌍둥이같기도 하겠다.》

유성이는 뒤를 따라 방으로 들어온 일범이의 손에 그 애의 가방을 홀쩍 집어주었습니다.

《래일 또 만나자. 안녕히.》

일범이는 히쭉 웃으며 말했습니다.

× ×

유성이는 안녕히 있을수가 없었습니다. 신발장우에서 낯선 신발을 발견한것입니다.

그는 또 전화번호판을 마구 두드려댔습니다.

《넌 전화를 거는거냐, 마스는거냐.》

재봉기를 돌리던 할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일범이말이예요. 가방을 바꿔가더니 이번엔 또 신발을 바꿔신고

갔어요.》

《호호호. 참 재미난 애로구나.》

유성이는 다시 풋고추마냥 푸르딩딩해져서 전화번호판을 두드려댔습니다.

계속 통화중입니다. 그는 더 참아내지 못하고 일범이의 신발을 신고 문밖으로 달려나갔습니다.

유성이가 일범이네 집에 올라가니 그 애는 팔걸이가 달린 푹신한 걸상에 아주 마음편히 앉아 그림책을 읽고있었습니다.

《오, 유성이! 너 심심해서 왔니? 나 보고싶어 왔니? 어서 앉아.》

《흥, 참.》

《아니, 너 왜 앉지 않고 그렇게 서있니?》

《이번엔 신발을 바꿔갔어. 그리구 저건 우정 내려놨지?》

유성이는 탁자우에 내려놓은 송수화기를 가리켰습니다. 일범이는 펄쩍 놀랐습니다.

《아니? 저게 언제… 오, 진짜. 아까 너와 가방때문에 전화하다가…》

유성이는 획 돌아서서 나오고말았습니다.

와당탕 퉁탕!

× ×

《장일범이 아니라 장더퍼리야. 장더퍼리. 1등더퍼리!》

유성이가 이렇게 푸릉거리는데 재봉기를 돌리던 할머니가 또 말씀하셨습니다.

《제 동무를 두고 그렇게 말하면 못 쓴다. 일범이야 좋은 애가 아니냐.》

《그렇지만 그 애때문에 내가 얼마나 수고했나요.》

《수고까지야 뭐. 한번은 일범이가 왔다갔구 한번은 네가 갔댔으니까 갈고갈구나 뭐.》

《체, 할머닌 그저 일범이편만 들면서…》

다르륵다르륵 울리는 재봉기소리와 함께 할머니의 타이름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쯧쯧… 넌 늘 봐야… 일범이가 용치. 그렇게 타발많은 널 그래도 동무라고… 전에 네가 앓을 땐 사과를 가지고왔댔지？》

(사과！)

생각났습니다. 이마가 불판처럼 되여 앓고있을 때 사과구럭을 둘러메고 눈이 커다래서 찾아왔던 일범이.

유성이는 그때 눈물까지 찔끔 짰습니다.

아, 나의 장일범, 정다운 내 동무, 그 언제나 영원할 나의 동무！…

고개를 드니 책상우의 사진이 눈에 띄였습니다. 소년단에 입단하던 날 유성이와 일범이가 어깨겯고 찍은 사진입니다. 일범이가 싱글벙글 웃고있었습니다.

(일범이, 저 앤 한번도 나를 싫어한적이 없었지. 동무가 많은 아이, 학급애들이 다 저 앨 좋아하지. 그러나 날 좋아하는 앤 일범이, 그밖엔? 무엇때문에?…)

《그렇게 타발많은 널 그래도 동무라고…》

할머니의 말씀이 귀에 쟁쟁했습니다.

유성이는 가볍게 한숨을 내쉬며 자리에서 일어나 랭동기문을 열었습니다. 마침 먹음직스러운 사과가 5～6알 있었습니다.

× ×

《아까 말이야. 내가 너무했어. 네가 더펄더펄한다구…》

일범이는 큼직한 사과를 들고 찾아와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는 유성이에게 《하하하.》즐겁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넌 참, 별걸 가지고 다 그러누나. 난 널 탓하지 않았어. 내가 더퍼리인거야 사실이거든. 하지만 난 네가 좋아. 공부 잘하지 짧은글도

잘 짓지.》

유성이는 코마루가 다 찡- 해졌습니다.

집에 돌아온 유성이는 새로 생각한 짧은글을 또박또박 국어숙제장에 박아썼습니다.

《동무의 작은 잘못을 탓하며 밀어던지면 큰 우정을 잃을수 있습니다.》

그러고나니 일범이가 짧은글을 더 잘 짓도록 도와주어야겠다는 생각이 났습니다.

《애, 일범이하고 또 뭘 바뀌였냐?》

할머니가 부랴부랴 신발을 찾아신는 유성이를 기웃이 내다보며 물었습니다.

《할머니도 참, 일범인 좋은 애예요.》

유성이는 일범이네 집으로 막 달려올라갔습니다.

다섯개 층을 단숨에!

바로 읽고 바로 쓰자요

❖ 다음단어들을 바로 읽고 쓰자요.

제껵, 덤빈다구야, 귀구멍, 바뀌였구나, 봐라,

코마루, 폭신폭신, 내려놨지, 별의별, 불뚝해서

❖ 다음문장에 읽기부호를 치고 살려읽어보자요.

ㄱ) 《〈큰!〉》 하고 유성이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이구, 귀야.》

ㄴ) 《제 동무를 두고 그렇게 말하면 못 쓴다. 일범이야 좋은 애가 아니냐.》

ㄷ) (일범이, 저 앤 한번도 나를 싫어한적이 없었지. 동무가 많은

아이, 학급애들이 다 저 앨 좋아하지. 그러나 날 좋아하는 앤 일범이, 그밖엔? 무엇때문에?…)

어려운 말을 풀어보자요

❖ 어울리는 말을 보면서 단어의 뜻을 알아보자요.

귀청 — 을 째다 / 이 떨어지다 / 을 찢다

화 — 가 동하다 / 가 나다 / 를 돋구다

❖ 단어 《**물끄러미**》에 맞는 행동을 해보고 그 뜻을 알아보자요.

❖ 그림을 보면서 **송수화기**가 전화할 때 어떤 일을 하는가 알아보자요.



❖ 본문에서 단어 《**타발**》, 《**쟁쟁하다**》, 《**탓하다**》가 들어간 문장을 찾고 그 뜻을 알아보자요.

❖ 다음문장을 보고 단어의 뜻을 알아보자요.

《그럼 할아버지, <u>수고하십시오</u>. 전화를 놓겠습…》

영남이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송수화기에서는 할아버지의 성난 목소리가 울려왔다.

《이녀석, 날보고 일을 더 많이 하기 위해 애쓰라고… 웃어른들에게 그렇게 말하면 못 쓴다.》

❖ 어떤 뜻으로 쓰이였을가요?

우정— ① 일부러.

② 동무들사이에 서로 사랑하고 도와주는 살뜰한 정.

내용을 알아내자요

❖ 글차례별내용을 말해보세요.

- 첫째 글차례

▶ 선생님이 내준 국어숙제는 무엇입니까?

▶ 일범이와 유성이는 짧은글을 어떻게 지었습니까?

- 둘째 글차례
  - ▶ 유성이는 일범이의 가방을 보자 어떻게 하였습니까?
  - ▶ 일범이는 유성이에게서 가방을 받으며 어떻게 행동하였습니까?
- 셋째 글차례
  - ▶ 유성이는 신발장에서 낯선 신발을 보자 어떻게 하였습니까?
  - ▶ 일범이는 집에 올라온 유성이를 어떻게 대해줍니까?
- 넷째 글차례
  - ▶ 할머니는 푸륵거리는 유성이를 어떻게 타일러주시였습니까?
  - ▶ 할머니의 말씀을 듣고 유성이는 무엇을 생각하였습니까?
- 다섯째 글차례
  - ▶ 큼직한 사과를 들고 일범이를 찾아온 유성이는 어떻게 잘못을 뉘우쳤습니까?
  - ▶ 집에 돌아온 유성이는 짧은글을 어떻게 지었습니까?

❖ 본문을 배우고 느낀 점을 세 문장으로 말해보세요.

재미있게, 조리있게 말해보자요

❖ 본문에서 유성이와 일범이가 전화를 주고받는 장면을 찾아 읽고 다음물음에 대답해보세요.

- 유성이는 일범이에게 전화를 어떻게 하였습니까?
- 일범이는 전화를 어떻게 받았습니까?
- 두 동무의 전화말과 전화리용에서 잘못된 점은 무엇입니까?
- 유성이와 일범이가 전화를 옳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가요? 유성이와 일범이가 되여 전화말을 주고받으세요.

❖ 다음의 내용으로 동무들과 전화를 해보세요.

- 래일 아침 9시부터 꽃밭가꾸기하러 학교에 나오라는 지시를 전달하는 전화
- 오후에 도서관에 가자고 약속하는 전화

멋진 글을 지어보자요

❖ 학생에게도 친한 동무가 있겠지요? 그 동무의 좋은 점을 쓰세요.

❖ 학생과 동무사이에 있었던 여러가지 일중에서 제일 잊을수 없는 이야기를 가지고 글을 지으세요.

- 제목을 달고 10개 문장이상의 글을 지으세요.
- 문장부호(《 》, ( ), ，, ?, !, ～, …)가 다 들어가게 지어야 합니다.

문장부호

▶ 괄호(( ))— 속생각을 나타낼 때나 설명하는 말의 앞뒤에 칩니다.
  례 : (아버지가 오셨을가?)
  그(새로 전학온 아이)는 이렇게 말하였다.

▶ 반점(，)— 남을 부르는 말의 뒤에 치기도 하고 비슷한 말을 토 없이 차례로 쓸 때에도 칩니다.
  례: 《얘, 일범, 장일범, 장일범학생, 장일범어린이!》

▶ 느낌표(!)— 느낌의 뜻을 나타낼 때 칩니다.
  례: 그 언제나 영원할 나의 동무!

▶ 물결표(～)— 《내지》라는 뜻을 나타낼 때 두 대상의 사이에 칩니다.
  례: 사과 5～6알

▶ 줄임표(…)— 말마디나 글줄을 줄였을 때 칩니다.
  례 : 《어쩜 이렇게 신통히도 같이 생겨가지고…》

배운것을 다져보자요

1. 본문을 속으로 읽어보세요. 매 단어, 매 문장에 주의를 돌리면서 빠짐없이 읽어야 합니다.
2. 다음문장에 문장부호를 알맞게 치세요.

   야 정말 멋있게 지었는데 그런데 난 유성이가 지은 짧은글을 보며 이렇게 생각하던 일범이의 머리에 갑자기 2 3개의 멋진 문장이 떠올랐습니다.

3. 다음단어들의 뜻반대말을 찾고 두 단어를 넣어 짧은글을 지으세요.

   칭찬, 길다

4. 전화할 때 지켜야 할 례절을 말해보세요.



꼭 새겨두자요

동무의 작은 잘못을 탓하며 밀어던지면 큰 우정을 잃을수 있습니다.

다시한번 익혀보자요

(13과—18과)

1. 다음단어들을 받아쓰고 합친말에 밑줄을 그으세요.

   백전백승, 먹겠다더니, 뜻깊은, 출입문, 검열맞혔습니다, 불그락푸르락, 돼지멱따는, 오막살이, 귀구멍, 갖다대더니, 별의별, 열바퀴, 꽃다발

2. □안에 합친모음글자를 써넣으세요.

   □끼, □토리, □반, □랑□랑, 지저□는, 곱□, □날, 지□, □상하다, □망, □히, □지, □청, □성, 바□다, 노□, 사□, 수□기

3. 웃는 모양을 나타내는 단어를 5개이상 찾으세요.

   례 : 방긋

4. 다음단어들의 뜻을 말하고 한 문장안에 넣어 짧은글을 지으세요.

   〈 반드시 / 반듯이　　〈 비키다 / 비끼다　　〈 길다 / 긷다

5. 다음문장을 읽고 토붙은말, 줄어든말, 문장부호, 존경토, 알림문, 물음문, 느낌문을 찾아보세요.

   (일범이, 저 앤 한번도 나를 싫어한적이 없었지. 동무가 많은 아이! 학급애들이 다 저 앨 좋아하지. 그러나 날 좋아하는 앤 1~2명이나 될가? 그밖엔? 무엇때문에…) 이런 생각을 하는 유성이의 귀에 할머니가 하신 말씀이 쟁쟁하게 울려왔습니다.

6. 제자리에 놓이지 못한 단어들을 찾고 문장을 바로 고치세요.

   ㄱ) 점심은 대구에서 흙탕을 먹겠다던 미국놈들이 평양에서 실컷 먹고 천당에 갔습니다.

   ㄴ) 욕심쟁이령감은 갑자기 비가 내려 할수없이 오막살이에 들어갔지만 나무군할아버지는 비내리는 날을 기다리다가 오막살이에 찾아갔습니다.

7. 다음물음에 대답하세요.

ㄱ) 미국놈들은 어떻게 쫄딱 녹아났습니까?

ㄴ) 비판의 좋은 점은 무엇입니까?

ㄷ)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는 조국의 품을 어떻게 노래하시였습니까?

ㄹ) 《혹뗀 이야기》는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줍니까?

ㅁ) 동무의 작은 잘못을 탓하며 밀어던지면 어떻게 됩니까?

ㅂ) 왜 공원의 꽃과 나무를 사랑해야 합니까?

8. 속담, 수수께끼

❖ 속담의 뜻을 익히고 이 속담을 넣어 짧은글을 지어보세요.

- 고양이앞의 쥐— 힘이 센 사람앞에서 꼼짝 못하는것을 이르는 말.
- 남잡이가 제잡이— 남을 해치려다가 자기자신이 해를 입는다는 말.
- 욕심이 곰의 발바닥같다— 욕심이 끝이 없게 많음을 이르는 말.
- 개밥에 도토리— 남들과 어울리지 못하고 외토리로 된 사람.
- 꿀도 약이라면 쓰다— 자기에게 리롭고 도움이 되는것도 권하면 잘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 경우를 이르는 말.

❖ 수수께끼

- 둘이 말하고 둘이 듣는것이 무엇일가요?
- 쓰면 쓸수록 좋아지는것이 무엇일가요?
- 제일 달기도 하고 제일 쓰기도 한것이 무엇일가요?

9. 알아맞춰보세요.

어느 한 동산에서 토끼, 범, 사자, 승냥이가 큰것을 먹을내기 말경기를 하게 되였습니다.

제일 먼저 범이 《난 이 지구를 단숨에 먹어버릴테야.》라고 말했습니다. 이번에는 사자가 《난 해를 먹겠어.》라고 말하자 승냥이도 《그러면 나는 별과 달을 먹겠어.》라고 말했습니다. 마지막에 토끼가 말했는데 결국 이 경기에서는 토끼가 이겼습니다.

토끼는 어떻게 말했을가요?

이야기

제19과
하늘소를 팔러 가던 이야기

서늘한 가을바람이 불어오는 어느날이였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하늘소를 팔려고 길을 떠났습니다. 하늘소를 끌고 장마당으로 가는 그들의 마음은 흐뭇하였습니다.

고삐를 쥔 아버지가 앞에 서고 아들이 뒤에서 채찍을 휘두르며 들판을 지날 때였습니다. 가을을 하던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하며 비웃었습니다.

《저런 멍텅구리들을 좀 보게. 둘중의 한사람은 타도 되겠는데 하늘소를 그냥 끌고가다니…》

아버지는 그들의 말이 옳은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아들을 얼른 하늘소잔등에 올려태웠습니다.

(벌써 이렇게 했을걸…)

아버지는 신이 나서 고삐를 끌었습니다. 그들이 얼마쯤 갔을 때였습니다.

느티나무아래에 모여앉아 이야기를 나누던 로인들이 얼굴을 붉히며 욕을 퍼부었습니다.

《아버지를 걸어가게 하고 아들놈이 버젓이 타고가다니… 불효막심한 놈, 례절도 없지.》

아버지는 로인들의 꾸중이 옳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번엔 아들을 내리게 하고 자기가 하늘소에 올라탔습니다.

그들이 언덕을 넘어 마을어구에 들어섰을 때였습니다. 우물가에 모여섰던 아낙네들이 또 한마디씩 하였습니다.

《아니, 저런 변 봤나. 어른은 편히 앉아가고 어린것을 걷게 하다니…》

아낙네들의 말을 듣고보니 또 그 말이 옳은것 같았습니다.

아버지는 하늘소를 세우고 아들을 앞에 태웠습니다.

《음, 진작 이렇게 할걸… 쩌— 가자.》

아버지는 하늘소의 배를 차며 길을 재촉하였습니다.

그들이 마을을 지나 장마당으로 들어가는 강가에 이르렀을 때였습니다. 대장쟁이가 어깨에 농쟁기를 메고 마주오다가 하늘소의 앞을 막아서며 웨치듯 말하였습니다.

《여보, 정신있소? 하늘소가 불쌍하지도 않소? 조그마한 잔등에 둘씩이나 올라타다니… 차라리 하늘소를 떠메고 가는편이 낫겠소.》

아버지는 놀라서 하늘소를 내려다보았습니다. 하늘소는 당장 쓰러질듯이 입에 거품을 물고 헐떡거리고있었습니다.

《이거 안되겠군. 얘야, 어서 내리자.》

아버지는 대장쟁이의 말대로 하늘소를 메고 가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늘소의 네발굽을 한데 묶고 긴 장대에 꿰여 어깨에 메였습니다. 이제 다리만 건느면 장마당입니다.



이들이 다리 한가운데 들어섰는데 하늘소가 갑자기 요동을 쳤습니다.

그래서 장대가 뚝 부러지며 하늘소는 그만 강물에 첨벙 떨어지고말았습니다. 네발굽을 꽁꽁 묶이운 하늘소는 강물속에서 더는 솟구치지 못하였습니다.

남의 말만 듣던 미련한 그들은 하늘소를 아깝게도 강물에 처넣고말았습니다.

(외국작품)

바로 읽고 바로 쓰자요

❖ 밑줄을 친 글자발음에 주의를 돌리면서 바로 읽고 쓰자요.

고뻬, 줜, 휘두르며, 례절, 어깨에, 웬치듯, 묶이운, 손가락질, 둘중에, 옳은것, 마을어구, 낫겠소, 쓰러질듯, 꿰여, 아깝게도

❖ 본문에 나오는 대화들을 살려읽어보세요.

어려운 말을 풀어보자요

❖ 합친말을 이루는 매 단어를 통하여 그 뜻을 알아보자요.

불효막심
- 불효— 부모를 잘 돌보지 않는것.
- 막심— 아주 못된 마음.

대장쟁이
- 대장— 호미나 낫 같은것을 벼리는 일 또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
- 쟁이— 어떤 일을 잘하는 사람이거나 그 사람을 대수롭지 않게 이르는 말.

❖ 그림을 보면서 알아보자요.

느티나무



❖ 맞는 뜻에 줄을 그어보자요.

변	있는 힘을 다하여 몸부림치는것
요동	보통일에서 벗어난 일
미련하다	흉을 보며 웃다
비웃다	어리석고 둔하다

내용을 알아내자요

❖ 표에 알맞는 내용을 쓰고 글차례를 말해보세요.

누가	어떻게 말했는가?	아버지는 어떻게 했는가?
가을하던 사람들		
로인들		
아낙네들		
대장쟁이		

❖ 하늘소를 왜 강물에 처넣게 되였습니까?

❖ 본문에서 보여주려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 본문을 배우고 무엇을 느꼈습니까?

재미있게, 조리있게 말해보자요

❖ 아버지와 아들이 하늘소를 장마당으로 무사히 끌고가자면 어떻게 해야 했을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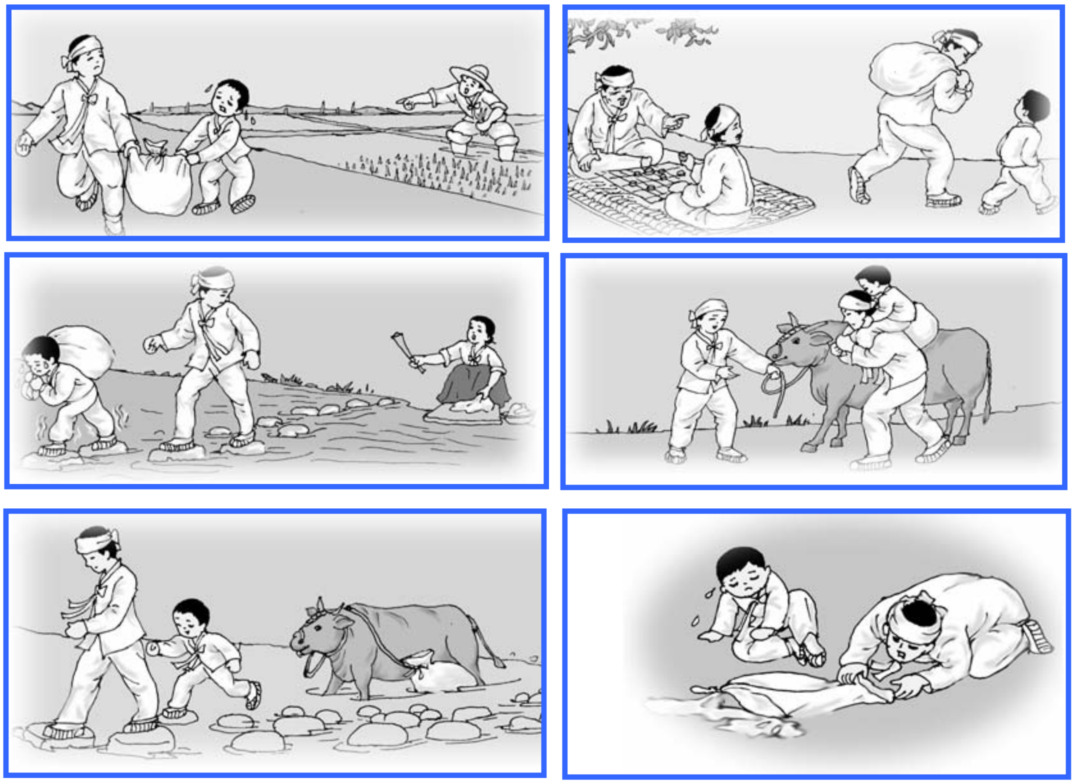
❖ 하늘소를 강물에 처넣은 다음 아버지와 아들은 어떤 말을 하였을가요? 상상하여 말해보세요.

❖ 하늘소를 강물에 빠뜨린것은 누구때문일가요? 가을하던 사람들, 로인들, 아낙네들, 대장쟁이, 아니면? 왜 그럴가요?

❖ 학생도 남의 말을 무턱대고 들은탓에 일을 망친 때가 있었는지요? 언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자세히 말해보세요.

멋진 글을 지어보자요

아버지와 아들이 소금자루를 날라가는 련속그림을 보고 글을 지어봅시다.



배운것을 다져보자요

1. 옳게 쓴 단어에 《○》를 치고 곱게 쓰세요.

서느란 / 서늘한	흐뭇하였습니다 / 흐믓하였습니다	불키며 / 붉히며	불효막심 / 부료막씸
올타고 / 옳다고	봤나 / 봤나	거품 / 거픔	미련한 / 미련안

2. 다음단어들의 뜻을 말하고 짧은글을 지으세요.

비웃다, 불효막심, 요동, 미련하다

3. □안에 알맞는 말을 찾아 써넣으세요.

ㄱ) □ □ □ → 가을바람이 불어오는 어느날이였습니다.

ㄴ) 아버지를 걸어가게 하고 아들놈이 ← □ □ □ → 타고가다니…

ㄷ) 남의 말을 듣던 ← □ □ □ → 그들은 하늘소를 강물에 처넣고말았습니다.

4. 다음속담의 뜻을 알아보세요.

ㄱ) 미련하기는 곰이다.

ㄴ) 소금섬을 물로 끌겠다.



꼭 새겨두자요

제 정신없이 남의 말만 듣다가는 일을 망치게 됩니다.

이야기

제20과

아동단원 김금순소녀의 최후



해가 지자 골목길은 어느새 어둑시근했다.

조직에서 준 련락임무를 수행하고 돌아오는 금순이의 마음은 풍선마냥 부풀어올랐고 발걸음은 날듯이 가벼웠다.

그는 골목길을 빠져 큰거리로 나섰다.

그가 얼마쯤 갔을 때였다. 앞에서 일제헌병놈이 마주오고있었다.

금순이는 얼른 그놈을 스쳐지나려 했다. 그런데 헌병놈이 옆으로 홱 돌아서며 금순이의 팔을 잡아챘다.

《가자.》

《왜 그래요?》

《야, 잔말말구 가자.》

헌병놈은 무작정 금순이를 끌고 장교놈이 있는데로 갔다.

장교놈은 자기앞에 서있는 소녀가 아홉살밖에 안되는 어린애라는것을 느꼈는지 느슨한 미소를 지으며 물었다.

《어디서 살지?》

《이 거리에 살아요.》

《거짓말을 하면 나쁜 애야.》

장교놈은 밀정놈을 통해 금순이가 유격구에서 왔다는것을 미리 알고있었던것이다. 아마 놈들은 금순이가 사령부가 자리잡고있는 야오잉거우(요영구)에서 왔다는 사실까지도 다 알아낸것 같았다.

《먼길을 온것 같은데… 너 어디로 왔지?》

장교놈은 금순이를 얼리면서 사령부의 비밀을 알아내려고 하였다.

《지칭령(길청령)을 넘어왔어요.》

《바른대로 말해. 비밀통로를 대란 말이다. 네가 말하지 않아도 우린 다 알고있어.》

장교놈은 턱수염을 슬슬 쓸며 으름장을 놓았다.

《다 알면서 왜 물어요?》

《뭐야?!》

악에 받친 장교놈은 움켜쥔 주먹으로 책상을 쾅 내리쳤다. 때를 같이하여 헌병놈이 채찍으로 금순이의 종아리를 후려쳤다. 종아리에서 살점이 뜯겨나고 피가 흘렀다.

《이래도 말 안할테냐?》

헌병놈이 피에 주린 승냥이같이 덤벼치며 지껄였다.

《너같은 강도놈들과는 말하지 않겠다.》

금순이는 장교놈을 쏘아보며 맵짜게 대답했다. 헌병놈이 또 달려들어 금순이의 뺨을 치고 발로 허리를 걷어찼다. 금순이는 쓰러진채 취조실로 끌려갔다. 금순이가 눈을 떴을 때 취조실에는 아무도 없었다. 그는 몸을 움직여보았다. 온몸이 바늘로 쑤시듯 아파났다.

금순이는 가까스로 한손을 들어 가슴에 늘 품고다니던 얼레빗을 꺼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장군님께서 주신 빗이였다. 금순이는 저도 모르게 눈물이 핑 돌았다.

(장군님께서는 지금 어디에 계실가? 베이만(북만)으로 떠난다고 하셨지… 장군님! 금순이는 련락임무를 수행했습니다.)

금순이는 경애하는 장군님이 그립고 유격구가 그리웠다.

금순이가 마촌에 와서 제일 처음 만나뵈온분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장군님이시였다.

그때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먼길을 오느라고 수고했다 하시며 큰 령이랑 많았겠는데 넘기가 힘들지 않더냐고 다정하게 물어주시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어려운 싸움을 하고 돌아오실 때마다 아동단

원들부터 찾아주시였다. 어느날 유희대공연을 할 때에는 잘한다고 제일먼저 박수도 쳐주시고 중국음식인 교즈도 해주도록 하시였다. 그리고 헤여질 때에는 금순이의 손에 이 얼레빗을 쥐여주시였다.

《장군님, 고맙습니다.》

생각할수록 가슴뜨거워 금순이는 흐느껴울었다.

이때 헌병놈들이 나타났다.

그 어떤 고문으로도 금순이를 굴복시킬수 없게 되자 그의 생명을 끊어버리려는것이였다.

(장군님의 딸답게 최후를 마치자.)

금순이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얼레빗으로 조용히 머리를 빗었다.

《빨리 나와!》

헌병놈들은 금순이를 앞세우고 사형장으로 향했다.

금순이의 옷은 갈기갈기 찢기고 온몸은 피로 얼룩졌다. 그러나 금순이의 얼굴에는 승리자의 미소가 어리여있었다. 사형장으로 가는 아홉살 난 금순이를 보고 사람들은 모두다 이를 갈며 치를 떨었다.

금순이는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자기를 동정하고 불쌍히 여기는 아버지, 어머니, 언니, 오빠들을 향하여 웨쳤다.



《아버지, 어머니들, 왜 우십니까.

울지들 마세요. 혁명군아저씨들이 꼭 원쑤를 쳐없앱니다. 조국이 해방되는 날

까지 굳세게 싸워주십시오!》

불을 토하는것 같은 금순이의 웨침에 놈들은 기겁하여 물러섰다. 뒤이어 어지러운 총소리가 울렸다.

《일제놈들을 타도하라!》

《조선혁명 만세!》

힘차게 부르짖는 금순이의 애된 목소리가 멀리멀리 울려갔다.

금순이는 꽁다리연필처럼 짤막한 생애를 살았지만 9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산모범으로 똑똑히 가르쳐준 영생의 꽃이였다.

바로 읽고 바로 쓰자요

❖ 다음단어들을 바로 읽고 쓰자요.

얼마쯤, 취조실, 으름장을, 뜯겨나고, 가까스로, 찢기고, 거짓말

❖ 참된 아동단원 금순이의 모습을 생각하며 본문을 새겨읽어보자요.

어려운 말을 풀어보자요

❖ 문장속에서 단어의 뜻을 알아보자요.

- 항일무장투쟁시기 일제놈들은 경애하는 **김일성**대원수님의 존함만 들어도 기겁하여 벌벌 떨었다.
- 아동단원 금순이는 원쑤놈들의 악착한 고문에도 굴복하지 않고 조직의 비밀을 끝까지 지켜냈다.

❖ 어울리는 말에 줄을 긋고 단어의 뜻을 알아보자요.

주위가	바라다
무작정	**어둑시근하다**
으름장을	요구하다
동정을	놓다

내용을 알아내자요

❖ 금순이는 어떤 소녀인가를 알아봅시다.

- 금순이는 어디로 갔다오는 길에 일제헌병놈과 마주쳤습니까?
- 금순이는 놈들에게 왜 거짓말을 했습니까?
- 금순이는 일제놈들의 고문에 어떻게 맞서 싸웠습니까?
- 금순이는 얼레빗을 보며 무엇을 생각하였습니까?
- 금순이는 사형장으로 끌려나가면서 어떻게 마음다지였습니까?
- 금순이는 사형장에서 어떻게 웨쳤습니까?

❖ 본문의 내용을 말해보자요.

멋진 글을 지어보자요

본문을 읽고 느낀 감정을 일기로 써봅시다.

곱게 쓰자요

❖ 본보기글을 빨리 그리고 곱게 받아써보자요.

《너같은 강도놈들과는 말하지 않겠다.》 금순이의 옷은 갈기갈기 찢기고 온몸은 피로 얼룩졌다.

❖ 금순이가 경애하는 **김일성**장군님을 그리는 대목을 받아쓰자요.

배운것을 다져보자요

1. 다음단어들에 필요한 토를 붙여서 문장을 만들어보세요.

   옷, 어려있다, 금순이, 얼굴, 갈기갈기, 피, 온몸, 미소, 얼룩졌다, 승리자, 찢기다

2. 단어 《령》에는 어떤 뜻이 있을가요? 3개이상 찾아보세요.
3. 단어 《굴복하다》의 뜻반대말을 찾고 두 단어가 들어가게 짧은글을 지으세요.
4. 아동단원 김금순소녀는 9살에 최후를 마쳤는데 왜 영원히 살아있다고 할가요?

꼭 새겨두자요



경애하는 **김일성**대원수님의 안녕을 지켜 용감히 싸운 아동단원 김금순소녀는 9살의 영웅으로 영원히 살아있습니다.

아동극

제21과

함정에 빠진 호랑이



때: 저녁

곳: 깊은 산골짝

나오는 짐승들: 호랑이, 사슴, 토끼, 승냥이, 여우

무대: 나무가 우거진 깊은 산골짝, 낮은 언덕앞으로 잔디밭이 펼쳐졌다.

막이 오르면

△ 멀리서《으흥!》하는 호랑이 울음소리가 들려오더니 한참만에 큰 나무뒤에서 호랑이가 불쑥 나타난다.

호랑이: 으흥! 저녁때가 다 돼오니 출출하구나. (두리번거리다가) 옳지, 저기 사슴놈이 오는군.

△ 호랑이 쏜살같이 달려가려다가 그만 함정에 푹 빠진다.

△ 함정속에서 호랑이의 신음소리 들려온다.

△ 사슴이 나온다.

사슴: 애들이 무척 기다리겠군! 뭘 좀 따가지고 가야 할텐데… 옳지, 저기 나무열매가 있군.

호랑이: (소리) 여보 사슴님! 날 좀 살려주십시오.

사슴: (깜짝 놀라 뒤걸음질치다가 함정에 다가간다.) 당신은 호랑이가 아니예요? 당신을 도와줄수 없어요. 당신은 함정에서 나오기만 하면 나를 잡아먹을거야요.

호랑이: (소리) 아니 그럴리가 있습니까? 잡아먹다니! 나를 살려주십시오. 사슴님의 은혜를 죽어도 잊지 않겠습니다.

사슴: 당신은 얼마전에 내 이웃에 사는 우리 동무를 물어갔어요. 당신을 믿을수가 없어요.

호랑이: (소리) 한번만 살려주십시오. 내가 여기서 죽으면 내 어린 새끼들

은 어떻게 합니까? 당신자식들 생각해서라도 한번만 살려주십시오.

사슴: (잠시 돌아서서 고개를 기웃거린다.) 어린것들이 불쌍하지…

△ 사슴 두리번거리다가 긴 막대기를 얻어 함정에 들여보낸다.

△ 호랑이 사슴의 도움으로 겨우 함정에서 빠져나온다.

호랑이: 후유—

사슴: 자, 어서 가십시오. 어린것들이 기다릴텐데.

호랑이: 가야지, 허지만 배고프고 맥이 빠져 못 가겠소.

사슴: 그럼 저 나무열매라도 잡수시죠?

호랑이: 싫소. 난 그런건 입에 대지도 않소. 날고기래야 먹소.

사슴: 그럼 어떻게 해요. 날고기가 어디 있어야지요?

호랑이: 흥, 날고기가 왜 없단 말이냐? 넌 날고기가 아니고 삶은 고기라더냐? 으흥!

사슴: 뭐?! 그럼 나를 잡아먹겠단 말이요? 그런 법이 어디 있소? 또 방금 뭐라고 말했소? 누가 당신을 구원해주었나요?

호랑이: 누가 구원해주었건 그건 벌써 지나간 일이야. 나는 먹지 않고는 배가 고파 견딜수 없단 말이야.

사슴: 이런 법이 어디 있어요? 자기를 살려준 은인을 잡아먹는 법이 어디 있어요? 아무에게라도 물어보세요.

호랑이: 내가 먹고싶어서 잡아먹는데 법은 무슨 법이야.

사슴: 저기 누가 옵니다. 한번 물어보세요.

△ 승냥이가 어슬렁어슬렁 나온다.

사슴: 승냥이아저씨, 글쎄 호랑이가 함정에 빠져서 나보고 살려달라기에 건져주었더니 오히려 날 잡아먹겠답니다. 이런 법도 있나요?

승냥이: 배가 고프면 아무것이든 잡아먹어야지. 약한 놈은 잡혀먹히기마련이야. 흐흐…

△ 승냥이 거들먹거리며 나간다.

호랑이: 자, 봐라, 아직도 잔말이냐? 이젠 잡아먹을테다.

사슴: 잠간만, 저기 또 누가 옵니다. 한번 더 물어봅시다.

△ 여우가 종종걸음으로 나온다.

사슴: 저 이걸 좀 보세요. 자기를 살려주었는데 고맙다고 인사하기는커녕 잡아먹겠대요. 이런 법도 있어요?

여우: (눈치를 살피다가) 그럴수도 있지. 그렇지요? 호랑이님.

호랑이: 암! 그렇구말구.

여우: 그럼 두분이 좋도록 하세요. 난 갈길이 바빠서 먼저… 호호…

△ 여우 살짝 빠져 달아난다.

호랑이: 다 물어봤으니까 자, 이젠 너를 잡아먹어야겠다. (으르릉거리며 아가리를 벌린다.)

△ 이때 토끼가 지나가다가 호랑이와 사슴을 보고 놀라서 멈춰선다.

사슴: 아니 잠간만, 호랑이님, 토끼보고 한번만 더 물어봅시다. 누가 옳은가.

호랑이: 정 그렇다면 더 물어봐라.

사슴: 토끼야, 저 함정에 빠진 호랑이를 내가 살려주었는데 오히려 날 잡아먹겠다누나.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디 있니?

토끼: (두귀를 쫑긋거리며 생각에 잠겼다가) 잘 모르겠다. 네가 어떻게 호랑이님을 도와드릴수 있었겠니? 내 생각엔 호랑이님이 자기 힘으로 나온것만 같구나. 그렇지요? 호랑이님.

호랑이: 암, 그렇구말구. 긴 막대기를 타고 내 힘으로 올라왔다.

사슴: 안야, 아니란다, 막대기도 그리고 또…

토끼: 이거 말만 들어선 어디 알겠어요? 그러니 호랑이님이 빠졌던 함정에 가봅시다.

호랑이: 갈테면 가보자. (먼저 함정 있는데로 걸어간다.)

토끼: (그뒤를 따라가며) 그래 호랑이님이 처음 저속에 있었나요?

호랑이: 그렇다.

토끼: 잘 모르겠군요. 호랑이님, 어떻게 하고있었나요?

호랑이: 참 답답한 놈이군. 그럼 똑똑히 봐라. (호랑이 함정속에 훌쩍 뛰여들어간다.) 이렇게 앉아있었다.

토끼: 잘 알았어요. 이젠 도로 나오세요.

호랑이: (소리) 얘 사슴아, 그 막대기를 내려보내!

사슴: 막대기를? 싫다!

호랑이: (소리) 뭐? 싫다구. 너 이놈, 어디 보자. 그럼 토끼야, 네가 내려보내주렴.

토끼: 안돼, 날 잡아먹으라구.

호랑이: (소리) 너야 착한 토낀데 그럴리 있나. 어서 내려보내다오.



토끼: 뭐?! 착한 토끼, 흥! 남을 해치고 약한자를 잡아먹는 네놈의 본성을 알고서야 또 살려줘? 어림도 없다!

사슴: 그래 가자!

호랑이: (소리) 이놈들 뭐 어찌고어째? 날 꺼내주지 않으면 다 잡아먹고말테다!

토끼: 호호… 잡아먹어봐라. 사슴아, 어서 가자!

△ 토끼와 사슴 그 자리를 떠난다.

호랑이: (소리) 으흥! 이놈들 날 속였구나, 으흥! 아이구— 날 좀 살려주우—

— 호랑이의 신음소리를 누르며 토끼와 사슴의 웃음소리 높아질 때 막이 내린다.

바로 읽고 바로 쓰자요

❖ 다음표를 보고 짐승들의 역을 말아 읽어보세요.

짐승	성질	목소리
사슴	착하고 순하다	맑은소리
호랑이	포악하고 사납다	굵은소리
승냥이	포악하고 교활하다	거칠고 굵은소리
여우	교활하다	가는소리
토끼	착하고 령리하다	맑고 또랑또랑한 소리

❖ 다음단어들을 바로 읽고 쓰자요.

뒤걸음, 잊지 않겠습니다, 잠간만, 출출하다, 답답한, 싫다구

어려운 말을 풀어보자요

❖ 맞는 뜻에 줄을 그어보자요.

출출하다	미울 정도로 거만하게 행동하다
거들먹거리다	도저히 해낼수 없다
해치다	배가 고프다
어림없다	죽이다

❖ 뜻같은말에 줄을 긋고 단어의 뜻을 알아보자요.

은혜	생고기
날고기	본질
본성	은덕

❖ 문장속에서 단어의 뜻을 알아보자요.

- 승냥이가 <u>어슬렁어슬렁</u> 나온다.
- 여우가 <u>종종걸음</u>으로 나온다.

내용을 알아내자요

❖ 본문의 글차례에 맞게 빈칸에 알맞는 내용을 써넣으세요.

차례	내용
1	사슴을 잡아먹으려다가 함정에 빠지는 호랑이
2	사슴의 도움으로 함정에서 나오는 호랑이
3	호랑이
4	호랑이편을 드는 승냥이
5	여우
6	호랑이

❖ 본문의 내용을 말해보세요.

❖ 본문을 배우고 느낀 점을 세 문장으로 말해보세요.

재미있게, 조리있게 말해보자요

❖ 호랑이는 자기를 구원해준 사슴을 잡아먹겠다고 합니다. 이것을 통하여 무엇을 알수 있습니까?

❖ 승냥이와 여우는 왜 호랑이의 편을 듭니까? 이것을 통하여 무엇을 알수 있습니까?

❖ 토끼는 호랑이를 어떻게 함정속으로 끌고갑니까?
이것을 통하여 토끼는 어떤 짐승이라는것을 알수 있습니까?

❖ 사슴의 행동을 보면서 학생은 무엇을 생각하게 됩니까?

❖ 호랑이, 승냥이와 같이 약한자를 해치는 놈은 어느 놈들이라고 생각합니까?

멋진 글을 지어보자요

호랑이가 토끼의 꾀에 넘어가 함정에 다시 빠지는 내용으로 이야기글을 지어봅시다.

❖ 토끼가 지나가다가 사슴과 호랑이를 보고 멈춰서는것으로부터 시작하여 마지막까지 이야기순서에 따라 쓰세요.

❖ 대화를 꼭 넣어야 합니다.

배운것을 다져보자요

1. 본문에 나오는 짐승의 역을 맡아서 말과 행동으로 해보세요.
2. [ ] 안에 알맞는 말을 넣어 문장을 만드세요.

ㄱ) [ ] [ ] [ ] [종종걸음으로] [ ]

ㄴ) [ ] [두리번거리며] [ ] [ ]

ㄷ) [ ] [ ] [ ] [해치는] [ ] [ ]

3. 다음단어들의 뜻을 말하고 두 단어를 넣어 두개 문장으로 된 짧은 글을 지으세요.

출출하다— 어슬렁어슬렁, 거들먹거리다— 본성

4. 본문에 나오는 사슴과 토끼의 행동에서 같은 점과 다른 점은 무엇입니까?
5. 본문에서 호랑이의 본성을 나타낸 말을 찾아 글씨규범에 맞게 곱게 쓰세요.



꼭 새겨두자요

은인도 모르고 남을 해치기 잘하는 놈은 반드시 망하고야맙니다.

동요

제22과

나의 동생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 친히 지으신 동요)

가을이 왔어요 서늘한 가을
공부하기 참 좋은 풍요한 가을
산과 들엔 오곡이 무르익고요
내 동생은 최우등열매 딴대요

선들바람 불어오는 깊은 밤에도
사랑하는 내 동생 책을 읽어요
아버지원수님께 기쁨드리려
밤가는줄 모르고 책을 읽어요

창가에서 공부하는 동생의 모습
내 마음도 뜨겁게 불타게 해요
어서 커서 배워서 큰 일군 되여
아버지원수님 받들어가자

바로 읽고 바로 쓰자요

❖ 다음단어들을 바로 읽고 쓰자요.

풍요한, 가을, 왔어요, 서늘한, 최우등열매, 딴대요, 불어오는, 읽어요, 선들바람, 밤가는줄, 창가, 뜨겁게, 일군, 받들어

어려운 말을 풀어보자요

❖ 매 글자나 단어를 통하여 그 뜻을 알아보자요.

오곡 — 오— 다섯가지 / 곡— 곡식

선들바람 — 선들— 서늘한 / 바람

❖ 어울리는 말을 보면서 단어의 뜻을 알아보자요.

풍요한 — 가을 / 대지 / 살림살이

오곡이 / 기회가 / 우정이 — **무르익다**

내용을 알아내자요

❖ 련별내용을 알아봅시다.

- 풍요한 가을에 동생은 무엇을 딴다고 하였습니까?
- 선들바람이 불어오는 깊은 밤에 동생은 왜 책을 읽는다고 하였습니까?
- 어리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창가에서 공부하는 동생의 모습을 보시며 어떤 맹세를 다지시였습니까?

❖ 동요의 내용을 말해봅시다.

재미있게, 조리있게 말해보자요

최우등생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해 말해봅시다.

❖ 평양상흥소학교 3학년 5반 동무들은 이렇게 말했어요.

- 최청림

  《최우등생이 되려면 공부시간에 선생님의 설명을 귀담아듣고 모를것이 있으면 물어서 꼭 알고 넘어가야 합니다.》

- 정하경

  《그날 숙제는 그날로 꼭꼭 하고 다음날 배울 공부도 미리 해야 합니다.》

- 오강국

  《언제나 손에서 책을 놓지 말고 시간을 아껴가며 열심히 책을 읽어야 합니다.》

❖ 이 동무들의 말대로 하면 최우등생이 될수 있을가요? 학생의 생각을 보충하여 최우등생이 되기 위한 길을 차근차근 말해보세요.

멋진 글을 지어보자요

동생의 모습을 글에 담아봅시다.

❖ 제목을 생각해보세요.

❖ 글감을 생각해보세요.

- 동생은 어떻게 생겼습니까?
- 동생은 어떤 착한 일을 합니까?
- 어떤 때 제일 귀엽습니까?
- 동생의 모습에서 학생은 무엇을 생각하게 됩니까?

❖ 대화가 들어간 이야기글을 지으세요.

배운것을 다져보자요

1. 동요의 매 련에 읽기부호를 치고 살려읊어보세요.
2. 다음단어들을 이어 문장을 만들어보세요.

    길은, 밤, 기뻠드리다, 선들바람, 책, 내, 동생, 불어오다, 밤가는줄, 모르다, 읽다, 아버지원수님

3. 다음단어들의 뜻을 말하고 두 단어를 넣어 두개 문장으로 된 짧은글을 지어보세요.

    풍요하다 — 오곡, 선들바람 — 열매

4. 《동생》처럼 두 글자로 되여있으면서 매 글자 받침이 《ㅇ》으로 된 단어를 10개 찾아보세요.
5. 이 동요의 3련을 외워서 곱게 써보세요.



꼭 새겨두자요

공부를 잘해야 커서 경애하는 **김정은**선생님을 충직하게 받드는 나라의 훌륭한 일군이 될수 있습니다.

이야기

제23과

주전자뚜껑이 왜 움직일가요?

지금으로부터 몇백년전 와트는 영국의 어느 로동자의 가정에서 태여났습니다.

와트가 아직 어릴 때 있은 일입니다.

어느날 와트는 부엌에서 할머니가 밥짓는것을 물끄러미 바라보고있었습니다.

이글거리는 난로에는 물주전자가 놓여있었습니다.

물이 부글부글 끓자 주전자뚜껑이 땔깍땔깍 놀았습니다.

어린 와트에게는 그것이 매우 이상하게 생각되였습니다.

한참 여겨보았지만 도무지 그 영문을 알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할머니에게 물어보았습니다.

《할머니, 주전자뚜껑이 왜 움직이나요?》

《물이 끓으니까 움직이지.》

《물이 끓는데 주전자뚜껑이 왜 움직이나요? 무엇이 주전자뚜껑을 올리미는게 아닐가요?》 하고 와트는 캐여물었습니다.

할머니는 그만 성가시여서《애두, 그걸 누가 안다더냐? 정 알고싶으면 네절로 살펴보려무나.》 하고는 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후 와트는 늘 난로옆에 앉아서 주전자를 유심히 보군 하였습니다.

물이 끓을수록 주전자에서는 김이 문문 솟아올랐습니다.

엉뚱한 생각이 든 와트는 조심스레 종이쪼각을 증기가 내뿜는 주전자주둥이앞에 가져다 대여보았습니다.

종이쪼각은 세차게 펄럭거리다가 흩날려 날아가버리고말았습니다.

와트는 마침내 《옳지, 김이 올리미니까 주전자뚜껑이 움직였구나!》

하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는 《주전자에서 나오는 김이 주전자뚜껑을 움직이게 하였지. 그럼 더 큰 가마에서 나오는 김은 더 무거운 물건을 움직일수 있지 않을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후날 와트는 어떻게 이 김을 리용할것인가를 줄곧 생각하던 끝에 여러차례의 실험을 거쳐 증기기관을 발명하였습니다.



바로 읽고 바로 쓰자요

❖ 밑줄그은 글자들의 발음을 정확히 하면서 바로 읽고 쓰자요.

몇백년전, 부엌에서, 밥짓는, 난로, 끓자, 영문을,
끓으니까, 끓는게, 앉아서, 거듭하던, 않을가, 실험

❖ 한덩이로 된 말들을 어떻게 써야 할가요?

한덩이로 된 말 띄여쓰기

우리 말에는 두개이상의 말마디가 합쳐져서 하나의 뜻을 나타내는 말들이 있습니다.

례를 들어 《강성국가》, 《무엇보다먼저》, 《식은땀》, 《한마음한뜻으로》, 《피어리다》와 같은 말들입니다.

이런 말들은 언제나 붙여써야 합니다.

한덩이로 된 말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옥류소학교》와 같이 나라이름과 학교이름 같은 말도 속합니다.

그리고 주소 같은것을 쓸 때에는 한토막한토막씩 띄여써야 합니다.

례 : 평양시 만경대구역 팔골 1동 9반 24층 2호

- 다음문장에서 한덩이로 된 말을 찾으세요.

엉뚱한 생각이 든 와트는 조심스레 종이쪼각을 증기가 내뿜는 주전자주둥이앞에 가져다 대여보았습니다.

어려운 말을 풀어보자요

❖ ☐안에 알맞는 단어(**캐여묻다, 성가시다, 실험**)를 넣고 그 뜻을 알아보자요.

- 동생은 숙제를 하는 나에게 다가와 학습장과 교과서, 필갑을 만지작거리며 몹시 ☐ 굴었다.
- 내가 건전지와 전구는 무슨 일을 하는가, 어떻게 집집마다 불이 오는가고 꼬치꼬치 ☐ 형님은 꼬마전구와 건전지를 가지고 직접 ☐을 하면서 차근차근 설명해주었다.

❖ 맞는 뜻에 줄을 그어보자요.

난로	물 같은것을 끓일 때 나오는 매우 작은 방울들
영문	석탄이나 나무 같은것을 때서 방안을 덥히는 기구
김	물김의 힘을 리용하여 움직이는 기계
증기기관	까닭

❖ 어울리는 말에 줄을 긋고 단어의 뜻을 알아보자요.

도무지	달리다
불길이	**이글거리다**
줄곧	생각나지 않는다

내용을 알아내자요

❖ 본문의 내용을 알아봅시다.

- 와트는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어떤 가정에서 태여났습니까?
- 와트는 무엇을 보고 이상하게 생각하였습니까?
- 와트는 주전자뚜껑이 움직이는 리치를 어떻게 알아냈습니까?
- 와트는 김을 리용하여 무엇을 발명하였습니까?

❖ 본문의 내용을 한마디로 묶어서 말해보세요.

재미있게, 조리있게 말해보자요

❖ 새로운 기계나 기술을 처음으로 연구하여 세상에 내놓는 사람을 발명가라고 합니다. 이름난 발명가들에 대하여 말해보세요. 그들의 이름과 무엇을 발명하였는가를 아는껏 말해보세요.

❖ 학생은 커서 무엇을 발명하려고 합니까?

똑똑히 듣자요

❖ 최무선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다음차례에 따라 말해보세요.

- 그는 어느 시기 사람이며 무엇을 발명하였습니까?
- 그의 발명품은 어디에서 위력이 나타났습니까?

• 그의 뒤를 이은것은 누구입니까?

❖ 이야기를 동무들에게 재미나게 들려주세요.

배운것을 다져보자요

1. 본문을 살려읽고 한덩이로 된 말을 찾아쓰세요.
2. 다음단어들의 뜻을 말하고 짧은글을 지으세요.

   도무지, 성가시다, 줄곧, 실험

3. 《땔깍땔깍》처럼 같은 말이 반복되면서 소리를 나타내는 단어를 5개 찾아보세요.
4. 와트가 주전자에서 김이 오르는 과정을 관찰하는 과정을 새겨보세요. 특징적인것은 무엇입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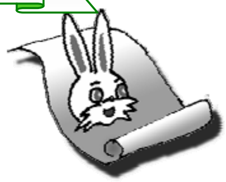
꼭 새겨두자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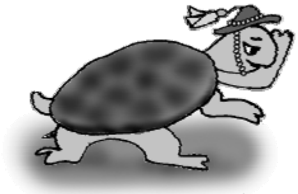
무엇이든지 그 리치를 밝혀내기 위하여 세심히 관찰하고 남다른 노력을 기울인다면 누구나 이름난 발명가가 될수 있습니다.

민화

제24과

토끼와 거부기





먼 옛날 맑고 푸른 물속나라에 으리으리한 룡궁이 있었습니다.

이 룡궁에는 물나라를 다스리는 룡왕이 살고있었습니다. 룡왕은 많은 신하를 거느리고 호화롭게 세월을 보내고있었습니다.

그러던 룡왕이 그만 알지 못할 병에 걸려 자리에 눕게 되였습니다. 숱한 의사들이 와보았으나 고치지 못하였습니다.

하루는 병을 잘 고친다는 의사가 찾아와서 토끼의 간을 먹으면 곧 나을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래서 룡왕은 많은 신하를 불러다놓고 누가 뭍에 나가 토끼를 잡아오겠는가고 물었습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선뜻 대답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이때 거부기가 룡왕앞에 나섰습니다.

《룡왕님, 제가 가겠나이다. 룡왕님의 병을 고치는 일인데 어찌 목숨을 아끼겠소이까.》

거부기는 이 기회에 공을 세워 높은 벼슬자리를 얻어보려고 마음먹었던것입니다.

거부기는 토끼그림을 가지고 곧 룡궁을 떠났습니다.

뭍으로 나온 거부기는 그림과 꼭같이 생긴 짐승을 찾아냈습니다.

《네가 토끼냐?…》

《그래, 난 토끼다. 넌 누구냐?》

《난 룡궁에서 사는 거부기야. 너 우리 룡궁에 한번 가보지 않겠니? 룡궁에 가면 아주 잘살수 있어. 보물과 높은 벼슬자리도 줄거야.》

보물과 벼슬자리를 준다는 말에 귀가 솔깃해진 토끼는 거부기등에 업혀 룡궁으로 들어가게 되였습니다.

룡왕은 토끼를 보자 빨리 토끼간을 꺼내라고 호령하였습니다.

토끼는 그만 눈앞이 아찔하였습니다.

그러나 정신을 가다듬고 룡왕에게 말하였습니다.

《룡왕님, 지금 저의 몸엔 간이 없소이다.》

《뭐, 간이 없다구?》

《예, 저의 간을 빼앗으려는 놈들이 하두 많아서 깊은 산속에 감추어 두고 다니옵니다. 룡왕님이 쓰시겠다면 제가 가서 가져다드리겠나이다.》

이렇게 말하고난 토끼는 거부기를 쏘아보며 간을 가져오지 못한것은 룡왕님이 앓는다는 말을 하지 않은 네탓이라고 엄하게 꾸짖었습니다.

룡왕은 토끼의 말을 듣다못해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네 참으로 간사한 놈이로구나. 아무려면 세상에 간을 빼냈다넣었다 하는 짐승이 어데 있겠느냐. 얘들아, 저놈의 간을 빨리 빼내오너라.》

토끼는 금시 간장이 막 녹는것 같았으나 정신을 더욱 바싹 차렸습니다.

《룡왕님의 소원이 정 그렇다면 저의 배를 가르옵소서. 그러나 간이 없으면 절대로 후회하지 마소이다.》



룡왕은 토끼를 죽였다가 정말 간이 없으면 자기 목숨이 끝장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룡왕은 거부기와 함께 빨리 뭍에 나가 간을 가져오라고 하였습니다.

룡궁을 떠난 토끼는 거부기의 등에 업혀 바다기슭에 이르렀습니다.

거부기는 토끼에게 기다리고있을테니 빨리 가서 간을 가져오라고 하였습니다.

《이 바보같은 놈아, 세상에 간을 떼놓고다니는 짐승이 어데 있느냐.》

토끼는 깔깔 웃으며 숲속으로 깡충깡충 뛰여갔습니다.

그제야 토끼에게 속았다는것을 알게 된 거부기는 룡왕도 죽고 자기도 돌아갈수 없게 되였다고 한탄하였습니다.



이때부터 거부기는 남의 눈에 띄지 않는 물에서도 살고 뭍에서도 살게 되였답니다.

푸르른 솔밭에 이른 토끼는 나서자란 고향산천을 바라보며 생각하였습니다.

(내가 왜 아름답고 살기 좋은 제 동산을 버리고 그런 곳에 갔댔을가?…)

토끼는 룡궁에 가서 잘먹고 잘살아보려던 어리석은 생각을 버리고 제 동산에서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바로 읽고 바로 쓰자요

❖ 다음단어들을 바로 읽고 쓰자요.

으리으리한, 다스리는, 신하, 술한, 업혀, 솔깃해진, 후회하지, 말하고난, 못해, 떼놓고, 깡충깡충, 푸르른, 남의, 띄지

어려운 말을 풀어보자요

❖ 문장속에서 단어의 뜻을 알아보자요.

- 룡왕은 많은 **신하**를 거느리고 **호화롭게** 세월을 보내고있었습니다.
- **보물**과 **벼슬자리**를 준다는 말에 귀가 **솔깃해진** 토끼는 거부기등에 업혀 룡궁으로 들어가게 되였습니다.
- 토끼는 룡궁에 가서 잘먹고 잘살아보려던 **어리석은** 생각을 버리고 제 동산에서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 [ ]안에 《물》과 《문》을 알맞게 넣고 단어의 뜻을 알아보자요.

청개구리엄마는 자기가 죽으면 [ ]에 [ ]어달라고 하였습니다.

❖ 어울리는 말을 보면서 단어의 뜻을 알아보자요.

으리으리한 — 궁전 / 무대 / 집

물을 / 나라를 / 병을 — **다스리다**

공을 — 닦다 / 들이다 / 쌓다

내용을 알아내자요

❖ 거부기는 왜 토끼를 찾아 떠납니까?

❖ 토끼는 어떻게 되여 룡궁으로 갑니까?

❖ 토끼는 어떻게 룡왕을 속여넘깁니까?

❖ 고향에 돌아온 토끼는 무엇을 뉘우칩니까?

❖ 본문의 내용을 말해보세요.

재미있게, 조리있게 말해보자요

❖ 토끼는 왜 룡궁으로 갑니까? 토끼는 무엇을 몰랐습니까?

❖ 룡왕은 왜 토끼에게 속히웁니까?

❖ 토끼와 거부기의 이야기를 통하여 무엇을 느꼈습니까?

멋진 글을 지어보자요

족제비소굴에 들어가 작전문건을 빼내올데 대한 임무를 받은 정찰병다람이가 적보초를 속여넘기고 대장방에 들어가 감쪽같이 빼앗아가지고 돌아오는 내용으로 글을 지으세요. 인물들이 주고받는 말도 써넣어야 합니다.

배운것을 다져보자요

1. 본문을 옛말이야기하듯 재미나게 읽어보세요.

2. 다음단어의 뜻을 말하고 두 단어를 넣어 두 문장으로 된 짧은글을 지으세요.

으리으리하다— 신하, 벼슬자리— 어리석다

3. [ ] 안에 알맞는 말을 찾아 써넣으세요.

ㄱ) 토끼는 그만 눈앞이 < [ ] [ ] [ ]

ㄴ) 룡왕은 … 소리를 질렀습니다.

ㄷ) 토끼는 정신을 …

4. 단어 《공》이 서로 다른 뜻으로 쓰이는 경우를 3개이상 찾아보세요.

5. 본문의 내용을 부모님들과 형제들앞에서 이야기해보세요.



꼭 새겨두자요

죽음의 마지막순간에도 정신을 잃지 않고 지혜를 짜내면 얼마든지 죽음을 면할수 있습니다.

다시한번 익혀보자요

(19과 — 24과)

1. 다음단어들을 받아쓰고 한덩이로 된 말에 밑줄을 그으세요.

   으흥, 울음소리, 출출하구나, 어슬렁어슬렁, 답답한, 싫다구, 밥짓는, 끓자, 땔깍땔깍, 거듭하던, 실험, 으리으리한, 벼슬자리, 솔깃해진, 녹는것, 가르옵소서, 어둑시근, 통신련락, 으름장, 뜯겨나다, 얼레빗, 기겁하여, 서늘한, 불효막심, 버젓이, 옳은것, 낫겠소, 네발굽, 묶고, 선들바람, 밤가는줄, 모르다,

2. □안에 《낫, 낳, 낮, 낟, 낯, 짖, 질, 짓, 빗, 빚, 빛》을 알맞게 넣으세요.

   ㄱ) 와트가 □은 김이 꽉 찬 부엌에서 할머니가 밥□는 모습을 바라보는데 갑자기 밖에서 개□는 소리가 났다.

   ㄴ) 대□에 아버지와 아들이 새끼를 갓 □은 어미소잔등에 □알자루를 지우고 가는데 손에 □을 쥔 대장쟁이가 성난 □으로 그들의 앞을 막아나섰다.

   ㄷ) 해□이 쨍쨍 내리쪼이는 마당가에서 순이가 머리□으로 진흙으로 □은 인형을 곱게 다듬고있는데 지주놈이 나타나 당장 □을 물라고 호통쳤다.

3. 《자다》의 뜻을 가진 단어와 잠자는 모양을 나타낸 말을 각각 5개이상 찾아보세요.

   례: 주무시다, 쌔근쌔근

4. 다음단어들의 뜻을 말하고 한 문장안에 넣어 짧은글을 지으세요.

   〈 곧 / 곳　　〈 받치다 / 바치다　　〈 끓다 / 꿇다

5. 다음문장을 읽고 물음에 대답하세요.

룡왕은 많은 신하를 불러다놓고 높은 벼슬자리를 주겠으니 물에 나가 토끼를 잡아오라고 호령하였습니다.

- 이 문장은 어떤 물음들에 대답하는 말로 이루어졌습니까?
- 이 문장에는 몇가지 내용이 들어있습니까?

6. 알맞는 말을 넣어 문장을 완성하시오.

ㄱ) 아버지와 아들이 하늘소를 끌고 장마당으로 가는데… 그냥 걸어간다고 비웃었습니다.

ㄴ) 호랑이는 나는 먹지 않고는 … 잡아먹겠다고 합니다.

ㄷ) 와트는 도무지 영문을 알수 없어서… 캐여물었습니다.

7. 다음물음에 대답하세요.

ㄱ) 장마당으로 팔려고 끌고 가던 하늘소는 어떻게 되였습니까? 왜 그렇게 되였습니까?

ㄴ) 아동단원 금순이는 어떤 소녀입니까?

ㄷ) 호랑이는 왜 함정에 빠졌습니까?

ㄹ) 와트는 무엇을 발명하였습니까? 《와트》라는 말을 또 어디에서 들어보았습니까?

ㅁ) 제21과와 제24과에서 토끼의 지혜로운 모습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8. 속담, 수수께끼

❖ 속담의 뜻을 익히고 이 속담을 넣어 짧은글을 지어보세요.

- 남의 장단에 춤춘다— 제 정신이 없이 남이 하는대로 덩달아 행동함을 비웃어 이르는 말.
- 눈감고 따라간다— 아무 생각없이 맹목적으로 뒤따름을 비웃어 이르는 말.
- 승냥이가 양으로 변할수 없다— 원쑤놈들의 본성은 절대로 변할수 없다는 말.

- 개미는 작아도 탑을 쌓는다— 아무리 작고 힘이 약한 사람도 꾸준히 애쓰고 노력하면 큰것을 이룰수 있다는 말.
- 범에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 아무리 위험한 처지에 놓이더라도 정신만 잃지 않으면 살아날수 있다는 말.

❖ 수수께끼

- 손님이 들어가서 주인을 내쫓는것이 무엇일가요?
- 혀없이 말하고 귀없이 듣는것이 무엇일가요?
- 아래로 먹고 우로 나오는것이 무엇일가요?

9. 알아맞춰보세요.

어느날 갑자기 하늘에 먹장구름이 뒤덮이더니 비가 쏟아지기 시작하였습니다. 밖에서 놀던 아이들이 모두 방안으로 뛰여들어왔습니다. 뒤거둠질을 하고 늦게 방에 들어온 어머니가 아이들을 바라보며 이렇게 물었습니다.

《얘들아, 누가 벌써 장독에 비물이 들어갈세라 뚜껑을 덮었더구나. 누가 기특한 일을 하였느냐?》

그러자 아이들은 저저마다 손을 들면서 자기가 했다고 대답하였습니다. 그들을 바라보던 어머니는 천천히 말머리를 돌리였습니다.

《그런데 장독뚜껑을 잘못 덮었더구나. 채(밀가루나 고추가루 같은 것을 밭아내는 물건)를 덮었단 말이다. 이 일을 어쩌면 좋겠니?》

방금전까지 자기가 장독을 덮었다고 손을 쳐들던 아이들이 이번에는 목을 움츠리고 이렇게 말하는것이였습니다.

맏이: 나는 셋째에게 시키고 방안으로 들어왔어요.

둘째: 내가 나갔을 때에는 이미 장독뚜껑이 덮여져있더군요.

셋째: 나는 둘째형이 장독앞에서 채를 들고 어물거리는것을 보았어요.

넷째: 나는 나가지도 않았댔어요.

누가 덮었을가요?

작 문

제25과

어 머 니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 친히 지으신 작문)

어머니,

이렇게 써놓고보니 돌아가신 어머님이 사무치도록 그리워집니다.

어머님에 대한 그리움이 커갈수록 우리 어머님은 이 세상에서 정말 위대하고 훌륭한 어머님이시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어머님은 하얀 백살구꽃이 유명한 회령의 가난한 농가에서 태여나시여 어릴적부터 모진 고생을 겪으시며 자라나시였습니다.

어머님은 학교라고는 문앞에도 가보지 못하고 어린 나이에 부모님들의 일손을 도와 밭김을 매고 집안일을 도와드리지 않으면 안되였습니다.

어머님께서는 일본놈들과 지주놈들의 착취와 압박을 받으며 피눈물나는 고된 생활을 겪는 과정에 그놈들을 때려부셔야 빼앗긴 조국을 찾을수 있고 도탄에 빠진 우리 인민들을 구원할수 있다는것을 깨달으시였습니다.



이천만 조선동포가 태양처럼 우러르던 **김일성**장군님을 따라 혁명의 길에 나서신 때로부터 어머님께서는 호미를 쥐였던 작은 손에 총을 잡고 내 나라를 찾기 위하여 간고하고 피어린 투쟁을 벌리시였습니다.

인민들은 우리 어머니를 총도 잘 쏘시고 싸움도 잘하시는 유격대의 녀장군이라고 전설처럼 외웁니다.

어머님께서는 나라가 해방된 다음에도 아버지장군님을 받들어 한몸 돌보지 않고 일하시였습니다.

지금도 나의 눈앞에는 이제는 나라도 해방되였으니 좀 편히 쉬시라고 권하는 일군들에게 우리는 이렇게 조국을 찾고 기쁨에 겨워하지만 이날을 보지 못한채 백두밀림의 이름모를 나무밑에 묻힌 동지들을 생각하면 가슴이 터진다고 하시면서 잃었던 조국을 찾았다고 혁명이 끝난것은 아닙니다, 혁명선렬들의 뜻대로 절세의 애국자이신 **김일성**장군님의 령도를 높이 받들고 새 나라를 세우는 건국사업에 힘차게 떨쳐나서자고 손을 쳐들고 호소하시던 어머님의 숭엄한 모습이 안겨오는듯 합니다.

어머님은 진정 한평생을 아버지장군님을 충성으로 받들어모시고 혁명과 동지들, 인민들을 위해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쳐 싸우신 강의한 조선의 어머니, 참으로 훌륭한 혁명가였습니다.

나도 어서 커서 어머님처럼 아버지장군님을 받들어 힘껏 일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어머님께서 못다 이루신 념원을 이 강산에 활짝 꽃피우겠습니다.

아, 어머니 나의 어머니!

바로 읽고 바로 쓰자요

❖ 다음단어들을 바로 읽고 쓰자요.

사무치도록, 그리움이, 백살구꽃이, 받김, 착취, 묻힌,

쥐였던, 혁명선렬, 절세의, 강의한, 활짝, 념원

어려운 말을 풀어보자요

❖ 어울리는 말을 찾고 단어의 뜻을 알아보자요.

_____________ **사무치다**(뼈저리게 느껴지다)

_____________ **유명하다**(널리 이름이 나다)

농가(농사를 짓는 가정 또는 그 집)_____________

전설(인민들속에서 오랜 세월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____

❖ 뜻같은말에 줄을 긋고 단어의 뜻을 알아보자요.

고생	소원
동포	렬사
선렬	동족
념원	곤난

내용을 알아내자요

❖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어머님께서는 어디에서 탄생하시였습니까?

❖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어머님께서는 어린시절을 어떻게 보내시였습니까?

❖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어머님께서는 왜 손에 총을 잡으시였습니까?

❖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어머님께서는 나라가 해방된 다음에도 어떻게 일하시였습니까?

❖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는 작문의 마지막에 어떤 결의를 쓰시였습니까?

❖ 작문의 내용을 말해보세요.

재미있게, 조리있게 말해보자요

❖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어머님은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하고 훌륭한

어머님이십니다. 구체적사실을 들어 이야기하세요.

❖ 학생은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어머님에 대한 어떤 전설을 알고있습니까? 책에서 보았거나 들은 이야기를 재미나게 말해보세요.

곱게 쓰자요

❖ 본보기글을 받아쓰기해보세요.

어머님, 동포, 백살구꽃, 훌륭한 혁명가
그리하여 어머님께서 못다 이루신 념원을
이 강산에 활짝 꽃피우겠습니다.

❖ 본문을 처음부터 《…깨달으시였습니다.》까지 받아쓰기해보세요.

배운것을 다져보자요

1.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어머님을 그리는 마음으로 본문을 절절하게 읽어보세요.
2. 다음단어들의 뜻을 말하고 두 단어를 넣어 세개 문장으로 된 짧은 글을 지어보세요.

   고생— 도탄　　　　동포— 념원
3. 다음의 말소리로 발음되는 소리같은말들을 아는껏 찾아보세요.

   그리다, 돌아가다
4.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어머님은 어떤분이십니까?



꼭 새겨두자요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어머님은 경애하는 **김일성**대원수님을 높이 받들어모시고 싸우신 훌륭하고 위대한 어머님이십니다.

해설글

제26과

우리 나라 국장



우리 나라 창건을 기념하는 뜻깊은 날이였습니다.

명절맞이 큰 행사에 가시는 아버지의 앞가슴에는 번쩍이는 훈장과 메달들이 가득하였습니다.

《야! 멋있네.》

소학교 3학년에 다니는 순이는 기쁜 마음으로 하나, 둘, 셋 하고 손꼽아보다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아버지, 이 훈장속에 있는 그림은 무슨 그림이나요?》

《응, 그건 우리 나라 국장을 새긴거란다.》

《우리 나라 국장?》

《그래. 우리 순이에게 분단위원장이라는 열성자표식이 있는것처럼 나라에도 다 표식이 있단다. 그 표식들은 자기 나라가 어떤 나라이며 누구를 위해서 복무하는가를 여러가지 그림과 색갈로 나타내는데 그것을 국장이라고 하지.

이 훈장속에 있는 그림은 바로 우리 나라의 국장이다.

자세히 보아라. 그림속에 무엇이 있는지.》

《백두산, 오각별 그리고 벼이삭, 발전소도 있어요.》

순이가 두눈을 반짝이며 대답하였습니다.

《옳다. 우리 나라 국장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고 쓴 붉은 띠로 땋아 올려감은 벼이삭의 테두리안에 웅장한 수력발전소가 있고 그우에는 백두산과 빛나는 붉은 오각별이 있다.

여기서 백두산은 우리 나라가 강도 일제를 때려부시고 조국을 찾아주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의 혁명사상과 항일의 혁명전통을

이어받아 빛내여나가는 훌륭한 나라라는것을 말해주고있단다.

그리고 찬란한 빛발을 뿌리는 이 오각별은 우리 수령님과 장군님의 높은 뜻을 받들고 언제나 승리만을 이룩하며 힘차게 달려나가는 우리 나라의 밝은 앞날을 보여준다.

또 이안에 그려진 수력발전소와 벼이삭에는 우리 나라의 공업과 농업을 더 발전시켜 살기 좋은 사회주의락원을 일떠세운다는 큰뜻이 담겨져있단다.

우리 나라 국장을 이렇게 붉은 띠를 테두리로 하여 타원형으로 한것은 당과 수령의 두리에 한마음한뜻으로 굳게 뭉친 우리 인민의 통일단결은 영원히 변함없으며 그 힘으로 우리 나라는 더 강해지고 번영한다는것을 상징하고있단다.》

《야, 우리 나라 국장은 정말 훌륭하구나.》

순이는 손벽을 쳤습니다.

《그래. 우리 나라 국장은 단순히 국가의 표식이 아니라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과 **김정일**대원수님을 높이 모시고 살기 좋은 사회주의나라로 발전해온 우리 나라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경애하는 **김정은**선생님을 모시여 더욱 찬란할 래일이 다 담겨져있는 으뜸가는 국장이다.

바로 이런 훌륭한 국장을 해방후에 우리 수령님께서 만들어주시였단다.

경애하는 **김정은**선생님께서는 수령님과 장군님의 높은 뜻을 받들어 우리 나라를 총대로 굳건히 지켜주시고 주체의 강성대국으로 일떠세워가신단다.

이 국장에 깃들어있는 깊은 뜻을 너도 언제나 가슴깊이 새기고 공부를 더 잘해서 세상에서 제일 좋은 우리 조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더욱 빛내여나가는 훌륭한 일군이 되여라.》

《알겠어요. 아버지.》

순이는 힘차게 대답하였습니다.

바로 읽고 바로 쓰자요

❖ 다음단어들을 바로 읽고 쓰자요.

행사, 타원형, 한마음한뜻, 열성자, 복무, 찬란한, 으뜸가는, 훌륭한, 단순히, 변함없고, 손벽을

어려운 말을 풀어보자요

❖ 맞는 뜻에 줄을 그어보자요.

창건	몸바쳐 이바지하는것
행사	나라나 조직 등을 처음으로 세우거나 만드는것
훈장	나라에서 특별히 조직하는 큰일
복무	나라에서 큰 공로를 세운 사람이나 기관 등에 주는 표창의 한가지

❖ 문장속에서 단어의 뜻을 알아보자요.

당과 수령의 두리에 한마음한뜻으로 굳게 뭉친 우리 인민의 <u>통일단결</u>은 영원히 변함없다.

내용을 알아내자요

❖ 우리 나라 국장에는 어떤 그림들이 새겨져있습니까?

❖ 매 그림에 담겨져있는 뜻을 쓰고 말해보세요.

백두산— ____________________

오각별— ____________________

벼이삭— ____________________

수력발전소— ____________________

붉은 띠, 타원형— ____________________

❖ 우리 나라의 이름을 말해보세요.

❖ 우리 나라 국장에 담겨져있는 뜻을 한 문장으로 말해보세요.

재미있게, 조리있게 말해보자요

❖ 우리 나라 국장에 대하여 해설해보세요.

❖ 순이 아버지는 국장에 우리 나라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빛나는 래일이 다 담겨져있다고 하였습니다. 왜 그렇게 말할수 있는지 국장에 새겨진 그림을 보면서 말해보자요.

멋진 글을 지어보자요

해설글을 지어봅시다.

❖ 우리 나라의 국기, 국화, 국조가운데서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글을 지으세요.

❖ 알기 쉽게 그 내용이 안겨오면서도 우리 나라에 대한 자랑이 담겨지게 쓰세요.

배운것을 다져보자요

1. 우리 나라 국장에 담겨진 뜻을 새기면서 본문을 읽어보세요.
2. 다음 두 문장을 하나의 문장으로 만드세요.

ㄱ) 순이는 두눈을 반짝이며 말했습니다.
순이는 또랑또랑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ㄴ) 아버지의 앞가슴에는 훈장과 메달들이 달려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아침에 행사장으로 가시였습니다.

3. 다음단어들의 뜻을 말하고 두 단어를 넣어 3개 문장으로 된 짧은 글을 지으세요.

공업— 농업　　　　훈장— 복무

4. 《통일단결》로 시작하여 《강성국가》로 끝나는 말꼬리잇기를 해보세요.(네글자단어로)

5. 본문의 첫번째, 두번째 문장을 글씨규범에 맞게 곱게 써보세요.



꼭 새겨두자요

우리 나라 국장에는 우리 나라를 세상에서 으뜸가는 나라로 일떠세우시려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의 높은 뜻이 새겨져있습니다.

동시

제27과

우리 집 콤퓨터

칠판에 분필들고
아니 쓴대도
차근차근 설명은
하지 않아도

지혜의 샛별눈
빛내여주며
집에서도 배워주는
선생님 있어요

알쏭달쏭 힘든 문제
막아나서도
술술술 막힘없이
가르쳐줘요

언제나 이 가슴에
새 힘을 주며
최첨단령마루로
이끄는 선생님

강성국가 기둥으로
날 키워주는
우리 집 콤퓨터는
나의 선생님



바로 읽고 바로 쓰자요

❖ 다음단어들을 쓴 글자그대로 읽는 단어와 쓴 글자와 다르게 읽는 단어로 가르고 바로 읽고 쓰자요.

분필, 쓴대도, 않아도, 지혜, 샛별눈, 빛내여, 알쏭달쏭, 숱숱숱, 막힘없이, 가르쳐줘요, 최첨단, 령마루, 강성국가

어려운 말을 풀어보자요

❖ 문장속에서 단어의 뜻을 알아보자요.

- <u>지혜</u>롭고 슬기로운 아동단원 태숙이는 파속에 비밀쪽지를 넣고 갈 좋은 꾀를 생각해냈다.
- <u>기둥</u>을 치면 대들보 울린다.

❖ 어울리는 말에 줄을 긋고 단어의 뜻을 알아보자요.

차근차근	돌파하다
어제일이	오르다
최첨단을	**알쏭달쏭하다**
령마루에	쌓아두다

내용을 알아내자요

❖ 콤퓨터는 어떤 선생님이라고 노래하였습니까? 련별로 알아보세요.

❖ 련별내용을 묶어서 동시의 내용을 말해보세요.

똑똑히 듣자요

❖ 꽃시계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다음차례에 따라 말해보세요.

- 무엇에 대해 소개하였습니까?
- 어떤 꽃들이 소개되였습니까?

• 소개된 차례대로 꽃이름과 꽃이 피는 시간을 말해보세요.

❖ 선생님의 이야기를 듣고 알게 된것을 동무들에게 자세하게 이야기해보세요.

멋진 글을 지어보자요

❖ 《재미나는 콤퓨터공부시간》이라는 제목으로 글을 지어봅시다.

• 콤퓨터공부시간에 무엇을 배웁니까?
• 콤퓨터로 무엇을 할수 있습니까?
• 콤퓨터를 배우니 무엇이 좋습니까?
• 콤퓨터를 잘 배우기 위하여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배운것을 다져보자요

1. 동시를 외우고 읊어보세요.
2. 다음단어들의 뜻을 말하고 세개 문장의 짧은글을 지어보세요.

   지혜, 최첨단, 기둥

3. 다음문장의 빈자리에 알맞는 말을 3개 찾아쓰세요.

   나는 힘든 문제를 ________________ 풀어냅니다.

4. 동시의 3, 4련을 글씨규범에 맞게 곱게 쓰세요.



꼭 새겨두자요

과학의 큰 대문을 열자면 반드시 콤퓨터를 잘 다룰줄 알아야 합니다.

이야기

제28과



엄마새이야기

(이 작품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 친히 들려주신 이야기에 기초한것입니다.)

어느 푸른 숲속에 노래도 잘 부르고 춤도 잘 추는 찌꼬리엄마가 살고있었습니다. 그에게는 다섯마리의 아기새가 있었습니다. 이 아기새들을 훌륭하게 키우는것이 찌꼬리엄마의 소원이였답니다.

아기새들에 대한 찌꼬리엄마의 사랑은 정말 끝이 없었어요.

추우면 춥겠다고 폭신한 털이불을 덮어주고 배고플세라 매일 맛있는 먹이를 듬뿍듬뿍 날라다주었습니다.

엄마가 나타나기만 하면 아기새들은 저마다 먹이를 먼저 달라고 짹짹거렸어요. 첫째는 자기에게 제일먼저 먹을것을 달라고 했고 둘째는 제일 크게 소리를 내면서 《나—나—》하고 졸랐답니다. 그리고 셋째는 맛있는것만 달라고 했고 넷째는 엄마가 자기를 제일 미워한다고 눈물까지 흘리군 했답니다.



제일 막내 다섯째는 입을 꼭 다물고있다가 엄마보고 딱 먹여달라고 어리광을 부리군 했습니다.

엄마새는 아기새들의 이런 성미를 다 알고 꼭같이 고와했답니다.

엄마새의 따뜻한 사랑속에서 아기새들은 하루하루 점점 커갔습니다. 아기새들은 커가면서 먹이를 더 많이 먹었어요. 그래서 엄마새는 점점 힘이 더 들었습니다.

(내가 좀 못 먹고 힘이 들더라도 이 애들이 배가 부르게 해주어야지.)

어느날 딱따구리의사가 찾아와 엄마새에게 말했습니다.

《꾀꼬리엄마,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아기새들이 다 자라 제 날개로 날아다니겠는데 몸을 좀 돌보세요. 얼굴색이 나빠요.》

《고마와요. 하지만 엄마가 되기는 쉬워도 엄마구실을 하기는 정말 힘들군요. 이 애들이 다 커서 이산저산 다니며 〈꾀꼴꾀꼴〉 노래부를 때면 이 동산은 얼마나 더 아름다와지겠나요. 그날을 생각하면 가만 있을수가 없답니다.》

《꾀꼬리엄만 정말 훌륭해요!》

모두 엄마꾀꼬리를 칭찬했습니다.

어느날이였습니다.

아기새들에게 줄 먹이를 날라오던 꾀꼬리엄마는 깜짝 놀랐습니다.

갑자기 시커먼 그림자가 머리우로 휙 지나갔기때문이예요. 가슴이 철렁하여 하늘을 쳐다보니 사나운 수리개가 마을을 내려다보면서 빙빙 돌고있었어요.

(아기새들이 저놈의 눈에 띄우면 어쩔가?)

가슴이 섬찍해진 꾀꼬리엄마는 급히 집으로 날아갔습니다. 집에 와 보니 아기새들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애들아— 애들아—》

엄마새는 애타게 아기새들을 찾았습니다.

《우리 아기들을 못 봤어요?》

꾀꼬리엄마는 울며불며 한잠도 못 자고 밤을 꼬박 새웠습니다. 그러

다가 날이 밝아서야 애기소나무밑에 몰켜있는 아기새들을 찾았답니다.

《애들아！》

《엄마… 엄마…》

제일 큰 첫째가 겨우 눈을 뜨고 엄마를 불렀습니다. 다른 새들은 눈을 뜨지 못했어요. 꾀꼬리엄마는 밤나무가지사이에 새집을 짓고 아기새들을 날라왔답니다. 아기새들은 앓음소리를 내며 저마다 엄마품에 파고들었답니다.

《엄마！… 엄마！…》

(이러다간 애들을 다 죽이고말겠구나.)

꾀꼬리엄마는 딱따구리의사에게 좀 도와달라고 사정했습니다.

딱따구리는 말했습니다.

《여기서 열두고개를 넘어가면 벼랑산이 있는데 그곳에 신기한 딸기가 있어요. 그 산딸기가 정말 좋은 약이랍니다. 한알만 먹어도 온몸에 기운이 넘치고 그 어떤 병도 다 뚝 떨어지지요.》

이 말을 들은 꾀꼬리엄마는 곧 벼랑산을 찾아 떠났습니다.

꾀꼬리엄마는 한고개 또 한고개 쉴새없이 날개를 저으며 날았습니다.

그가 아홉번째 고개를 넘으려고 하는데 갑자기 바람이 불어오고 검은구름이 밀려오더니 비가 쫙쫙 쏟아져내렸습니다.

이때 벼랑중턱에 집을 짓고 사는 산비둘기가 말했어요.

《정신나가지 않았어요. 비가 멎을 때까지 좀 쉬였다 가세요.》

꾀꼬리엄마는 힘이 들고 춥고 배가 고파 좀 쉬여가고싶었지만 엄마를 기다릴 아기새들 생각이 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마와요. 하지만 난 가야겠어요. 내 귀염둥이들이 지금… 죽어가요！》

꾀꼬리엄마는 빗바람을 뚫고 죽을 힘을 다 내여 계속 날았습니다.

그러나 얼마 못 가서 세찬 바람에 휘말려 땅에 뚝 떨어지고말았어요.

꾀꼬리엄마는 온몸이 아팠습니다. 그러나 아기새들을 생각하여 다시

일어나 두 고개를 다 넘었습니다.

찌끄리엄마는 고생스럽게 찾아다니며 새빨간 딸기 다섯알을 따서 바구니에 담았습니다.

(이젠 됐어! 내 귀염둥이들이 모두 살아나게 되였어!)

찌끄리엄마는 다시 푸른 하늘을 날아올랐습니다.



그런데 딸기 다섯알이 들어있는 바구니도 무겁고 아무것도 먹지 못했으니 몹시 힘들었습니다. 더는 하늘을 날아갈수가 없었어요.

찌끄리엄마는 엄마를 기다릴 아기새들을 생각하며 한발자국 한발자국 걷고 또 걸었습니다.

마지막 있는 힘을 다해 집에까지 온 엄마찌끄리는 그만 정신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딱따구리가 찌끄리엄마의 입에 딸기 한알을 넣어주었습니다.

《난… 일없어요. 어서 우리 아기새들에게 한알씩 먹여주세요.》

신기한 딸기를 먹고난 아기새들은 하나 둘 눈을 뜨고 일어났습니다.

첫째가 엄마를 쳐다보며 물었어요.

《엄마도 딸기를 잡숴나요?》

찌끄리엄마는 기뻤습니다.

《그래그래, 난 많이 먹었다!》

그다음 아기새들의 털을 곱게곱게 다듬어주던 찌끄리엄마는 조용히 눈을 감고 죽었습니다.

《엄마야!》 아기새들은 엄마를 부르며 슬피슬피 울었습니다.

《딱따구리선생님, 우리 엄마는 왜 죽었나요?》

딱따구리는 한참동안 눈물을 주르르 흘리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얘들아, 이게 바로 엄마의 사랑이란다. 너희들은 이 훌륭한 엄마를 언제나 잊지 말아라.》

아기새들은 더욱 목이 메여 엄마를 불렀어요.

《엄마!…》

《엄마!…》

엄마를 애타게 부르는 아기새들의 목소리는 넓고 푸른 하늘가로 애처롭게 울려갔습니다.

바로 읽고 바로 쓰자요

❖ 다음단어들에서 밑줄그은 말에 주의를 돌리면서 바로 읽고 쓰자요.

찌꿀새, 어리광, 쉬워도, 다섯마리, 맛있는것만, 딱따구리의사, 띄우면, 막내, 못 먹고, 아름다와지겠나요, 온데간데, 신기한, 있는, 잡숴나요, 죽었나요, 쉬여서, 휘말려, 새빨간, 앓는

❖ 엄마새의 모습을 생각하며 소리빛갈, 속도, 끊기, 높낮이를 잘 지키면서 본문을 살려읽으세요.

어려운 말을 풀어보자요

❖ 그림을 보면서 **딱따구리**와 **수리개**에 대하여 알아보자요.





❖ 어울리는 말에 줄을 긋고 단어의 뜻을 알아보자요.

듬뿍듬뿍	**섬찍하다**
바람에	**다듬다**
글을	퍼담다
가슴이	**애처롭다**
목소리가	**휘말리다**

❖ 어울리는 말을 보면서 단어의 뜻을 알아보자요.

성미 — 가 까다롭다 / 가 부드럽다 / 가 급하다

기운 — 을 내다 / 이 세다 / 이 없다

내용을 알아내자요

❖ 꾀꼬리엄마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 꾀꼬리엄마는 아기새들을 어떻게 사랑해주었습니까?

- 다섯 아기들을 대할 때
- 수리개를 보았을 때
- 아기새들이 앓을 때
- 딸기를 찾아다닐 때
- 집에 와서 쓰러졌을 때

❖ 딱따구리는 엄마를 부르는 아기새들에게 어떻게 말합니까?

❖ 본문의 내용을 말해보세요.

재미있게, 조리있게 말해보자요

❖ 벼랑산으로 가는 길이 그토록 힘들고 어려웠지만 엄마새는 왜 끝까지 그 길을 갔을가요?

❖ 딱따구리의사는 왜 험한 벼랑산으로 가는 길을 대주었을가요? 꾀꼬리엄마에게서 무엇을 보았습니까?

❖ 어머니들은 어느때 제일 기뻐합니까?

❖ 어머니들은 자식들을 사랑해주고 위해주다가도 때로는 아픈 욕을 하기도 합니다. 왜 그렇게 욕을 할가요? 그속에 어머니의 어떤 마음이 담겨져있는지 말해보세요.

멋진 글을 지어보자요

어머니의 사랑에 대한 내용으로 글을 지어봅시다.

❖ 어머니의 모습을 생각해보세요.

❖ 학생을 위해 바친 어머니의 정성을 생각해보세요.

❖ 어머니의 사랑이 무엇을 위한 사랑인가를 생각해보세요.

❖ 제목을 달고 10문장이상의 글을 지으세요.

배운것을 다져보자요

1. 본문을 소리내여 읽어보세요.
2. 다음단어들의 뜻을 말하고 짧은글을 지으세요.

   성미, 구실, 고개, 기운
3. 본문에서 제일 감동깊은 장면은 어느 대목입니까? 자기 말로 말해보세요.
4. 찌끄리엄마가 어려운 고비를 겪으며 벼랑산으로 가는 모습을 나타낸 문장들을 찾아 곱게 쓰세요.



꼭 새겨두자요

어머니의 사랑은 가장 뜨겁고 깊은 사랑입니다.

제29과

쫓겨난 거부기



(이 작품은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어머님께서 친히 들려주신 이야기에 기초한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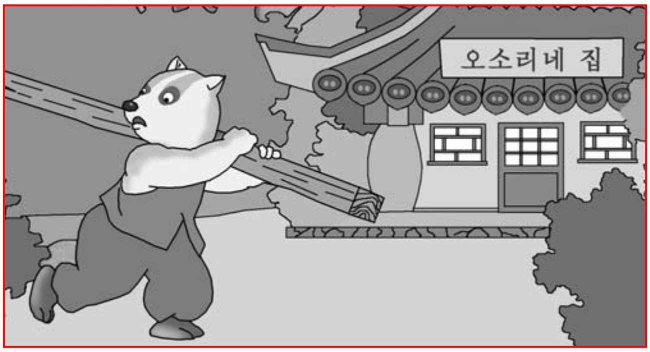
옛날 아름다운 바다가에 자리잡은 어느 한 동산에서 있은 일입니다.

어느날 동산의 짐승들은 모두 모여 어떻게 사는것이 제일 훌륭하게 사는것인가를 의논하였습니다. 어떤 짐승들은 배불리 먹고 뜨뜻하게 지내는것이라고 했고 또 어떤 짐승은 하늘을 훨훨 날아다니면서 세상구경을 실컷 하는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런가하면 소문난 가수가 되는것이라고 한 짐승도 있었어요. 모두들 저마다 자기의 생각이 옳다거니 틀렸다거니 하면서 왁짝 떠들었습니다. 그제서야 말꼭지를 뗀 거부기는 《뭐니뭐니해도 오래 사는것이 제일이야. 오래 살면 이름도 오래오래 남게 되니 말이야…》 하고 말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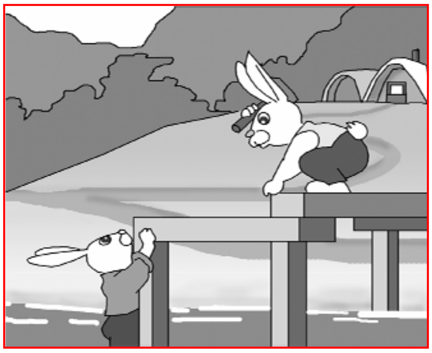
다음날부터 동산의 짐승들은 저저마다 가장 훌륭하게 살기 위한 일들을 시작했습니다.

오소리는 동산에서 제일 으뜸가는 집을 짓기 시작했고 다람쥐는 하늘을 훨훨 날아 이름을 남기려고 련습을 하였습니다.





옥토끼는 개울에 돌다리대신 멋진 다리를 놓기 시작했습니다.



배집이 크고 힘센 메돼지는 먹이창고를 큼직하게 지을 결심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거부기는 오래 살려면 잠을 자는게 제일이라고 생각하고 모래땅속으로 들어가 잠으로 세월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어느덧 동산은 몰라보게 달라졌습니다.



오소리네 집, 메돼지창고가 우뚝우뚝 솟아나고 옥토끼가 놓은 다리에서는 동산의 꼬마들이 좋아라 뛰여놀았습니다.



잠에서 깨여난 거부기는 어슬렁어슬렁 동산을 돌아다니며 《뭘 그다지나 아득바득 힘들게 일을 하나? 일을 많이 하면 빨리 늙어죽어요. 죽으면 누가 알아나줄가?》 하고 말했습니다.

동산의 짐승들은 거부기의 말에 어처구니가 없어하며 《응, 너야말로 죽은 목숨이나 갈구나.》 하면서 마주서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뭐, 이렇게 살아있는데두, 어디 두고보자. 이번엔 한 삼백년을 자구 깨야지. 그때면 모두 깜짝 놀라겠지?》 거부기는 이렇게 중얼거리며 다시 모래땅을 파고 들어가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세월은 흘러 삼백년도 더 지나갔습니다.

잠에서 깨여난 거부기는 몰라보게 달라진 마을을 보며 눈알만 데룩데룩 굴렸습니다.

이때 꼬마짐승들이 오구구 달려와 떠들어댔습니다.

《누굴가？》

《별난 짐승이다야.》

《에헴！ 삼백년 묵은 거부기를 몰라보다니. 내가 이 동산에서 좌상의 좌상이란 말이야.》

좌상이란 말은 나이가 제일 많은 웃사람을 보고 하는 말입니다.

《아니, 우리 동산의 좌상이라구요？ 거부기할아버지란 말은 들어보지 못했는데…》

《암만 봐도 수상해. 혹시 승냥이놈이 보낸 렴탐군이 아닐가？ 빨리 어른들에게 알려주자.》

애기토끼는 뛰여가서 사슴할아버지를 모셔왔습니다.

사슴할아버지는 거부기를 뜯어보다가 물었습니다.

《임자가 우리 동산에서 삼백년을 살았다는게 사실인가？》



《암, 그렇지 않구. 내 나이 올해 삼백다섯일세.》

《그럼 우리 동산 내막을 잘 알겠군.》

그러자 꼬마짐승들이 물었습니다.

《옥토끼다리가 어디에 있는지 아나요?》

《옥토끼샘물은 어디에 있어요？》

《에끼, 이놈들. 어디 그런것들이 있느냐？》

거부기는 발을 탕탕 구르며 소리쳤습니다.

《하하하… 우리 동산에서 삼백년을 살았다면서 그것도 모른다구요? 그럼 옥토끼는 아나요？》

《아니, 너희들이 삼백년전에 죽은 옥토끼는 알면서도 삼백년나마 산 이 거부기는 몰라본단 말이냐？》

그러는 거부기를 한참이나 바라보던 사슴할아버지는 《옥토끼는 십년을 살았어도 옥토끼다리, 옥토끼산, 옥토끼샘물을 마련했단 말이요. 그래 삼백년을 살았으면 그동안 일도 많이 했겠는데 그새 해놓은 일이 뭐요？》 하고 물었습니다.



그러나 거부기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이놈은 분명 수상한 놈이다. 한 일이 없이 삼백년을 살았다는게 말이 되느냐? 이놈을 당장 쫓아보내라.》

사슴할아버지의 말이 떨어지자 바빠맞은 거부기는 허둥지둥 바다가로 내뺐습니다.

거부기는 어찌나 혼쌀이 났던지 한번 돌아보지도 못하고 헐떡거리며

바다물에 풍덩 뛰여들었습니다.

《하— 하하하》

짐승들은 거부기를 보며 큰소리로 웃었습니다.

얼마 지나서 모래불로 엉금엉금 기여나온 거부기는 《아이쿠! 오래 살았다구 해서 존경을 받는것이 아니구나. 해놓은 일도 없이 오래만 살았으니 이렇게 쫓겨나는구나.》

이때부터 거부기는 마을에 얼씬하지도 못했고 누가 나타나기만 하면 얼른 몸을 움츠리거나 물속에 숨는 버릇이 생겼다고 합니다.



바로 읽고 바로 쓰자요

❖ 다음단어들을 바로 읽고 쓰자요.

왁짝, 으뜸가는, 우뚝우뚝, 뜨뜻하게, 훨훨, 옳다거니, 데룩데룩, 좌상, 구르며, 큼직하게, 말꽉지, 목숨, 허둥지둥, 엉금엉금, 갈구나, 별난, 렴탐군, 의논, 존경을, 쫓겨나는구나

❖ 본문에 나오는 짐승들의 말을 살려읽으세요.

어려운 말을 풀어보자요

❖ 어울리는 말에 줄을 긋고 단어의 뜻을 알아보자요.

우뚝우뚝	기여가다
아득바득	솟아나다
엉금엉금	애쓰다
목을	**움츠리다**

❖ 맞는 뜻에 줄을 그어보자요.

렴탐군	땅속에서 땅밖으로 솟아나오는 물
내막	남모르게 조사하고 다니는 사람
샘물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깊은 속내

내용을 알아내자요

❖ 본문의 글차례를 생각해보고 빈자리에 써넣으세요.

첫째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의논하는 짐승들

둘째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잠을 자는 거부기

셋째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또 잠을 자는 거부기

넷째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쫓겨나는 거부기

❖ 옥토끼는 10년밖에 살지 못했지만 어떻게 되여 300년이 지난 후에도 그의 이름을 모르는 짐승이 없었을가요?

❖ 300년나마 산 거부기는 왜 그 누구도 알지 못할가요?

❖ 결국 어떻게 사는것이 가장 훌륭하게 사는것일가요?

재미있게, 조리있게 말해보자요

❖ 동무들앞에서 쫓겨난 거부기에 대한 이야기를 재미있게 말해봅시다.

- 몇명이 듣는가 생각해보세요.
- 본문의 글차례를 지켜야 합니다.
- 말을 듣는 대상이 누구들인가 생각하세요.
- 매 짐승들의 말을 다 다르게 말해보세요.
- 어디에서 말하는가 생각하세요.
- 발음, 끊기, 높낮이, 힘주기, 속도에 주의를 돌리세요.

멋진 글을 지어보자요

❖ 학생은 어떤 훌륭한 일을 하여 이름을 남기고싶습니까?
그 마음을 담아 제목을 달고 6문장이상의 글을 지어보세요.

배운것을 다져보자요

1. 본문을 속으로 읽으면서 내용을 다시 새겨보세요.
2. 다음의 단어들은 무엇을 나타낸 말들입니까? (   )에 써넣으세요.

영금영금(모양), 탕탕(소리), 왁짝(　　), 얼씬(　　),

데룩데룩(　　). 허둥지둥(　　), 풍덩(　　)

3. 다음단어들의 뜻을 말하고 짧은글을 지으세요.

아득바득, 렴탐군, 엉금엉금

4. 두 글자단어 《다리》로 시작해서 한 글자씩 늘어나게 말꼬리잇기를 해보세요. 마지막단어는 6글자로 되게 하세요.

5. 두명이 서로 한 문장씩 엇바꾸어가면서 본문의 내용을 말해보세요.



꼭 새겨두자요

오래 살았다고 하여 이름을 남기는것이 아닙니다.

짧게 살아도 해놓은 일이 많으면 그 이름은 사람들의 기억속에 오래오래 남아있게 됩니다.

단편소설

제30과

분 단 결 정

서 기 오

밀림의 바다우에 장엄한 해돋이가 시작되였습니다.

아버지장군님께서 타신 야전차는 밀림속으로 뻗은 길을 따라 점점 속도를 높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느덧 차는 연곡로동자구에 들어섰습니다.

차에서 내리시여 마을쪽을 살피시던 아버지장군님께서는 안주머니에서 종이 한장을 꺼내드시였습니다.

《이 마을에 우리 고향친구가 있소.》

《예?》

장군님의 말씀에 이곳 군당책임비서아저씨는 물론 모두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그 고향친구가 나한테 쓴 편지요.》

그것은 뜻밖에도 한 소학생이 장군님께 삼가 올린 편지였는데 거기에는 이렇게 씌여있었습니다.

《경애하는 아버지 **김정일**장군님께 올립니다.

자나깨나 뵙고싶은 아버지장군님!

저는 아버지장군님과 한고향에 사는 량강도 삼지연군 연곡중학교 소학반 3학년 김남혁입니다. 나는 오늘 2월의 명절을 맞으며 백두산밀영고향집앞에서 조선소년단에 입단하는 영광을 지녔습니다.

이 기쁜 소식을 아버지장군님께 알려드리고싶어 이렇게 편지를 씁니다.

아버지장군님!

우리 고향 삼지연은 그사이 몰라보게 달라졌습니다.

우리 학교도 새로 지었는데 야영소같은게 얼마나 멋있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며칠전에 새로 지은 집에 이사를 했는데 2층다락방까지 있는 딱소리나는 집입니다.

아버지장군님！

삼지연에 오시면 우리 집에 한번 꼭 오십시오. 연곡로동자구 공업품상점 왼쪽으로 세번째 집인데 지붕에 비둘기장이 있는 집을 찾으면 찾기 쉽습니다.

아버지장군님, 꼭 한번 오십시오. 꼭꼭꼭…》

《꼭》자를 세번씩이나 써서 강조하고도 마음이 놓이지 않아 그밑에 자기 집으로 찾아오는 길을 략도로까지 그려놓았습니다.

편지를 읽어가던 책임비서아저씨는 너무도 어이가 없어 허허 웃고말았습니다. 여덟살짜리가 무엄하게도 장군님을 자기 집으로 초청한것도 상상밖의 일이였지만 장군님께서 소학생이 쓴 편지를 몇달씩이나 고이 간수해가지고 다니시다가 이렇게 몸소 찾아주신다는것이 그저 놀랍기만 했습니다.

편지에 씌여있는대로 비둘기장이 있는 집앞에 이르신 아버지장군님께서는 《주인님 계십니까？》 하고 나직이 찾으시였습니다.

《남호야, 밖에 누가 왔나 봐라.》

소학반 3학년생인 남혁이가 눈짓하자 팽이를 깎던 동생 남호가 쪼르르 달려가 문을 방싯 열고 내다보더니 웬일인지 문을 도로 닫는것이였습니다.

《누가 왔니？》

남혁이가 이렇게 물었으나 남호는 대답대신 고개를 잔뜩 젖히고 벽에 정중히 모신 아버지장군님의 초상화를 유심히 살펴보는것이였습니다.

《누가 왔나 말이야？》

남혁이가 재차 묻자 남호는《아버지장군님같애.》하고 자신없는 목소리로 더듬더듬 대답했습니다.

《뭐? 너 정신 나가지 않았니?》

남혁이는 철없는 동생의 말이 어이없었지만 도대체 누가 찾아왔을가 하고 호기심이 잔뜩 동해 문을 열었습니다.

순간 남혁이는 그 자리에 돌처럼 딱 굳어지고말았습니다.

마당가에 정말 아버지장군님께서 환한 미소를 지으시고 서계셨던것입니다.

어푸러질듯 정신없이 마루에서 내려서던 남혁이는 옷매무시를 바로 하며 정중히 한손을 들어 아버지장군님께 소년단인사를 올렸습니다.

《아버지장군님, 안녕하십니까?》

《고향친구, 그새 잘 있었나?》

아버지장군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며 반갑게 두팔을 벌리시였습니다.

남혁이는 그처럼 뵙고싶던 아버지장군님의 넓고 따사로운 품에 와락 안겼습니다. 뒤미처 나온 동생 남호도 손에 들었던 팽이를 되는대로 집어던지고 달려와 아버지장군님의 품에 파고들었습니다.

《한줄에 별 셋, 우리 남혁이가 소년단반장이 됐구만.》

아버지장군님께서는 남혁이의 왼팔에 달린 열성자표식을 보시며 정겹게 웃으시였습니다.

《옥별인 더 쎕니다. 두줄에 별 셋!》

남호가 장군님을 올려다보며 느닷없이 묻지도 않는 말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반장두 세단다. 인민군대로 말하면 분대장격인데.》

아버지장군님께서 남혁이의 머리를 쓰다듬으시며 이렇게 말씀하시자 모두 즐겁게 웃었습니다.

《소년단시절이 중요합니다. 사람은 소년단조직에 입단하여 첫 정치적생명을 받아안게 됩니다. 나는 지금도 소년단시절을 잊을수 없습니다. 그때는 전쟁시기다보니 넥타이도 이렇게 좋은 넥타이를 매지 못하고 면천에 물감을 들여 만든 넥타이를 매였는데 자꾸 구김살이 가서 매일 다리미로 다려서 매군 하였습니다.》

아버지장군님께서는 남혁이의 나일론넥타이를 만져보시며 멀리 흘러간 소년단시절을 감회깊게 추억하시였습니다.

남혁이는 아버지장군님께서 자기처럼 소년단원이시였다는것이 신기하게 생각되였습니다.

2층 다락방을 돌아보시고 아래방으로 내려오신 아버지장군님께서 이번에는 남혁이의 숙제장을 하나하나 펼쳐보시다가 학교가 멀지 않은가고 물으시였습니다.

《멀지 않습니다.》

아버지장군님께 대답을 올리던 남혁이는 그제야 생각난듯 피뜩 벽시계를 쳐다보았습니다. 아버지장군님께서는 벌써 초조해하는 남혁이의 마음속을 속속들이 들여다보고계셨습니다.

《왜?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느냐?》

《예. 3시부터 분단에서 10월 10일을 맞으며 노래모임을 합니다.》

《노래모임을 한다?! 그럼 빨리 가봐야겠구나.》

《일없습니다. 구경군도 없이 그저 우리끼리 하는건데 난 합창에만 참가합니다.》

《그래 노래모임은 누가 시켜서 하느냐?》

《누가 시킨것이 아니고 분단결정입니다.》

《분단결정이란 말이지?》

아버지장군님께서는 이렇게 되뇌이시며 잠시 말씀이 없으시였습니다.

《그럼 분단결정을 어겼다구 비판받지 않을가?》

《일없습니다. 내가 아버지장군님을 만나뵙느라고 못 온걸 알면 오히려 모두 부러워할겁니다.》

응석기가 어린 그 말속에는 아버지장군님을 만나뵙느라고 못 참가했으니 비판받을 걱정이 꼬물만큼도 없다는 든든한 배심이 자리잡고있었습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지금까지 그렇듯 밝게 웃으시며 기뻐하시던 아버지장군님의 안색이 갑자기 흐려지시였습니다.

《남혁아, 너도 분단총회에서 결정을 채택할 때 손을 들었겠지?》

《예.》

《그것 봐라. 제가 손을 들어 결정했으면 무조건 집행해야지. 어려서부터 소년단결정을 홍정해버릇하면 이다음 커서 청년동맹결정도 당결정도 홍정하게 된단다. 알겠느냐?》

《예.》

남혁이는 얼굴을 숙이였습니다.

《남혁이가 분단결정을 집행하는데 지장이 된다면 우린 가겠다.》

아버지장군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정말로 자리에서 일어서시였습니다.

당황한 남혁이는 얼른 아버지장군님의 옷자락을 잡으며 말씀올렸습니다.

《아버지장군님, 학교에 가겠습니다.》

그리고도 장군님곁을 떠나기가 싫어서 별로 꾸물거리며 퇴마루에 나가 신을 신었습니다.

남혁이가 늦지 않을가 근심되시는듯 손목시계를 들여다보시던 아버지장군님께서 벌써 마당가를 벗어난 남혁이를 불러세우시더니 종이 한장을 꺼내여 무엇인가 급히 쓰시였습니다.

그것은 자신께서 남혁이와 이야기를 하느라고 좀 지체시켰다는 사연을 적으신 편지였습니다.

아버지장군님께서는 그 종이를 네모나게 접어서 남혁이의 손에 쥐여주시며 이렇게 말씀하시였습니다.

《이걸 분단위원장에게 가져다주어라. 그리고 내가 이제 시간을 봐서 너희네 학교에도 간다고 하여라.》

《야! 좋네.》

남혁이는 장군님께서 써주신 편지를 높이 들어 흔들며 까치걸음으로 춤을 추듯 달려갔습니다.

(무엇이라고 쓰셨을가?)

남혁은 편지를 딱 한번만 보고싶은 생각이 불쑥 났습니다.

그러나 어린 마음에도 장군님께서 쓰신 편지를 함부로 몰래 보는것은 나쁜 일이라는 생각이 들어 그만두었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아버지장군님께서 왜 교장선생님이나 담임선생님에게 편지를 쓰지 않고 분단위원장한테 쓰셨을가 하는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곰곰히 생각해보던 남혁이는 어린 마음속에도 붉은넥타이를 맨 소년단원이며 열성자인 자기에게 분단결정이 무엇인가를 깨우쳐주시려는 아버지장군님의 깊은 뜻이 뜨겁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장군님의 말씀대로 한번 손을 들어 결정한 소년단조직의 결정은 어떤 일이 있어도 무조건 집행하겠다는 새로운 결의를 굳게 굳게 다지였습니다.

바로 읽고 바로 쓰자요

❖ 밑줄그은 말에 주의를 돌리면서 다음단어들을 바로 읽고 쓰자요.

연곡로동자구, 고향친구, 략도로, 여덟살, 깎던, 느닷없이, 뒤미처, 눈짓, 되는대로, 어푸러질듯, 됐구만, 구김살, 못 온걸, 되뇌이시며, 꾸물거리며, 속속들이, 어겼다구, 비판받지, 퇴마루, 흥정, 옷자락, 웅석기, 해돋이, 늦지, 씌여

❖ 본문을 살려읽으세요.

- 위대한 장군님의 말씀은 정중하면서도 친근감이 안겨오게 읽어야 합니다.
- 위대한 장군님께 삼가 올린 남혁이의 편지내용은 그리움과 자랑이 안겨오게 읽어야 합니다.
- 남혁이의 말은 맑은 목소리로 씩씩하게 읽어야 합니다.
- 설명글은 좀 천천히, 나지막한 목소리로 읽어야 합니다.

어려운 말을 풀어보자요

❖ 맞는 뜻에 줄을 그어보자요.

장엄하다	더듬으며 마음속에 품게 되는 느낌이나 감정이 깊다
감회깊다	어려워하는 기색이나 태도가 없다
무엄하다	아직 어리다
철없다	씩씩하고 위엄있거나 웅장하다

해돋이	빛나는 영예
야전차	주요한것만을 간단히 그린 도면이나 지도
략도	해가 막 떠오르는것, 또는 그때
호기심	단층집들에서 방앞에 건물의 벽을 따라 만든 작은 마루
물감	색다른것에 끌리는 마음
퇴마루	전투장으로 다니는 차
영광	천이나 종이 같은것에 색갈을 들이는데 쓰이는것

쪼르르	찬찬하고 자세하게
피뜩	작은 발걸음으로 매우 빨리 걸어가는 모양
곰곰히	갑자기 눈길을 돌리여 잠간 바라보는 모양

❖ 뜻같은말에 줄을 긋고 단어의 뜻을 알아보자요.

회상	**배심**	뜻밖에
갑자기	**추억**	회고
담력	**느닷없이**	배짱

❖ 문장속에서 단어의 뜻을 알아보자요.

- 선생님은 알아맞추기경연무대에 나선 춘국이의 행동을 **초조한** 마음으로 지켜보았다.
- 집에서 나쁜 장난을 하던 동생은 어머니가 갑자기 들어오시자 몹시 **당황해하였다**.

내용을 알아내자요

❖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은 어떤분이십니까?

-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왜 남혁이를 고향친구라고 불러주시였습니까?
-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왜 남혁이네 집을 찾아가시였습니까?
-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남혁이가 올리는 소년단인사를 받으시고 어떻게 하시였습니까?
-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왜 남혁이에게 자신의 소년단시절이야기를 들려주시였습니까?
-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남혁이가 분단결정을 어기지 않도록 어떻게 일깨워주십니까?
-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왜 분단위원장에게 편지를 쓰십니까?
- 우의 내용을 통하여 위대한 장군님은 어떤분이신가를 알수 있습니까?

❖ 본문을 배우고 학생은 무엇을 느꼈습니까?

재미있게, 조리있게 말해보자요

❖ 위대한 장군님께 삼가 올린 남혁이의 편지를 통하여 남혁이는 어떤 학생인가를 말해보세요.

❖ 자나깨나 뵙고싶은 위대한 장군님을 직접 만나뵈온 남혁이는 얼마나 기뻤을가요? 남혁이의 심정으로 말해보세요.

❖ 학생도 분단총회에서 결정을 채택할 때면 손을 들었겠지요. 분단결정을 집행한것은 무엇이고 집행하지 못한것은 무엇인지 말해보세요.

❖ 남혁이처럼 학교에서부터 집까지 가는 길을 그리고 설명해보세요.

멋진 글을 지어보자요

분단결정을 집행하는 과정에 있었던 일을 가지고 이야기글을 지어봅시다.

❖ 제목을 생각해보세요.

❖ 글차례를 생각해보세요.

- 언제 분단총회에서 어떤 문제를 토의결정했는가?
- 그때 《나》는 어떻게 했는가?
- 《나》는 분단결정을 어떻게 집행하였는가?

❖ 알맞는 말, 생동한 표현을 생각해보세요.

❖ 대화까지 넣어서 재미나게 써보세요.

배운것을 다져보자요

1. 본문을 살려읽어보세요.
2. 뒤말을 이어 문장을 완성하세요.(6개이상의 단어를 넣으세요.)

ㄱ) 남혁이가 문을 열고 밖을 내다보는데~

ㄴ) 장엄한 해돋이가 시작되더니~

ㄷ) 어느덧 차는~

ㄹ) 순간 남혁이는~

3. 다음단어들의 뜻을 말하고 짧은글을 지으세요.

야전차, 영광, 배심, 곰곰히

4. 다음의 말소리로 발음되는 소리같은말들을 아는껏 찾아보세요.

잡다, 다지다

5.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 소년단시절의 중요성에 대하여 하신 말씀을 글씨규범에 맞게 곱게 쓰세요.



꼭 새겨두자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은 소년단조직의 결정을 어떤 일이 있어도 무조건 집행하도록 따뜻이 손잡아 이끌어주신 우리 학생소년들의 자애로운 스승이십니다.

다시한번 익혀보자요
(25과 — 30과)

1. 다음단어들을 받아쓰고 쓴 글자와 다르게 읽는 글자에 밑줄을 그으세요.

   써놓고, 사무치도록, 커갈수록, 겪으시여, 착취, 묻힌, 숭엄한, 번쩍이는, 멋있네, 복무, 혁명사상, 변함없고, 해돋이, 장엄한, 눈짓하다, 어푸러질듯, 느닷없이, 묻지도, 되뇌이시며, 만나뵙느라고, 훨훨, 말꾹지, 삼백다섯일세, 렴탐군, 존경, 다섯마리, 배고플세라, 따뜻한, 쉴새없이, 잡숴나요, 애처롭게, 샛별눈

2. □안에 《받, 밭, 맛, 맏, 맞, 맡, 숫, 숟, 숯, 숱》을 알맞게 써넣으세요.

   ㄱ) 아버지는 어깨□치개를 든든히 하고 □에 나가 돌들을 져날랐다.

   ㄴ) □은 연구과제를 끝내고 들어서는 □형을 반갑게 □아들인 어머니는 부엌에서 □있는 음식을 해가지고 들어오시였다.

   ㄷ) □눈길을 헤치고 □구이막에 들어서니 형님은 □한 장작을 패놓고 □가락으로 밥을 떠서 잡□고있었다.

3. 몸에 살이 진것을 나타내는 말을 5개이상 찾아보세요.

   례 : 피둥피둥

4. 다음단어들의 뜻을 말하고 짧은글을 지으세요.

굵다	핥다	돌
긁다	훑다	돐

5. 다음문장들을 읽어보세요.

   ㄱ) 소학반 3학년생인 남혁이가 눈짓하였습니다.

   ㄴ) 동생 남호가 팽이를 깎다가 쪼르르 달려가 문을 방싯 열었습니다.

   ㄷ) 밖을 내다보던 남호가 웬일인지 문을 도로 닫았습니다.

- 토를 찾아보세요.
- 한덩이로 된 말을 찾아보세요.
- 우의 세 문장을 하나의 문장으로 만들어보세요.

6. 빈자리에 알맞는 말을 넣어 문장을 완성하세요.

ㄱ) 아버지는 순이에게 __________ 국장이라고 한다고 알기 쉽게 말씀해주시였습니다.

ㄴ) 우리 집 콤퓨터는 지혜의 샛별눈__________ 이끌어갑니다.

ㄷ) 옥토끼는 10년을 살았어도 __________ 거부기는 삼백년나마 살았지만 ______________________

ㄹ) 찌꼬리엄마는 세찬 바람____________ 바구니에 담았습니다.

ㅁ) 아버지장군님께서는 _____________ 분단위원장에게 편지를 쓰시였습니다.

7. 다음물음에 대답해보세요.

ㄱ)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작문에서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어머님은 어떤분이시라고 쓰시였습니까?

ㄴ) 우리 나라 국장에 어떤 뜻이 담겨져있습니까?

ㄷ) 콤퓨터를 왜 선생님이라고 노래하였습니까?

ㄹ) 찌꼬리엄마의 사랑은 어떤것이였습니까?

ㅁ) 거부기는 왜 동산에서 쫓겨났습니까?

ㅂ)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남혁이에게 분단결정을 무조건 집행하도록 어떻게 깨우쳐주시였습니까?

8. 속담, 수수께끼

❖ 서로 반대되는 말이 들어간 속담을 익히고 짧은글을 지어보세요.

- 길고 짧은것은 대보아야 안다— 잘하고 못하는것, 이기고 지는것은 말로써가 아니라 실지 겨루어보아야 안다는 말.
-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남을 대하는만큼 남도

자기를 대한다는 말.

- 웃물이 맑아야 아래물이 맑다— 웃사람이 모든 면에서 아래사람의 모범이 되여야 한다는 말.
- 낮말은 새가 듣고 밤말은 쥐가 듣는다— 아무리 남모르게 하는 말도 소문이 나기때문에 언제나 함부로 해서는 안된다는 말.

❖ 수수께끼

- 이마우에 눈박힌것이 무엇일가요?
- 뜨거워야 일을 하고 차면 일을 못하는것이 무엇일가요?
- 먹으면 훌쭉해지고 안 먹으면 불룩한것이 무엇일가요?

9. 알아맞춰보세요.

옛날 하늘나라왕이 신하들을 불러놓고 땅에 내려가서 사람들이 제일 아름답다고 생각하는것 가운데서 세가지만을 골라가지고 오라고 하였습니다.

신하들은 땅에 내려와 세가지를 골랐습니다.

하나는 예쁜 꽃이였고 다른 하나는 어린 아기의 웃음이였으며 또 다른 하나는 어머니의 사랑이였습니다.

이 세가지를 가지고 하늘로 올라갔는데 그동안 두가지는 변하여 아름다움을 잃었습니다.

그럼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가장 아름다운것은 무엇일가요?

국 어

(소학교 제3학년용)

집 필 교수 박사 문재홍, 염정실,
공훈기자 김승도, 백광명,
부교수 리수향
심 사 심의위원회
편 집 김송희
편 성 박성혁, 조복남
장 정 박성혁
그 림 최경락, 장대길, 리정철,
김순영, 류명심, 조복남
교 정 오혜란

낸 곳 교육도서출판사
인쇄소 외국문출판사 인쇄공장
인 쇄 주체101(2012)년 3월 9일 발 행 주체101(2012)년 3월 19일

교—12—보—633 값 10원